Collection @ chosun

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8377

Collection @ chosun

2009년 8월

박사학위논문

벤처기업의 창업가특성과 차별화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 영 학 과

김 형 철

Collection @ chosun

벤처기업의 창업가특성과 차별화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Effect of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iation Strategy on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

2009년 08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 영 학 과

김 형 철

Collection @ chosun

벤처기업의 창업가특성과 차별화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윤 종 록

이 논문을 경영학 박사 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0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 영 학 과

김 형 철

Collection @ chosun

김형철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2009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Collection @ chosun

목 차

Abstract

Ⅰ. 서 론 ····· 1

1.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 3 논문의 구성 ····· 4

Ⅱ. 이론적 배경 ····· 6

2. 1 창업가 특성 ····· 6

2.1.1 심리적특성 ····· 8

2.1.2 혁신성 ····· 11

2.1.3 역량특성 ····· 12

2. 2 경영전략 ····· 18

2.2.1 경영전략의 개념 ····· 18

2.2.2 경영전략의 유형 ····· 25

2.2.3 벤처기업 경영전략에 관한 선행연구 ····· 28

2.2.4 창업가특성과 경영전략 ····· 31

2. 3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 37

2.3.1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접근방법 ····· 37

2.3.2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측정 ····· 40

2. 4 연구모형에 관한 선행연구 ····· 46

2.4.1 개념모형 ····· 52

2.4.2. 실증분석모형 ····· 56

Collection @ chosun

Ⅲ.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 61
3. 1 연구모형의 설계 ····· 61
3. 2 가설의 설정 ····· 62
3.2.1 창업가의 특성과 경영전략 ····· 62
3.2.2 창업가의 특성과 경영성과 ····· 65
3.2 3 경영전략과 경영성과 ····· 67
3.2.4 경영전략의 매개효과 ····· 68

Ⅳ. 연구방법 ····· 70
4. 1 표본의 선정 및 특성 ····· 70
4.1.1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 70
4.1.2 표본의 특성 ····· 71
4.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 73
4.2.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73
4.2.2 설문지 구성 및 측정 ····· 77
4. 3 자료의 분석방법 ····· 78

Ⅴ. 실 증 분 석 ····· 81
5. 1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 81
5.1.1 외생변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 82
5.1.2 내생변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 85
5. 2 상관관계 분석 ····· 86
5.2.1 잠재변인들의 상관관계 ····· 86
5.2.2 다변량 분석의 기본가정 검토 ····· 88
5. 3 연구모형의 분석 ····· 89
5.3.1 측정모형 분석 ····· 89

Collection @ chosun

5.3.2 대안모형의 확인 ····· 95
5.3.3 직접효과 검증 ····· 99
5.3.4 간접효과 확인(매개효과 확인) ····· 102
5.3.5 효과분해 ····· 104
5. 4 가설 검증 결과 요약 및 논의 ····· 105

Ⅵ. 결 론 ····· 115
6. 1 연구결과의 요약 ····· 115
6. 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 117

참고문헌

설 문 지

Collection @ chosun

표 목 차

<표 2-1> 역량유형 ····· 16
<표 2-2> 경영전략유형의 분류 ····· 27
<표 2-3> 창업가특성과 경영전략에 관한 선행연구 ····· 35
<표 2-4>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모형에 사용된 경영성과지표 ····· 44
<표 2-5>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관련 연구모형 ····· 53
<표 2-6> 벤처기업 경영성과요인의 다양한 연구모형 사례 ····· 53
<표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 72
<표 4-2> 창업가 특성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관련연구 ····· 76
<표 4-3> 설문지의 구성 ····· 78
<표 5-1> 외생변수 탐색적요인 및 신뢰도분석 ····· 84
<표 5-2> 내생변수 탐색적요인 및 신뢰도분석 ····· 85
<표 5-3> 잠재변인들의 상관관계 ····· 87
<표 5-4>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 91
<표 5-5> 요인 간 공분산(상관관계) ····· 93
<표 5-6> 측정모형의 회귀계수 ····· 94
<표 5-7>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모형 적합도 ····· 97
<표 5-8> 경로계수 (표준화 추정치) ····· 98
<표 5-9>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 100
<표 5-10> 매개변인 효과 분석 ····· 103
<표 5-11>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 104
<표 5-12> 가설 검증표 1 ····· 106
<표 5-13> 가설 검증표 2 ····· 109

Collection @ chosun

그 림 목 차

<그림 2-1> 조절효과모형 ····· 46
<그림 2-2> 매개효과모형 ····· 47
<그림 2-3> 독립효과모형 ····· 47
<그림 2-4> 상호작용효과모형 ····· 48
<그림 2-5> Lumpkin & Dess의 연구모형 ····· 52
<그림 2-6> 벤처기업 경영성과의 개념모형 ····· 55
<그림 2-7> 벤처기업 경영성과의 개념모형 ····· 56
<그림 2-8> 직접효과모형 ····· 57
<그림 2-9> 간접 및 직접 효과모형 ····· 58
<그림 2-10> 기업경영성과 모형 ····· 60
<그림 3-1> 연구모형 ····· 62
<그림 5-1> 측정모형분석 ····· 92
<그림 5-2> 연구모형 ····· 96
<그림 5-3> 대안모형 ····· 96
<그림 5-4> 경로계수 ····· 101

dCollection @ chosun

Abstract

The Effect of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iation Strategy on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

Kim Hyoung Chel

Advisor : Prof. Jong-rok Yoon, Ph.D.

Department of Business Adminstration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Korean venture businesses have highly developed the industrial structure through a new technique and a new enterprise. They have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capital market through revitalizing a venture capital and KOSDAQ market. But these venture businesses have experienced the time of the remarkable success for very short time and painful failure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venture businesses that have their high technical ability or profitability can get opportunities to be another new advance and the chance of development.

Though the global recession, recently there are more 200 venture businesses which are making sales around one hundred million and they cover 5% of GDP in our country's total sales.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09).

Collection @ chosun

Thus, the researches for strengthening their competitive power is need to be done.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influence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venture on the materials and components business in Korea.

The body of this paper consist of six chapters.

Chapter 1 – outlines the background, purpose, research scope, method and the structure of this paper.

Chapter 2 – surveys the references and identification of the influence on the business performance.

Chapter 3 – focuses on the framework of empirical study; hypothesis, and definition of variables and then applies the hypothesis.

Chapter 4 – summarizes the major empirical results and managerial applic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empirical identify the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 For the study, the data were gathered from the establish of venture business in Seoul, Gyunggi, Busan, Daejeon, Gwangju province through the questionnaires. Research hypothesis were examined based on the gathered data. the data for this research was collected for 266 venture businesses utilizing the sampling method after analysis of the data in terms of ML(maximum Likelihood) procedure in AMOS 6.0 was used and the major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out that Entrepreneu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re not directly related to Differentiation Strategy

Collection @ chosun

and it was found out that Entrepreneurs innovativeness is related to Differentiation Strategy it was found out that Entrepreneurs competence is also related to Differentiation Strategy.

Second, it was found out that Entrepreneu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re directly related to Management Performance and it was found out that Entrepreneurs innovativeness is related to Management Performance, it was found out that Entrepreneurs competence is related to Management Performance.

Third, it was found out that Differentiation Strategy are directly related to Management Performance.

Fourth, Differentiation Strategy were related to Management Performance. The major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identifying the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 by mea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the primary factors which had effect on venture business, this research classified a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into a few psychological, innovativeness and competence analyzed if these trait have and effect on the satisfaction of employee in the company and it revealed that the satisfaction of employee in the company have an effect on the outcome of venture business, This study is expected to give effective operation and hint point for development of venture business. verifying influences on the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 on the materials and components business in Korea by the variables of reference review

Collection @ chosun

Although this study relies only on the small number of samples, it contributed to identifying the influences on the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 on the materials and components business in Korea is affected by Entrepreneu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Entrepreneurs competence, internal resources of business, Differentiation Strategy.

Nevertheless, this study can be improved with more analysis on theoretical development, development of variables, the comparative method, and etc.

Collection @ chosun

Ⅰ. 서 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벤처기업은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창업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든가 벤처캐피탈, 코스닥시장 등의 활성화를 통해 자본시장을 발전시켜 국민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을 범국가적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였으며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였다. 특히 법률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들은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환상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짧은 기간 동안 화려한 성공이 있었던 반면 뼈아픈 실패를 동시에 경험하는 이중성을 나타냈다. 우리의 경우 벤처기업 투자에 심한 거품(bubble)이 형성되었으며, 2000년대 초'벤처거품'이 붕괴되면서 많은 경제적,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 때문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상실과 자금난으로 벤처기업'생태계'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동안 닷컴 열풍을 타고 신경제의 주역으로 부상했던 국내 벤처기업들은 그 열기가 가라앉으면서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였다. 유망 기업으로 각광받던 기업들마저 수익성이 없는 사업 아이디어로 전락하여 결국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거품을 걷어낸 건실한 벤처기업은 새롭게 국내 벤처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수익성에 대한 옥석이 가려지면서 실질적인 수익을 거둬들였으며, 해외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벤처산업은 거품 경제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의 도약과 함께 새로운 벤처기업의 탄생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dCollection @ chosun

특히 최근에는'벤처 어게인'을 외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모델의 벤처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숫자는 2008년 말 현재 14,198개(중소기업청. 2008)로 벤처 붐이 불기 시작하던 1998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심한 굴곡 현상을 보여 왔다. 1998년 2,042개에 불과하던 벤처기업은 정부의 강력한 벤처 육성 정책에 힘입어 1999년 4,394개로 2배 이상, 벤처 붐이 절정을 이루던 2000년에는 8,798개로 3년 사이에 무려 4배 이상 급증하였다.

더욱이 정부의'벤처기업 2만개 육성 정책'과 맞물려 고속 성장을 거듭하던 벤처기업은 2001년 말에는 1만여개를 넘어선 11,392개로 절정에 이르렀으나 벤처기업의 거품 붕괴와 함께 2003년 7,702개 기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매출 1천억원을 넘는 벤처기업이 200개를 돌파하고 있는 것과 함께 벤처기업이 양적, 질적인 성장 속에 총 매출액은 우리나라 GDP의 5%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중소기업청. 2009).

벤처기업의 성공 및 성장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되는 주요 경영성과 영향 요인들은 기업내부 및 외부 요인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창업가 정신 혹은 창업가 특성(Wiklund & Shepherd 2005; Cooper 1993; Covin & Slevin 1991; 김 갑, 1998; 이장우·장수덕 1998), 자원적 요소(Edelman, Brush & Manolova 2005; Chrisman 1998; 안연식 2001; 이장우·장수덕 1998) 및 경영전략적 요소(Edleman, Brush & Manolova 2005; Chandler & Hanks 1994; Duchesneau & Gartner 1990; 이장우 1998)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기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창업가의 특성이나 경영전략은 주로 독립요인으로 구성하여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연구되었다(Wiklund & Shepherd 2005; Sandberg & Hofer 1987; Cooper 1993; Covin & Slevin 1991).

dCollection @ chosun

또한 국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선행 연구는 창업가 특성과 경영전략을 경영성과에 대한 동일한 단일차원 함수관계로 파악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차원의 연구는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설명에 있어 한계를 나타낸다(Covin & Slevin, 1991)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최근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는 개인차원, 경영전략적 차원을 결합하여 다차원적인 연구(Chrisman, Bauerschmidt, & Hofer, 1998; Covin & Slevin 1997; Lumpkin & Dess, 1996)가 진행되고 있으며 벤처기업 성장의 포괄적인 다차원 통합모형을 제안하고 실증연구를 통하여 검증하고 있다.

Baum(2003)의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특성이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경영전략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설명하려는 현대적 접근방법이 나타난 것이라고 파악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쟁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높은 경영성과의 실현을 위해 창업가의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Baum(2003)의 벤처성장에 대한 구조모형연구를 기반으로 창업가 특성을 외생변수로 하고 경영전략을 매개적 내생변수로 설정,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가특성과 경영전략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경영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의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헌적 고찰과 실증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적 고찰을 통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 정리 하였다. 특히 국내, 외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영향요인을 창업가특성, 경영전략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연구모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검증을 위한 실증적 연구는 설문지를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방법은 우편조사로는 회수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되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창업가특성, 경영전략, 경영성과 및 기업의 일반사항으로 구성하였고 응답자는 벤처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증조사는 전국에 있는 벤처기업 특히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이며 창업한지 5년 이상 경과된 벤처기업체를 표본단위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창업 후 3년 미만의 경우에는 기업 생존여부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며(Ostgaard & Birley, 1994), 또한 본 연구에서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주관적 경영성과와 함께 객관적 경영성과를 측정하게 되는데 3년간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1. 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모두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논문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Ⅰ장은 서론 부분으로서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논문구성을 기술하였다.

dCollection @ chosun

제 Ⅱ장은 창업가 특성과 경영전략, 그리고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접근 방법과 측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 Ⅲ장은 Ⅱ장에서 검토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연구의 모형을 설계하고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제 Ⅳ장 연구방법에서는 Ⅲ장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지 구성에 관하여 기술하고 표본의 추출과 특성,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을 기술하였다.

제 Ⅴ장은 실증자료에 대한 분석내용으로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그리고 모형검증을 통한 추정결과를 기술하였다.

제 Ⅵ장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갖는 시사점을 제시하며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Collection @ chosun

Ⅱ. 이론적 배경

2. 1 창업가 특성

자원기반관점에 기초를 둔 경영성과의 결정요인으로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져왔던 요인들 중에 하나는 창업가의 개인 특성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조직일수록 창업가의 역할비중이 더욱 커짐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Mintzberg(1988)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모든 것이 창업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다. 조직목표는 곧 창업가의 목표이고 전략은 창업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며, 기업경영성과는 창업가의 성공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또한 벤처기업의 창업가가 대부분 소유경영자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권한이 창업가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기업의 경영전략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주요 의사결정에 따라 기업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벤처기업의 창업가 특성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학자들의 관심의 초점은 성공한 벤처창업가에게는 남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한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Sexton & Bowman,1986). 또한 벤처투자자, 엔젤투자자 그리고 경험 많고 성공한 창업가들에게 신생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창업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Herron & Robinson,1993). 김종관과 이용탁(2001)의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창업가 특성이 벤처기업 경영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희순(2002)의 한국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연구에서는 창업가의 특성을 심리적 특성, 동기적 특성, 경력 특성, 창업가 역량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고, 김영운(2003)은 창업가의 특성이 벤처기업의 재무적 경영성과지표인 자기자본 이익률과 매출 순이익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최용호 등(2003)은 창업가, 경영전략 및 구조요인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가는 경영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임을 밝혔으나, 창업가의 이전 경험은 종업원의 행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장우와 장수덕(1999)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벤처기업의 창업가[1] 특성과 경영성과의 관계에 관한 외국의 선행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심리적 특성, 행위적 특성, 역량특성, 리더십 등의 연구로 구분되고 있다. 이처럼 기업 경영성과의 영향요인은 접근시각에 따라서도 달라졌지만 연구자들의 연구관점에 따라서도 매우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창업가의 인구통계학적 및 심리적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과 벤처기업의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대해 일관적이면서도 확고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구체적인 관계를 규명하는데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Amit, Glosten & Muller, 1993; Gartner, 1988; Low & MacMillan, 1988). 최근 이러한 특성연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많은 특성연구들이 연구표본의 가변성, 상이한 조작적 정의, 측정 상의 일관성 부재 등으로 인하여 다양하고 상이한 결과들을 도출함으로써 일관된 결과들을 얻지 못하였다는 데서 비롯되었다(Johnson, 1990).

이러한 비판들이 초기 개인특성에 집중되었던 연구노력들을 약화시켰지만 이것이 곧 창업가의 개인특성이 창업 및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Carland 및 그의 동료들(1988)이 주장하듯이, 창업 및 벤처기업과 관련된 현상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특성에 기초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는 어떤 이견도 제기되고 있지 않지만 보다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인특성변수들이 개발되고 이들 변수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벤처기업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가의 특성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 연구자에 따라 창업가, CEO, 창업자, 등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연구자는 창업가로 칭하였음.

Collection @ chosun

간주되어 왔으며 많은 학자들에 의해 현재까지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창업가의 특성을 심리적 특성으로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혁신성과 창업가의 역량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1.1 심리적 특성

1) 성취욕구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는 McClelland(1961)가 프로테스탄티즘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성취 욕구를 도입하면서부터 성공적인 창업가의 특성으로 간주되어 왔다. 현대적 의미는 Murray(1938)의 연구로부터 유례한다. Murray(1938)는" 성취 욕구를 어떤 것들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욕, 물질적 사물, 인간, 또는 아이디어에 정통하고 이들을 조직하며 조직화하려는 의욕, 가능한 한 신속하고 독립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려는 의욕, 역경을 극복하고 높은 기준에 도달하려는 의욕, 자기 자신을 탁월하게 만들려는 의욕, 다른 사람들과 경쟁에서 그들을 능가하려는 의욕,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의욕" 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Murray의 연구가 McClelland(1961)의 성취욕구 이론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McClelland(1961)는 성취욕구를 창업가적 행동과 경제적 성장에 관한 문제에 이론적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신의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McClelland(1961)의 연구 이래 많은 연구들은 성취욕구를 창업가적 행동과 관련시켜 왔다. 성취욕구는 창업가가 벤처경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며, 정성한과 김해룡(2001)은 성취욕구를 어떤 것을 신속하고 가능한 한 잘 이행하려는 바람 또는 심적 경향이라고 하였다. McClelland(1961)가 성취욕구에 대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이후, 성취욕구는 창업가의 행동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Hornaday & Aboud(1971), Decalo & Lyons(1979)등은 창업가가 보통 다른 집단에

dCollection @ chosun

비해서 성취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성취욕구를 가진 창업가들이 성공적인 사업운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Sexton & Bowman(1985)은 성공적인 창업가들에게 뚜렷한 성취욕구가 나타남을 밝혀냈으며, Smith & Miner(1984)의 연구에서는 성취욕구와 성장률 사이의 유의한 관련성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여러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창업가는 다른 일반사람에 비해서 성취욕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성취욕구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Miner와 그의 동료들(1980) 역시 창업가의 성취동기와 기업의 성장 간에 정(+)의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위험감수성향이 있어야지만 창업가들이 도전의욕을 가질 수 있고 성공 확률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Schrang(1965)는 창업가의 성취욕구가 낮은 경우에 평균적인 경영성과를 달성하기가 용이한 반면, 창업가의 성취욕구가 높은 경우는 큰 이득을 보거나 큰 손실을 볼 가능성 모두와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성취욕구가 높은 창업가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며, 잘못될 경우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형래(1995)는 성취욕구와 기업성장 관련변수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그에 반해 조임현(1998)은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창업가의 성취동기, 권력동기, 친애동기와 매출경영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성취동기와 권력 동기는 매출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만 친애동기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문제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며, 적절한 난이도의 목표를 제시한다. 또한 도전적 목표와 목표이행의 수단으로 가치 피드백을 설정하여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감행한다. 그들은 적당한 난이도의 목표를 선택함으로써 실패의 횟수를 줄이고, 도전적인 과업의 달성과 함께 만족감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만족감은 성취행동을 강화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많은 벤처기업들이 창업자 혹은 창업가가 가진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업가의 강한 성취욕구는 벤

Collection @ chosun

처기업의 성장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하여, Sexton과 Bowman(1985)은 성공적인 창업자들은 높은 성취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Smith와 Miner(1983)는 창업가적 성취 지향적 성향과 그 회사의 성장률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조형래(1995), 이장우(1998), 박영배와 윤창석(2001)의 연구에서도 성취욕구와 경영성과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위험감수성향

위험감수성향(Risk-Taking Propersity)이란 급변하는 환경을 선호하거나 또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을 말한다. 위험감수성향은 근본적으로 신규사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창업가적 과정에 내재하고 있는 특성이고, 창업가의 중요한 심리적 특성중의 하나이다. 행동과학자들은 위험감수성향을 불확실한 기업환경 속에서 창업가들의 행동방향을 설정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을 'High risk, High return'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보듯이, 벤처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높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창업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Smith와 Miner(1971)는 창업가를 예견력을 소유하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Gasse(1982)에 의하면 창업자는 불확실성을 심각한 위협으로서 보다 긍정적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Begley와 Boyd(1987)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가와 창업가 사이의 모호성 인내도 차이를 조사한 결과 창업가의 모호성 인내도가 창업가보다 높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만약에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이 동기부여적으로 작용한다면 창업가적인 성공을 촉진시킬 것이며, 창업가는 비 창업가보다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이 명백히 높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Budner(1962)에 의하면, 모호함은 생소함, 복잡성 등에서 나오며, 모호함에 대한 수용력은 모호한 상황을 바람직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dCollection @ chosun

2.1.2 혁신성

혁신은 동물의 원피를 잘 손질하여 새로운 가죽으로 만든다는 의미로서, 과거와는 새로운 생각이나 방식으로 일하는 것 또는 새롭게 개혁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혁신을 상대적으로 빨리 수용하려는 성향 또는 조직이 변화하려는 의지로 보고 있는 혁신성은 그 개념이 다르다. 이러한 혁신 또는 혁신성에 대한 연구는 대상 분야, 형태, 학자에 따라서 그 개념과 정의가 매우 상이하고,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혁신 또는 혁신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창업가특성의 구성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혁신성은 그 개념과 정의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즉 범용적 혁신성은 기업의 행동, 과정, 실천과 무관하게 사용되어 좀 더 광의적 의미라면, 창업가특성의 혁신성은 기업의 행동과 실천을 중요시하는 적극적인 협의의 개념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측정방법 또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고 있는 혁신성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hompson(1967)은 새로운 아이디어, 프로세스 및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고 수용하고 실행해 가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Zaltman et al(1973)은 새롭다고 느끼는 아이디어의 실질적, 물질적인 가공품이라고 주장 하면서, 다른 경쟁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을 일찍 적응하는 능력의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Quinn & Cameron(1983)과 Phillips et al(1983)는 문제를 창의적이거나 새롭게 해결하려는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Van de Ven(1992)은 혁신성을 조직 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행동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조직문화적관리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Hurley(1998)는 집합적 관점과 조직 문화적 측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 정도로 혁신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Matsuno(2002)는 혁신성과 위험감수성향을 창업가에 매우 필요한 기질로 표현한바 있다. 또한 Kuratko & Hodgetts(2001)는 창업가 특성에 있어 혁신

Collection @ chosun

성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혁신성은 벤처창업가들이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만드는 기회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Schumpeter(1937)는 기업가를 경제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기업가에 의해 제품의 개선이나 효율적인 생산과정 활동 등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기업가정신의 주요 개념은 경제효율경영성과 복지를 이끌 수 있는 혁신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Schumpeter가 말하는 기업가란 기업의 성장을 위해 혁신성을 갖춘 사람이며, 자신의 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업에서 혁신적 경영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Drucker(1985)는"기업가란 변화를 탐구하고 변화에 대응하며, 변화를 기회로 이용하는 자"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기업가를 바탕으로 하여 조직을 혁신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기업가정신이라고 하였다. 결국 이들의 주장을 통해 우리는 기업가정신의 핵심이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임을 알 수 있다(유만혁, 1997). 또한 김영수(1997)는 벤처기업과 이노비즈(inno-biz)기업 등 기업의 혁신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기업들은 여타 기업들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들마다 가지고 있는 속성에 따라 기업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속성이 기업가정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기업에 있어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로서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만을 제시하고 있다

2.1.3 역량특성

최근 들어 창업가의 개인특성으로서 기존 연구에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요인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한 분야가 창업가의 역량이다. 이는 역량적 접근법이 기존 개인특성연구에서 보여 왔던 한계점들을 보완하면서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dCollection @ chosun

역량(competence)은 경영전략, 관리자개발, 인적자원개발, 창업가적 창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개념이다. 역량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용어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다소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창업 및 벤처기업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역량을 특정 직무에서 효과적이거나 뛰어난 경영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및 능력으로 개념화하고 있다(Klemp, 1980). 몇몇 연구자들은 역량으로서 지식, 기술 및 능력의 선행변수인 특성, 동인 및 태도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면 Boyatzis(1982)는 역량을 동인, 특성, 기술, 자기이미지의 양상 또는 사회적 역할, 또는 일련의 지식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Spencer (1993)도 역량을 직무 또는 상황에서 기준에 근거한 효과적이고 뛰어난 경영성과와 인과관계가 있는 개인의 기초 특성으로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기초 특성이란 역량이 개인성격의 지속적이고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고 다양한 상황 및 직무과업에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역량이 행동 및 경영성과를 유발하거나 예측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에 근거한다는 것은 역량이 구체적인 기준 또는 표준에서 측정됨으로써 실제 누가 무언가를 잘 행하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예측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러 선행연구들이 비록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역량을 개념화하는데 핵심 부분은 역량을 특정 직무에서의 성공 및 뛰어난 경영성과와 관련된 특성으로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Woodruffe(1992)에 따르면 역량은 직무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역량이라는 용어는 경영성과와 관련되어 있고 사업경영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역량을 개념화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Baum, Locke 및 Smith(200l)은 역량을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능력과 같은 개인특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Man 및 그의 동료들(2002)도 창업가의 역량을 직무 역할을 성공적으

dCollection @ chosun

로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창업가의 경험, 훈련, 교육, 가족배경 및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에 영향을 받는 성격특성, 기술 및 지식을 포함하는 상위수준의 특성으로 간주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요소에 기초하여 창업가의 역량을 자신의 직무에서 보다 높은 경영성과 또는 효과적인 경영성과를 산출할 수 있게 하는 지식,기술 및 능력으로 정의한다. Home 및 그의 동료들(1992)에 따르면, 벤처기업에서의 경쟁력획득과정은 핵심 행동자인 창업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벤처기업 경쟁력의 내·외부 원천들을 강조하고 있는 문헌에서조차 이러한 창업가적 요소들이 강조되고 있는데 벤처기업환경에서는 소유경영자들에게 의사결정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수행되는 기본적인 역할은 벤처기업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들 중 하나라는 것이다.

역량적 접근법의 또 다른 주요 이점은 인과 관계적 측면에서 다른 개인특성보다 역량특성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보다 근접한 영향요인이라는 것이다(Boyatzis 1982; Man, Lau & Chan, 2002). 따라서 역량적 접근법은 기업경영성과에 대해 기존 특성요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근접성의 원리에 따라 보다 직접적으로 기업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Boyatzis (1982)에 따르면 역량은 창업가에 행동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경로에서 성격특성 및 동인보다 행동에 보다 근접해있고 이는 다른 개인특성들과 경영성과 간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경영성과변수들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이 외에도 역량은 행동과 관련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내부 심리적 특성으로 간주됨으로써 다양한 이점을 가질 수 있다(Bird,1995). 창업가에 대한 초기 연구가 주로 다루었던 성격특성에 기초한 접근법보다 개인 차이와 기업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역량은 성격과 비교해 단기간에 변화가능하고 학습가능하기 때문에 창업가 또는 경영자의 개발에도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역량의 관찰가능성은 양적 접근법

dCollection @ chosun

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실증연구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정교한 통계방법을 통해 보다 복잡한 이론들을 검정할 수 있게 해준다.

많은 연구자들은 역량의 정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역량유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표 2-1>에서 제시하듯이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온 다양한 역량들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역량연구의 개척자인 Boyatiz(1982)는 12개 조직에서 평균 이상의 경영성과를 올리고 있는 2000명 이상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역량은 측정 및 분석에 대한 상이한 요구조건들을 구별하는 세 가지 수준, 즉 무의식적 동인, 의식적 자기이미지 및 행동기술에서 분석되었다. 그의 최종 모형은 효과적인 경영성과를 올리는데 필요한 주요 역량을 5가지 군집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군집은 영향력에 대한 관심, 변수들의 진단적 사용, 효율지향성, 그리고 진취성을 포함하는 목표 및 행위관리군집이다. 둘째 군집은 자신감, 구두표현의 사용, 개념화, 그리고 논리적 사고를 포함하는 리더십군집이다. 셋째 군집은 사회화된 권력의 사용, 긍정적 관심, 집단과정관리, 그리고 정확한 자기평가를 포함하는 인적자원관리군집이다. 넷째는 일방적인 권력의 사용, 자발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개발을 포함하는 부하들에 대한 지휘군집이다. 마지막으로 전문지식군집이 포함된다. 부가적으로, Boyatiz(1982)는 역량, 행동 및 목표들이 상호작용 한다는 관념을 포함하여 개인역량들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그는 다른 연구자들이 역량에 대한 상세한 리스트를 개발하는 접근법을 비판하였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직무에서 분석되어야만 하고 단순히 기능 및 과업에서 보여진 것들은 개인 과업 및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단지 이론적인 리스트나 전문가패널의 리스트는 행동적으로 구체적이지 않고 평가하기 어려운 특성들을 산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dCollection @ chosun

<표 2-1> 역량유형

연 구 자	역 량 유 형
Boyatzis(1982)	목표 및 행위 관리 리더십 인적자원관리 부하들에 대한 지휘 전문지식
Mitton(1986)	전문화된 지식 기회인식 경영 전략적 관찰능력 관리통제기술 네트워크기술
McClelland(1987)	기회 인식 통제기술 네트워크기술 계획기술
Herron 및 Robinson(1990)	전문적 기술 산업지식 사업능력 관리능력 리더십능력 네트워크기술 기회인식
Chandler 및 Jansen(1992)	인적/개념적 역량 기회인식 결과지향적 동인 기술/기능 역량 정치적 역량
Hood 및 Young (1993)	기능적 기술 리더십, 대인적 기술 및 의사소통능력 기회기술 자기관리기술
Chandler 및 Hanks (1994. 1998)	기업가적 역량 관리적 역량 기술적 역량
Baum, Locke 및 Smith(200l)	조직 기술 역량 기회기술 역량 산업기술 역량 전문적 기술 역량

dCollection @ chosun

Mitton(1986)은 항공우주 전문회사의 창업, 성장 및 판매실적에 대한 관찰에 기초하여 전문기술, 기회인식, 경영 전략적 관찰, 통제, 네트워크기술 등 을 제시하였다. McClelland(1987)는 세 나라에서의 창업가를 연구하였다. 전문가패널이 성공적인 기업들을 확인하고 인터뷰를 통해 중요한 역량에 대한 창업가의 견해를 수렴하였다. 그 결과 기회인식, 통제기술, 네트워크기술 및 계획기술이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Herron 및 Robinson (1990)은 Katz (1974)의 관리기술을 확대시켜 134명의 10년 미만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창업가적 성공에 중요한 7가지 포괄적인 기술, 즉 전문적 기술, 산업지식, 사업능력, 관리능력, 리더십, 네트워크기술 및 기회인식을 확인하였다. Chandler 및 Jansen(l992)은 설문조사를 통해 134명의 창업가를 대상으로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평가하게 하였는데 이를 통해 창업가가 취해야 할 5가지 역량, 인적/개념적 역량, 기회인식능력, 결과 지향적 동인, 기술/기능적 역량 및 정치적 역량을 확인하였다. 그 후 Chandler & jansen(l994)은 창업가의 역량부분을 크게 3가지 즉, 기업가적 역량, 관리적 역량, 기술·기능적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기업가적역량은 기회인식 능력과 벤처기업 성공을 위한 열정으로 구분하였고, 관리적 역량은 인간적 능력, 개념적 능력, 정치적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기술적·기능적 역량은 자기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 및 기법의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업가적 역량은 높은 성장을 가져오며 관리적 역량은 기업의 수익적 차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고 특히 이러한 관리적 역량은 기업에서의 교육과 관리경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성공한 벤처기업은 창업가의 기술적 기능적 교육수준이 높고 해당분야에서 기술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최용호 등 (2003)의 연구에서는 경영관리와 기술적 전문성이 기업의 행동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가의 역량특성 중 경영관리능력과 기술적 전문성은 행동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의사

dCollection @ chosun

소통 능력과 의사결정은 경영전략 및 조직구조 변수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양희순(2002)의 연구에서는 벤처기업 창업가의 관리적, 기업가적, 기술적·기능적 역량 등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Hood 및 Young (l993)은 100명의 성공적인 창업가 및 창업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창업가적 성공에 필요한 네 가지 영역, 즉 지식내용영역, 기술 및 행동, 지성 및 성격특성으로 구분하여 역량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최근 Baum, Locke 및 Smith(200l)은 307명의 창업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는데, 그들은 역량을 조직기술과 기회기술을 포함하는 일반적 역량과 산업기술과 전문기술을 포함하는 산업에 따른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주요 역량들을 벤처기업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 또는 행동들로 범주화하였다. 특히 벤처기업의 창업가가 수행해야할 역할들을 구체화하고 이들 역할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에서는 Chandler 및 그의 동료들 (1992,1994,1998)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세 가지 역량, 즉 기업가적 역량과 관리적 역량, 기술 기능적 역량을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2. 2 경영전략

2.2.1 경영전략의 개념

오늘날 대부분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상황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쟁강도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자 및 실무자들은 경쟁도구를 제공해주는 경영전략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dCollection @ chosun

특히 최근 들어 경쟁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확산됨에 따라 벤처기업도 이러한 경쟁상황에서 예외가 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벤처기업의 경영전략 및 경영전략수립은 벤처기업 경영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벤처기업들은 경영전략 및 경영전략수립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영 전략적 계획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Sexton & Van Auken,1985). 그러나 대부분 연구자들은 경영 전략적 계획과정 및 계획내용이 벤처기업에 매우 유용하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Bracker & Pearson. 1986; Robinson et al.,1986). 또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로부터 얻은 시사점들에 따르면 경영전략은 기업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공해주고 기업 노력을 집중케 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명확한 경영전략을 가진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높은 경영성과를 올리게 된다. Robinson 및 Pearce의 연구들(1983,1984)은 계획 활동들의 정도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간에 일관적인 정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Segev(1987)는 경영전략의 주요 목표가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영원리로서 경영 전략적 계획이 보다 나은 경영을 위해서 분명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Lyles 및 그의 동료들(1993)도 보다 공식적인 계획을 수행하는 벤처기업이 비공식적 계획을 수행하는 벤처기업보다 더욱 포괄적인 경영전략적 의사결정과정을 가지고 있고 보다 다양한 대안적 경영전략들을 채택한다고 주장하면서 벤처기업의 창업가는 경영 전략적 경영과정을 진작시키기 위해 공식적 계획절차들의 사용을 통한 경쟁우위를 인식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Dewhurst 및 Burns(1992)에 따르면 급변하는 외부환경에서 벤처기업은 쉽게 치명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가져다주는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경영 전략적 행동이 필요하다. 먼저 벤처기업은 사업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통하여 그 기업의 강점 및 약점을 평가하고, 둘째, 전체 환경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통해 위협 및 기회

dCollection @ chosun

를 진단하며, 셋째, 이러한 환경 내에서 사업이 생존하거나 성장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행동해나가야만 한다.

더욱이 오늘날 벤처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현안들도 일반기업의 그것과 많이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자금조달, 수요부족, 인력난 등은 대부분 벤처기업에게 중요한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벤처기업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때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대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지불하고 많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받는다. 따라서 자금 관리적 측면에서 벤처기업의 창업가는 상이한 견해를 가져야 하고 일반기업에 의해 현재 사용되는 것들과는 다른 원칙들을 적용해야만 한다. 자기자본수익률, 자산수익률, 투자수익률 및 부채율은 때때로 벤처기업에서는 신뢰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일반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 하는 데는 적합하다(Levin &, msivarT 1987). 이와 같이 벤처기업의 창업가는 재무적 자원의 제약, 숙련된 종업원의 부족, 쉽게 변하는 경쟁 환경에 의해 강요되는 단기적 경영관점 등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다양한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것이다.

O' Gorman (2000)에 따르면, 일반기업과 벤처기업 간 자원보유, 조직구조 등에서의 차이점들은 일반기업에 적합한 경영 전략적 처방들이 벤처기업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벤처기업은 기회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기업들에 대한 자원의 몰입에서 일반기업과 차이가 난다(Stevenson & Gumpert, 1985). 일반기업은 전형적으로 행정적 관리스타일에 의해 특징 지워지고 사업의 개발 및 성장은 그 사업이 통제하는 자원에 의해 운용된다. 일반기업은 중장기적으로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고려하고 경영 전략적으로 행동을 취할 때 기회를 분석하고 한번에 집중적으로 자원적 몰입을 한다. 대조적으로 벤처기업은 전형적으로 자원 및 관리기술의 부족에 의해 그리고 창업가의 창업가적 형태에 의해 특정 지워진다. 벤처기업은 기회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지만 새로운 기회에 많은 자원들을 한꺼번에 몰입할 수 없다. 따라서 벤처기업 관리자는 기회가 출현할 때 여러 상이한 단계에서 적은 양의 자원들을 투입하는 경

Collection @ chosun

향이 있다. 이들 차이점들은 성공과 관련된 경영전략들에 관해 그리고 경영전략수립과정에 관해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을 비교하는 것은 종종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업을 위한 경영 전략적 처방을 개발하는 맥락에서 소규모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Chen & Hambrick, 1995). 소규모라는 것은 판매액 또는 종업원 수에 관한 조직의 실제 규모를 말한다. 또 다른 의미로서는 전체 시장 및 경쟁자들에 비교한 사업규모를 말할 수도 있다. 소규모라는 것이 항상 경쟁적 열위를 나타내는 것만은 아니다. 소규모 조직은 고객요구 및 시장변화에 반응하는데 사업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소규모라는 것은 특정 사업이 생산시스템 및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다 유연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Fiegenbaum & Karnini,1991). 소규모 조직은 자신의 사업이 시장에서의 변화에 보다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할 수도 있다. 또한 벤처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위험회피경향이 적고 경쟁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할 수도 있다(Chen & Hambrick, 1995).

이러한 벤처기업과 일반기업 간의 다양한 차이점들은 일반기업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기준을 통해 벤처기업을 비교할 수 없고, 따라서 일반기업 중심의 기존 경영전략 연구결과가 벤처기업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Robinson 및 Pearce(1983)는 비록 벤처기업의 경영전략적 계획이 비공식적이고 비구조화 되어 있으며 비정규적이고 비 포괄적이며 반응적일지라도 단기적이고 비공식적 접근법이 벤처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독특한 문제 및 상황들을 감안하다면 오히려 더 적절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Segev (1987)도 벤처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최적화되지 못한 경영전략을 채택하게 되면 보다 낮은 경영성과로 귀착된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은 대부분 기업들의 성공이 그들이 추구하는 경영전략들에 기인한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경영전략의 정의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상이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장세진, ;Barney, 2002). 이렇게 경영전

dCollection @ chosun

략의 정의가 다양한 것은 경영전략연구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에서의 전략적 현상이 매우 복잡하면서도 다차원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전략은 몇 마디로 명료하게 정의되기 어렵고 명확하게 경영전략을 정의한다 해도 이러한 노력은 결국 경영전략의 일부분만을 강조하게 될 뿐이다(Mintzberg, 1988). 물론 연구자의 관점에 따른 상이한 경영전략의 정의가 조직 내 경영 전략적 현상들의 상이한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을지라도 이 정의들은 상호 모순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yen, 1997). 따라서 경영전략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경영전략의 상이한 관점들을 간략하게나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Buzzell 및 Gale (1987)은 경영전략과 경영성과간의 일반적인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경영전략을 재무적 경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창업가에 의해 채택되는 정책 및 주요 의사결정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들 정책 및 의사결정들은 보통 중요한 자원몰입과 관련되어 있고 쉽게 전환할 수 없는 것들이다. 자원배분은 선택된 경영전략과 관련된 의사결정들의 결과로 Buzzell 및 Gale(1987)의 경영전략 정의에서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들은 사업경영전략과 기업경영전략으로 나눠지는데 사업경영전략은 주어진 사업에서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 기업경영전략은 사업들간 자원분배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 경영 전략사업 단위들을 강화하는 경영전략 사업단위 포트폴리오의 설계와 관련되어 있다.

Chandler(1962)는 경영전략을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 및 목적의 결정이며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의 배분과 활동방향의 결정이라고 정의하였다.

Andrews (1971)는 경영전략이란 기업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계획들을 수립하여 기업이 관여하고자 하는 제품-시장영역과 그렇게 결정된 제품-시장영역에서의 경쟁방식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유형이 라고 정의하였다. Kenichi Ohmae(1982)는 경영전략이란 어

dCollection @ chosun

떻게 하면 경쟁자에 비해서 경쟁우위를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경쟁자에 비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쟁우위를 지켜 나가는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Porter(1996)는 경영전략을 일련의 활동들을 활용하여 독특하고 가치 있는 지위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경영전략은 이들 활동들의 집합체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는 경영전략이 기업 활동들 간의 연결 관계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단지 하나의 이상적인 지위가 존재한다면 경영전략은 필요 없을 것이다. 경영전략의 본질은 독특한 가치들을 제공할 수 있으면서도 경쟁자들의 활동들과는 다른 활동들을 선택하는데 있다. 더욱이 독특한 지위 자체만으로는 지속적인 우위를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데 이는 성공적인 지위가 현행 경쟁자들로 하여금 이들 활동들을 모방하도록 촉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영전략의 성공은 단지 몇몇이 아니라 많은 이슈들에 의존하고 이들 이슈들을 통합한다. 만약 그 활동들이 일관적이지 않다면 어떤 명확한 경영전략도 존재하지 않고 그 지위를 공고히 하는 기회도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Mintzberg(1988)는 경영전략이 계획, 책략, 패턴, 지위, 또는 관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고 제안하면서 경영전략을 과정적으로 정의하였다. 경영전략은 조직의 창업가들이 미래에 행하려고 계획하는 것을 고안한 것이기 때문에 경영전략수립은 조직의 장기적인 목표 및 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석과정으로 다루어지고 경영전략이행이 이를 뒤따른다. 경영전략은 또한 경쟁자의 의표를 찌르는 책략 또는 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는 특정 기업이 경쟁자 또는 잠재적인 경쟁자에게 의도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진입을 저지하는 경영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Mintzberg (1988)는 경영전략을 일련의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패턴으로도 보았는데 일련의 행동들은 분리될 수 있으며 경영전략은 그러한 행동들의 흐름에서 패턴 또는 일관성을 통해 확인된다.

특히 어떤 경영전략은 기업이 의도한 행동 및 의사결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일관된 패턴을 형성함으로써 경영전략이 되기도 한다. 경영전략은 또는 경쟁자 및 협력관계와 관련된 지위와 같이 지위로서 간주될 수도

Collection @ chosun

있는데 이는 경영전략을 기업 스스로를 외부상황과 관련짓는 방식으로 인식함으로써 조직이 다른 조직 및 환경의 요구에 대해 적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관점으로서 경영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창업가가 자신과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경영전략을 인식함으로써 경영전략수립 자집단을 강조한다. 그들의 관점, 선호 및 편애들은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

Seth 및 Thomas (1994)는 경영전략이 조직의 주요 목표 정책 및 일련의 행동들 을 응집력 있는 전체로 통합시키는 패턴 또는 계획으로 정의하였다. 잘 수립된 경영전략은 상대적인 내부 경영전략 및 단점들, 환경에서 예측되는 변화들, 경쟁자에 의해 취해지는 행동에 기초하여 독특하고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조직자원을 정렬시키고 분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정의는 조직이 장기적인 생존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전문화된 독특한 자원들을 가진 목적 지향적이고 창업가적인 실체임을 시사한다.

장세진(2002)은 경영전략을 희소한 창업자원을 배분하여 기업에게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주요한 의사결정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에는 몇 가지 주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대부분의 조직이 희소한 창업자원을 배분해야 하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러한 희소한 창업자원으로 인하여 경영전략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경영전략은 경쟁상황을 가정하는데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영전략의 의미가 별 유용성을 가지지 못하지만 치열한 경쟁상황에서는 경쟁우위를 가져다주는 경영전략이 어떤 조직에게나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된다. 이러한 정의는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기업이 경쟁우위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 또한 경영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희소한 자원으로 인하여 주어진 자원에 의해 선택 및 포기의 경영 전략적 의사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Drucker(l994)는 경영전략을 기업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다 높은 경영성과를 획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업이론으로 정의하였고 Barney (2002)는 이 정의

dCollection @ chosun

에 기초하여 성공적으로 경쟁하는 방법에 대한 기업이론으로 경영전략을 정의하여 자원기반관점을 전개하고 있다.

2.2.2 경영전략의 유형

경영전략의 유형을 Beard & Dess(1981)는 3개의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회사차원의 기업경영전략(corporate-level strategy), 각 사업본부 차원의 사업별 경영전략(business-level strategy), 그리고 업무기능별 차원의 기능별 경영전략(functional-level strategy)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경영전략은 계층을 이루며 조직계층과 대응하고 있는데, 조직의 하위 계층에서는 부서단위의 기능별 경영전략이, 사업본부 단위에서는 사업경영전략이, 그리고 상위 경영계층에서는 기업경영전략이 행해진다.

Miles 등(1978)은 조직이 직면하는 세 가지 광범위한 문제유형으로 기업가적 문제, 기술적 문제, 관리적 문제를 제시하였는데, 창업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업적 수준의 경영전략을 결정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고, 기술적 문제와 관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업적 수준의 경영전략을 결정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Porter(1980)는 산업구조가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행동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산업구조 분석을 기초로 하여 동일한 산업내에서 경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이 택할 수 있는 경영전략유형을 차별화(differentiation), 원가우위(cost leadership), 집중화(focus)의 3가지 본원적 경쟁경영전략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Porter(1985)는 경쟁적 무기와 경영전략범위라는 경영전략의 구성요소에 따라 차별화경영전략, 원가우위경영전략, 집중화경영전략으로 유형화하였다. Abell(1980)은 차별 세분화와 경영전략범위라는 경영전략의 구성요소에 따라 차별화경영전략, 비차별화 경영전략, 집중화 경영전략으로 유형화 하였다. 첫째, 비용우위 경영전략은 특정기업이 자신이 경

Collection @ chosun

쟁하는 산업에서 저비용이라는 경쟁 이점을 가지고 타 기업들과 경쟁하는 경영전략이다. 둘째, 차별화경영전략은 기업이 자기의 제품 특성들이 동일 산업 내 타 기업들의 제품의 그것보다 독특하다는 것을 고객들이 느끼도록 하는 경영전략으로 고객이 중요시하는 속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영전략을 전개할 수 있다. 셋째, 집중경영전략은 산업 내에서 경쟁범위를 좁게 선택하는 경영전략으로 산업 내의 특정시장에서 다른 경쟁기업보다 더 능률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경영전략을 구사한다. 집중경영전략에는 집중한 목표 시장에서 비용우위경영전략 또는 차별화경영전략을 취할 수 있다.

Miller(1986)는 과거의 연구들을 검토하여 그 중에서 많은 연구들이 일관되게 강조한 네 가지 경영 전략적 차원을 식별하였다. Miller가 제시한 경영 전략적 차원이란 복잡한 차별화, 마케팅 차별화, 폭 그리고 보수적인 비용 관리이다. 복잡한 차별화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하는 정도이며, 마케팅 차별화는 고객의 특정한 욕구를 독특하게 충족시킴으로써 고객충성도를 창조하는 것이다. 폭은 제공하는 시장의 범위를 의미하고, 보수적인 비용관리는 비용 상의 선도적 위치를 의미한다.

Miles & Snow(1978)는 조직의 생존은 창업가가 조직의 주요 변수간에 달성하는 적합성 정도의 질 즉 환경적응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런 각 변수들은 각자 역동성을 지니고 있어서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기 때문에 환경과 조직 변수 간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러한 환경변화는 관리자 집단의 노력과 역량을 유발하게 된다(Elenkov, 1997)고 한다. 조직의 구조가 기업 경영전략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과 조직의 구조가 경영전략에 제한을 가한다는 입장을 동시에 감안한 경영전략 및 구조의 관련성을 고려한 후에,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적응경영전략을 방어형, 공격형, 분석형, 그리고 반응형으로 분류하였다 (오현종, 2002). 특히 세 가지 경영전략들 즉, 방어형, 공격형, 분석형이 조직의 안정적인 형태라고 하면서 창업가들이 이 세 가지 경영전략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상당기간 동안 특정 산업 내에서 효과

Collection @ chosun

적인 경쟁기업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비효과적인 경영성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장충석,2002).

Miles와 Snow의 이러한 네 가지 경영전략유형은 광범위하게 검증되고 지지되어 왔으며(Zahra Pearce,1990), 이들의 경영전략유형 분류는 상호 연계된 세 가지 경영 전략적 문제 및 해결로 구성된 〈그림 2-4>과 같은 하나의 적응 싸이클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조직의 제품시장 영역을 식별하고 성공적인 자세, 감시 및 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4가지 차원들을 포함하는 창업가적 문제의 해결이며 둘째, 기술적 및 프로세스 이슈의 목표, 크기, 완충에 관한 기술적 및 프로세스 선택의 식별과 실행에 초점을 맞추는 3가지 차원의 엔지니어링 문제의 해결이고 셋째, 조직구조, 통제 및 기획의 선택, 정당화 및 개발을 식별하는 4가지 차원의 관리적 문제의 해결이다.

<표 2-2> 경영전략유형의 분류

연 구 자	전 략 유 형
Mintzberg(1973)	창업가형 적응형 계획형
Utterback & Abernathy(1975)	경영성과 최대형 매출 최대형,원가 최소형
Miles & Snow(1978)	방어형, 탐색형 분성형, 반응형
Hofer & Schedel(1978)	시장점유율 증가, 성장, 이익, 시장집중 및 자산감소, 흑자전환 부채청산
Vesper(1980)	증식 독점, 특수화, 부채청산
Porter(1980)	원가우위전략, 차별화전략, 집중화전략
Miles(1982)	방어형, 공격형

dCollection @ chosun

Hambrick(1983)	탐색형, 방어형
Miller(1986)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집중화경영전략, 원가우위경영전략, 자산절약)경영전략
Smith & Grimm(1987)	집중화경영전략, 비집중화경영전략
Power(1990)	선두형-방어적 자세, 추종형-공격적 자세, 게릴라형-틈새시장 공략자세
Shortell(2000)	포지션경영전략, 촉진경영전략, 속도경영전략, 경영성과경영전략

출처 : 연구자 정리

경영전략과 경영성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이처럼 경영전략변수와 상황변수간의 적합성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 상황변수가 경영전략과 경영성과 사이의 관계를 조절 또는 매개한다는 관점, 기타 독립변수나 경영성과에 대한 고려 없이 별개의 적합성으로 보는 관점, 경영전략이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 등 다양한 관점 하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을 비추어 볼 때, 경영전략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2.3 벤처기업 경영전략에 관한 선행연구

벤처기업의 경영전략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cDougall et al & Bante(1996)는 시장진입경영전략을 벤처기업 경영성과의 주요요인으로 간주하는 연구를 하였으며 이것은 기존 기업과의 경쟁을 피하여 세분시장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시장을 상대로 공격적으로 경쟁할 것인가 하는 경영전략의 범위에 관해 연구하였다. 벤처기업은 대부분 벤처기업에 속하는 특성상 일반적으로 대기업과의 경쟁에 있어서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

dCollection @ chosun

치에 있다는 관점이 지배적이며, 이장우(1997)는 대기업이 구조적으로 유리한 경쟁위치와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 경험곡선의 효과, 시장 지배력, 자원 동원력 등에서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비해 유리하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에 기초한 경쟁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기업들이 간과하는 세분시장에서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디자인과 고품질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Cohn & Lindberg, 1972; Broom & Logenecker, 1979.) 전문화된 제품, 지역적으로 특성화된 사업운영, 고객 지향적이고 고객서비스 수준이 높은 세분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는 대기업에게는 너무 작아서 관심이 결여되어 있고, 벤처기업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으므로 틈새경영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Cohn & Lindberg, 1972)하였다. (Biggadike, 1979;Miller &Camp, 1985; Cooper et al, 1986; MacMillan & Day, 1987; Tsai et al., 1991).

Biggadike(1979)는 성공적인 벤처기업들은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투자하여 시장점유율과 재무경영성과가 월등하였고, 조심스러운 시장경영전략과 좁은 세분시장, 좁은 제품라인, 높은 가격은 시장점유율 확보에 불리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생 벤처기업은 평균적으로 8년이 경과해야 수입액과 지출액이 맞먹는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Porter(1980)는 경쟁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본원적 경영전략으로 차별화경영전략, 원가우위경영전략, 집중화경영전략을 제시하였다.

Sandberg & Hofer(1987)는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투자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산업구조, 그리고 창업가의 역할에 대한 연구에서 Abell(1980)의 3가지 본원적 경영전략인 차별화경영전략, 비 차별화경영전략, 집중화경영전략을 근거로 하여 하위 경쟁경영전략으로 ① 생산비용 감소(새로운 생산과정, 규모의 경제, 생산 및 기술개선) ② 저원가 구매, ③ 제품 우월성 제공, ④ 세분시장 또는 틈새시장 발견, ⑤ 마케팅 혁신, ⑥ 모방진입(지리적 이동, 공급부족, 시장양도) 경영전략을 제시하였다.

Collection @ chosun

Miller & Camp(1985)는 84개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연구결과 성공적인 벤처기업들은 성장, 시장세분화의 다양성, 시장진입명령 등에서 공격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MacMillan & Day(1987)는 시장에서의 공격적인 진입의 역동성에 관한 연구에서 PIMS의 기업들 중에서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이 그렇지 못한 기업들에 비해 시장점유율 확보가 빠르고 ROI 경영성과도 높게 나타난 것을 발견하였다.

McDougall & Robinson(1990)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전문품을 제조하는 정도, 제품의 구색정도, 시장의 범위를 변수로 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 세분화된 시장에서는 틈새경영전략과 공격적인 경영전략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Miller 와 Friesen(1992)는 벤처기업에 관한 연구에서 혁신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보수적인 기업과 기업가적인 기업으로 구분하여 보수적인 기업은 혁신에 대한 위험부담을 지지 않으려 하고 시장 환경의 변화와 혁신을 꾀하는 기업으로 변화혁신이 곧 전략인 기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효중(2007)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을 연구한 결과 차별화전략이 창업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벤처기업의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판단되는 Miller(1986)가 벤처기업의 전략연구에서 제시한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집중화경영전략, 원가우위경영전략 중 차별화 전략을 중심으로 즉,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과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을 매개변수로 사용하였다. 차별화전략의 핵심은 창의력, 혁신성, 연구개발, 제품엔지니어링 등이며 이는 벤처기업의 특성과도 잘 부합되며(Govindarajan & Fisher, 1990)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은 혁신적이며 시장에 대하여 신속하게 반응하며 정형화된 업무 메뉴얼 보다는 창의력과 지적자산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원가를 낮추어 경쟁기업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원가우위경영전략의 경우 벤처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따른 어려움과 설

Collection @ chosun

비의 특성상 원가우위전략을 추구하는데 무리가 따르는 경우가 많으며(Miller와 Friesen, 1992) 이러한 가격메커니즘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국내 벤처기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기존연구에서 개념적 타당성이 입증된 Miller(1986)의 경쟁경영전략 중 벤처기업의 특성과 가장 밀접한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벤처기업 실증에 맞게 측정하였다.

2.2.4 창업가 특성과 경영전략

1)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과 경영전략

창업가의 가치나 인지능력(cognitive ability) 혹은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등과 같은 심리적인 특성은 앞에서 제시된 바 와 같이 창업가가 전략적 상황에 반응하여 일정한 필터링과 해석 과정을 통해 특정한 전략적 선택을 하는데 기초가 된다. 따라서 최고 경영자의 심리적인 특성으로부터 조직의 현상과 경영전략선택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인 특성은 창업가와 경영전략의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 창업가의 심리적 요소로는 가치, 인지모델, 성격 등의 개성요소를 주로 채택하였는데 이장우(1997)는 비전과 목표는 기업의 장기적 경영전략 방향을 결정하고 모든 경영전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분명한 기업의 목적은 기업 구성원들의 흥미와 몰입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Miller, Kets de Vries & Toulouse (1982)는 경영자를 성격 특성에 의해 내부경영자(internal manager)와 외부경영자(external manager)로 구분하였다. 내부경영자란 자신감 있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영자를 그리고 외부경영자란 소극적이고 위험 회피적인 경영자를 의미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창업가의 성격과 경영전략 선택 간에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위험을 선호하고 통제의 위치가 내재적인 창업가는 제품시장의 혁신경영전략을 선호한

Collection @ chosun

다고 하였다. 또한 Smith & Miner(1984)는 성장을 지향하는 창업가일수록 위험감수성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Hambrick(1982)의 연구에 의하면 공격형 경영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의 창업가들은 방어형 경영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의 창업가들 보다 기업가적 환경탐색 면에서 상당히 큰 관심을 보이고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하였다.

2) 창업가의 역량특성과 경영전략

기업이 추구하는 경쟁경영전략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것에 적합한 창업가 역량 및 기업 활동들이 창출되어야 한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업경영전략을 통한 경쟁우위는 그 사업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기능부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 의해 결정된다(Grant,1998). 비록 뛰어난 개인역량을 갖추고 있다할 지라도 특정 시장에서 기업이 추구되는 경쟁경영전략과 잘 연계되지 못하는 개인역량이라면 그 경쟁경영전략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개인역량과 경쟁 경영전략간의 비 일치성으로 인하여 벤처기업이 추구하는 경영전략이 높은 경영성과를 창출 하는데는 많은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Gupta & Lonial, 1998; Szilagyi & Schweiger,1984).

Herron 및 Robinson(1990)은 기업가의 역량 및 경영전략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들 역량과 경영 전략간의 인과관계가 기업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추구하는 경영전략에 따라 요구되는 창업가의 역할이 다르고 그 역할에서 요구되는 역량도 달라지기 때문에 벤처기업에서 추구하는 경영전략이 더욱 높은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느냐는 그 기업의 창업가가 지니고 있는 특정 역량이 얼마나 경쟁경영전략과 잘 연계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영전략분야에서도 여러 연구자들이 창업가 역량을 경영전략 및 다른 경영전략적 양상들과 실증적으로 연계시켜 왔다(Grimm & Smith, 1991; Michel & Hambrick. 1992). 특히 경영전략분야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은 경

dCollection @ chosun

영전략수립과정과 선택된 경영전략의 이행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는데 이러한 관심은 사업 및 기업 경영전략을 인적자원요소들과 연계시키는 데까지 확산되었다. 이러한 연계관계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유능한 관리자들이 선택된 경영전략과는 관계없이 조직을 성공적으로 운영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을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대신 특정 경영전략의 요구사항들과 일관된 기술, 행동 및 관리스타일을 가진 관리자에 강조점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경영전략이행연구에 따르면 기업경영성과에 대한 기술들의 효과가 그것들이 발휘되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창업가의 기술역량들은 경영전략과 함께 기업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Leontiades, 1982; Szilagyi & Schweiger, 1984)라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벤처기업에서 추구되는 경영전략과 창업가 역량특성 간의 관계에서 그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창업가 개인역량과 특정 시장에 대한 경쟁경영전략이 잘 조화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비 일치성으로 인하여 벤처기업 창업가가 가지고 있는 개인 역량은 경쟁경영전략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할 것이고 그에 따라 경쟁경영전략이 경영성과로 연결 되는 데는 많은 한계가 따를 것이다. 이는 비록 올바른 경영전략이 존재하더라도 창업가의 기술 및 역량이 기업경영성과에 대한 경영전략의 효과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Bird, 1989).

또한 Baum, Locke 및 Smith(200l)은 307명의 창업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는데, 그들은 역량을 조직기술과 기회기술을 포함하는 일반적 역량과 산업기술과 전문기술을 포함하는 산업에 따른 역량으로 구분하였으며 경영전략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이 중 산업역량과 경영전략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창업가의 경력특성과 경영전략을 관계를 살펴보면 근무배경, 교육수준 및 근무연수 등과 같은 관찰 가능한 특성요소는 창업가의 행위와 경영 전략적 선택 및 조직경영성과를 잘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특성보다는 비교적 변수를 측정하기 용이하여 최근에는 창업가의 관찰 가능한 특성을 활용한 연구가 오히려 심리적 특성을 활용한 연구보다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심리적 특성이란 대부분 과거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dCollection @ chosun

것으로 관찰 가능한 특성이 창업가들의 심리적인 특성의 대용치(proxy)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Hambrick & Mason, 1984; Pfeffer, 1983; Wiersema & Bantel, 1992). 관찰이 가능한 요소로는 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사용 되었는데 창업가의 나이, 근무배경과 학력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Child(1974), Hart & Mellonsflsz의 연구결과는 젊은 창업가들이 나이가 많은 창업가들보다 기업경영전략의 수립에 있어서 성장을 추구 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판매를 지향한다고 주장하였으며 Alutto & Hrebiniak(1975)은 창업가의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을 회피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을 발견하였다. Hambrick & Mason(1984)은 경영자의 근무배경은 그 사람의 태도, 지식 그리고 관점을 형성하는데 기여함으로 관련 산업 근무경력은 사업상의 이슈나 문제에 관한 경영자의 관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특정분야에 근무배경을 가진 창업가는 비즈니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주로 자신의 근무배경에 근거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 하며(Dearborn & Simon, 1958), 다양한 근무경험을 가진 경영자들은 기업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들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대한 지식과 관점이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Ouchi & Jaeger, 1978; Raskas & Hambrick, 1992).

Wiersma & Bantel(1992)의 연구에 의하면 창업가의 재직기간은 다각화경영전략과 부(negative)의 관계가 있으며 창업가의 오랜 재직기간은 현재의 경영전략을 고수하려는 성향은 물론 Miles & Snow(1978)의 경영전략유형중의 하나인 방어형 경영전략(defender strategy)을 구사하며 재직기간이 짧은 경영자는 공격형 경영전략(prospector strategy)을 추구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한 조직에서의 재직기간은 이미 확립된 정책이나 관행에 대해서 기존의 것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Gelekanycz & Fredrickson, 1993; Katz, 1982).

Cooper, Gimeno-Gascon & Woo(1994)는 창업가의 교육정도는 기업경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을 나타내기 보다는 기업에 투자된 초기 인적자본의 성

dCollection @ chosun

격이 크다고 한다. 따라서 창업가의 교육정도는 인생경험과 네트워크의 형성 그리고 성공적인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변수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노윤(1998)은 창업가의 학력 수준과 기술혁신과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나 유의하지 못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McMullan & Long(1987)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가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기업경영전략을 수립. 실행하는 측면에서는 우수하지만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은 떨어진다고 밝혔다. 백윤정(1998)은 최고경영층(TMT)의 지식 특성 대외연결 능력이 조직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교육 수준과 매출액 증가율은 서로 정의 관계에 있었다. 또한 창업가의 교육수준은 경영전략적인 포트폴리오 변경 (Wiersma & Bantel, 1992)과 정의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기존의 창업가특성 전력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관찰 가능 특성 요소 측면에서는 창업가의 나이와 재직기간이 많을수록 방어적인 경향을 보이고, 교육수준이 높으면 경영전략의 수립. 실행 및 매출액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으며, 다양한 기능분야의 경험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심리적 특성에서는 창업가의 가치는 장기 경영전략 방향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원 몰입과 관계가 있고, 공격적인 성향의 창업가는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창업가의 인지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경영전략유형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역량과 경영전략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창업가특성과 경영전략에 관한 선행연구

구 분		연 구 자	주 요 내 용
경력특	나 이	Child(1974), Hart & Mellons(1970)	젊은 창업가들이 성장경영전략과 변화적 대응판매 선호
		Alutto & Hrebiniak (1975)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회피 및 현 상태유지 선호

dCollection @ chosun

성	근무배경	Hambrick & Mason (1984)	관련산업 근무경력은 사업상의 이유나 문제에 관한 관점에 영향을 미침
		Ouchi & Jaeger, 1978; Raskas & Hambrick, 1992	다양한 근무경험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줌.
		Dearborn & Simon, 1958	특정분야에 주요 근무배경을 가진 경영자는 자신의 배경에 의해 비즈니스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
	재직기간	Wiersma & Bantel (1992)	다각화경영전략과 부(-)의 관계
		Gelekanycz & Fredrickson 1993; Katz, 1982	오랜 재직기간은 방어형 경영전략, 짧은 재직 기간은 공격형 추구
	교육수준	Cooper, Gimeno-Gascon & Woo(1994)	교육정도는 기업에 투자된 초기인적자본의 성격이 큼.
		박노윤(1998)	학력 수준과 기술혁신과는 유의하지 못함
		McMullan & Long (1987)	교육수준이 높으면 경영전략의 수립. 실행은 우수하나, 돌발상황 대처 능력은 저하됨.
		백윤정(1998)	교육수준과 매출액은 정(+)의 관계
		Wiersma & Bantel, 1992	교육수준은 포트폴리오 변경과 정(+)의 관계
심리특성	가치	이장우(1997)	비전과 목표는 장기 경영전략 방향과 의사결정에 영향. 분명한 기업목적은 기업 구성원의 흥미 및 몰입과 관계됨
	성격	Miller, Kets de Vries & Toulouse(1982)	내부경영자는 제품시장의 혁신경영전략 선호
		Smith & Miner(1984)	성장을 지향하는 창업가일수록 위험감수 성향을 가짐.
역량특성	인지모델	Wissema. Van der Por & Messer(1980)	경영자 유형별 선택하는 경영전략유형을 도식화
		Hambrick(1982)	공격형경영전략 추구기업의 창업가들은 기업가적 역량과 유의성을 보임
	일반역량, 산업역량	Baum, Locke 및 Smith(2001)	산업역량과 경영전략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힘

출처 : 연구자 정리

Collection @ chosun

2. 3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2.3.1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접근방법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관련된 접근방법을 분석하면 기업의 고유 특성요인과 기업경영성과와의 관계를 단일차원의 함수관계로 파악하는 전통적인 접근방법과 복수의 성공요인에 관한 차원이나 관계구조로 파악하는 현대적인 접근방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관련하여 두 가지 접근방법과 경영성과 측정에 관하여 살펴본다.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요인에 관한 첫 번째 접근방법은 주로 벤처기업의 고유 특성요인과 벤처기업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단일차원의 함수관계로 평가하는 연구들이다.[2] 초창기의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전개되어왔다[3]

첫째, 초기의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연구에서 주로 나타난 형태로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는 창업가 정신과 함수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창업가의 기질과 특성, 경험 등을 벤처기업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차원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벤처경영성과(venture performance)를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과의 함수관계로 보고 Venture Performance (VP) = f(E) 라는 함수식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산업조직론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진 연구로서 산업의 규모나 자본, 제품이질성 같은 구조적 특성들이 산업진입에 있어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예측하였다.

그러한 진입장벽들이 이미 산업 내에 있는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

---

2) 안연식(2001),"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요인에 관한 연구" ,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5.
3) 한상설(1997),"벤처경영전략, 산업구조 및 창업가 특성이 벤처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32-33

dCollection @ chosun

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들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산업구조와 함수 관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셋째, 경영전략 경영분야에서 주로 수행된 연구로서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는 경영전략과 함수관계가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이와 같이 초창기의 연구는 창업가의 특성, 산업환경, 경영전략 등 단일차원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요인에 관한 두 번째 접근방법은 복수의 성공요인에 관한 차원이나 관계구조로 파악하는 수준의 연구들이다. 여기서 주로 다루어지는 핵심 성공요인은 기업이 속한 산업 내에서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로서 정의된다.

이러한 관점의 예는 Covin & Slevin(1991)의 연구경향과 같은 분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창업가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창업가 정신모형보다 기업행위 모형을 채택 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점을 주장하고 있다. 즉, 개인차원 행위뿐만 아니라 조직기능 차원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업가 부문의 개인차원 행위는 조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경영전략, 조직구조, 그리고 시스템의 창조를 통해 통제되어 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벤처기업의 성공요인 연구방향이 창업가 개인특성 중심의 속성 관점 차원에서 기업행위관점차원으로 변화되면서 나타난 연구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일차원 함수관계로 파악하는 전통적 시각의 연구들은 벤처경영성과를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과의 함수관계로서 Venture Performance (VP) = f(E)로 나타내었으나, 경영성과에 대한 설명의 한계 때문에 이처럼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설명하려는 현대적 시각의 접근방법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Sandberg & Hofer(1987)는 벤처기업의 성공이 창업가의 특성, 산업구조와 경영전략의 상호작용에 있다는 확장된 모델, 즉, New Venture Performance

Collection @ chosun

(NVP) = f(E, IS,S) 라는 수학적 함수관계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독립변수로 창업가, 산업구조(IS : industry structure), 경영전략(S : Strategy)의 3가지를 선정하였다. 창업가의 요소에는 기업경영의 경험, 벤처창업경험, 관련된 산업에서 관리자로서의 경험, 기업의 성공 또는 실패경험, 교육수준 및 나이를 변수로 선정하였고, 산업 구조 요소에는 산업유형, 산업 수명주기, 산업구조, 산업 불균형의 존재여부, 진입장벽을 변수로 선정하였으며, 경영전략 요소에는 집중경영전략, 차별화경영전략, 비 차별화 경영전략의 3가지 경영전략유형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벤처기업 경영성과로는 자본에 대한 수익성을 경영성과척도로 사용하였다. 이들은 각 산업에서 성공한 17개 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벤처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산업구조와 경영전략이 각각, 그리고 서로 결합하여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창업가, 경영전략, 산업구조의 상호작용효과가 각각의 독립된 변수보다 기업의 경영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Roure &Keely(1990)는 36개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가, 기업경영전략, 환경의 3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들은 창업가 요소로는 과거의 경영 경험, 고성장경험, 팀의 완벽성, 과거의 팀으로써 일한 경험 등을 변수로 삼았고, 기업경영전략 요소로는 제품우위성, 제품개발기간을 변수로 삼았으며, 환경요소로는 창업자의 자기자본 비율, 시장에서 경쟁자의 영향력, 시장 점유율, 구매자의 집중정도 등을 변수로 삼았다. 이들의 연구결과에서는 창업가, 기업경영전략, 그리고 환경의 3가지 요소들이 벤처기업의 성공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cDougall 등(1992)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창업형태(O:origin). 산업구조(IS:industry structure), 벤처경영전략(S:strategy), 그리고 산업구조와 벤처경영전략의 상호작용을 보고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NVP = f(O, IS, S, IS *S)의 수학적 함수관계로 나타내었다.

Zarhra(1996)는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환경, 벤처경

Collection @ chosun

영전략, 조직의 3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환경의 요소로 산업구조, 시장환경, 경쟁환경 등 을 포함하는 미시적 환경과 경제 변화, 정치 변화 등 거시적 환경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벤처경영전략 요소로는 경영전략의 범위, 경쟁무기, 시장 세분화, 차별화 경영전략을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조직요소로는 조직의 기능적 능력,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 및 배경적 특성, 조직특성, 벤처기업의 성장단계 등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Chrisman 등(1998)은 1962년부터 1992년까지 이루어지 벤처기업 창업 및 경영성과에 관련된 62편의 논문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신생벤처기업 경영성과 결정요인의 확장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Sandberg & Hofer(1987)의 벤처기업 경영성과모형이 창업가, 산업구조, 경영전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원, 조직구조·과정·시스템(OS :organizational structure, processes, and systems)을 추가로 포함시켜서 New Venture Performance(NVP) = f(E, IS, BS, R, OS)와 같은 수학적 함수식으로 신생벤처기업의 확장모형을 제시하였다.

2.3.2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측정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연구에서 사용되는 지표는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객관적 지표는 다시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Tsailan(1991) 은 경영성과측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두 가지를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다수의 경영성과관련 연구에서 객관적인 재무적 지표 이외에 인지된 직무경영성과 만족도, 조직유효성 등의 주관적 지표가 추가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Venkataraman과 Ramanujam(1986)은 여러 요인들을 다차원구조로 파악하여, 재무적 지표로서 재무경영성과(ROI, ROA, ROS, ROE), 비재무적 지표로서 사업경영성과(시장점유율, 성장률, 다각화 및 제품혁신), 그리고 주관적 지표로서 조직효과성(만족도, 근로생활의 질, 사회적 책임)의 세 가지 수준에서

dCollection @ chosun

경영성과를 측정하였다. Stuart와 Abetti(1987) 는 벤처기업의 성공을 주관적 성공과 객관적 성공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성공단계는 2개(Bimodal) 또는 3개 이상(Multimodal)과 연속형(Continuous)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무적 성공에 대비하여, 종업원 수의 증가 등, 사회적 기여와 기업의 학습과정 등의 비재무적 성공을 표현할 수 있고, 성공의 계획대비 실적을 의미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벤처기업의 성공을 2가지로 측정한바 매출액, 고용성장률, 수익성, 자기자본수익률, 종업원대비 매출액과 자산대비 매출액 등의 계량적 성공(Quantified Initial Success)과 기대목표의 달성정도, 생존확률, 외부자본 조달능력, 종업원 만족도, 사회에의 기여 등 주관적 성공(Subjective Initial Success)을 지표로 하고 리커트 척도의 의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평균치로 기업의 성공을 실증적으로 측정한 바 있다.

한편, 이들은 대부분의 소기업들은 창업 첫해에 실패하거나 퇴출되는 반면에, 벤처 캐피탈리스트에 의해 설립된 하이테크 벤처기업의 생존율은 더 높다는 Timmons(1986)의 연구결과와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일반적인 룰로서 잘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투자가들의 투자액 상환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7년이 걸린다는 것과 창업기업에 의해 상정된 기술적, 상업적, 재정적 위험의 관점은 1년에 ROI의 25%정도라고 주장하는 것(Timmons et al. 1985)을 예로 들면서, 표본기업들의 설립 년 수 중앙값(median)이 2년인 점을 고려하여" 성공" (success)이라기보다는" 초기의 성공" (initial success)개념을 적용하여 벤처기업의 초기의 성공을 계량적 성공(quantified initial success)과 주관적 성공(subjective initial success)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첫째, 계량적 성공은 매출액, 고용성장률 수익성 자기자본수익률, 종업원 대비 매출액, 자산대비 매출액 등의 조합(combination)을 지표로 하여 측정하였고, 둘째, 주관적 성공은 원래 기대목표의 달성정도, 생존확률, 외부자본 조달능력, 종업원 만족도, 사회에의 기여 등을 지료로 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한 후 그 평균치로서 기업의 초기성공을 실증적으로 측정한 바 있다.

dCollection @ chosun

Tsai 등(1991)은 경영성과측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것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객관적 지표는 절대적 기간 또는 산업이나 주요한 경쟁자들에 대한 상대적인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고, 주관적 지표는 소유주나 창업가의 벤처경영성과에 대한 만족기준에 의해 측정된 객관적 지표를 증대시키는데 도움을 주거나 또는 재무적 비율에 의해 쉽게 포착할 수 없는 차원에서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McDougall 등(1994)은 재무적 지표인 판매수익률(ROS : return on sales)과 판매성장률(sales growth)로 수익성을 측정하였다.

Buzzel 등(1975)은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이 기업에 의해 벌어들이는 투자수익률(return on investment)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시장점유율 변화에 따른 투자수익율의 영향을 3가지의 시장점유경영전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은 창업가들이 이러한 관계를 인식하면 구매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구입할 것인가와 어떤 미디어에 광고를 할 것인지, 그리고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을 변경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어진 상황 하에서 3가지의 기본적인 시장 점유 점략의 선택은 시장점유율의 중요성에 대한 주의 깊은 분석이 요구되며, 경영 전략적 선택은 단기와 장기간의 비용과 수익의 균형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Zarhra(1996)는 Biggadike(1979)가 주장한 신생벤처의 경영성과는 시간적으로 서로 다른 시점에서는 서로 다르게 측정되어져야만 한다는 주장을 인용하여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는 단일항목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며 벤처의 성장단계마다 중요한 측정지표가 다르게 측정되어져야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개념화 및 개발단계에서는" 개발과정에서의 소유주의 만족도, 신제품의 개발 진척도" 를, 상업화단계에서는" 브랜드 인지도, 주문창출" 을, 성장단계에서는" 시장점유율, 현금흐름, 수익성" 을, 그리고 성숙단계에서는" 수익성, 시장점유율, 투

dCollection @ chosun

입에 대한 산출효과, 내부 능률, 거래 확장" 등이 중요한 경영성과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Tasi 등(1991)과 Doutriaux(1992)이 주장한 재무적 지표는 종종 신생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 하는데는 불완전하다는 이론을 받아들여 그의 연구에서는 3년 동안의 주요한 신생벤처 경영성과를 다수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동시에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윤문섭(2004)은 벤처기업의 창업자 배태조직 및 경험유형에 따른 기업경영성과의 차이분석 연구에서 객관적 지표인 재무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모두 사용하였다. 그는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기존기업과의 생산성 차이로 인식하여 경쟁자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적은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과 신속한 회수를 할 수 있어야 기존 기업에 대한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투입자원의 효율성차이로 나타날 것 이므로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을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적절한 지표라고 보았다. 따라서 1인당 매출액을 경영성과 측정지료로 하였다.

고봉상(2004)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경영성과를 주관적 경영성과와 객관적 경영성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그는 주관적 경영성과지표로 벤처기업의 임원진이 평가하는 기업의 성공정도를" 우리 회사는 성공한 벤처기업이다." 라는 1개 항목을 리커트 7점 척도 측정하였다. 그리고 객관적 경영성과지표로는 최근 3년간의 평균 매출액, 평균 순이익 지표를 사용하였다.

양희순(2002)은 벤처기업의 성공용인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① 제품의 개발진척도, ② 창업가의 만족도, ③ 브랜드 인지도, ④ 제품 주문횟수, ⑤ 매출액 성장률, ⑥ 이익률, ⑦ 시장점유율, ⑧ 수익성, ⑨ 자본투입에 대한 산출효과 등 9개 항목을 리커트 5점 척도 사용하여 주관적 경영성과로 측정하였다. 최용호 등(2003)은 창업가, 경영전략 및 구조용인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재무적 경영성과와 종업원의 행동경영성과라는 두 가지 경영성과측정 지료를 사용하였다. 이들은 행동경영성과 지표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관련된 10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기업경영성과의 측정에 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인정된 통일된 측정방법이 정

Collection @ chosun

립되어 있는 바가 없다. 주관적 경영성과 지표와 객관적 경영성과지표 간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면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경영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벤처 기업의 경영성과 모형에 관한 기존연구에서 사용된 경영성과 지표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2-4>과 같다.

<표 2-4>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모형에 사용된 경영성과지표

주요연구자 (년도)	성 과	주요연구자 (년도)	성 과
Gertner (1985)		배영일 (2002)	성공적EXIT -IPO -M&A
Covin. Slevin (1991)	기업경영성과	강상미 (2002)	성장단계별 벤처경영성과
Cooper (1993)	기업경영성과	용세중 (2003)	기업경영성과
Lumpkin. Dess (1996)	경영성과 -매출경영성과 -시장 점유율 -수익성 -전반적 경영성과 -이해관련자 만족도	안연식 (2001)	기업경영성과 -고객경영성과 -재무경영성과 -내부프로세스경영성과 -학습혁신성
Chrisman, Bauerschmidt, Hofer (1998)	NVP(신사업경영성과)	이동주 (2002)	창업가의 주관적 경영성과지수 -ROI -ROE -판매성장율 -순이익 -시장점유율 -ROA
Shane, Venkatraman(2000)	창업기회 활용	윤석철 (2003)	경영성과변수 -수익성 -성장성
Bruyat, Julien (2000)	NVC(신가치창조)	이정수 (1998)	경영성과 -성장성

dCollection @ chosun

			-수익성 -주관적평가
Baum, Locke. Smith (2001)	성장 -매출 -이익 -종업원	채명수외 (2002)	기업경영성과 -매출액 -당기순이익
김인호 (2002)	-기업역량 (FirmPower)	오현목외 (2002)	기업의 경영성과 -매출액증가율 -자산증가율 -투자수익율
윤창석 (2002)	-주관적경영성과	이현정(2004)	주관적경영성과
류재복 (2006)	-수익률(최근3년)	장수덕외 (2003)	성장단계별 주관적경영성과
강숙자(2004)	-주관적경영성과 -객관적경영성과 매출경영성과(최근3년) 당기순이익(최근3년)	고봉상(2006)	주관적경영성과 매출액(최근3년) 순이익(최근3년)
조정회(2006)	-평균매출액(최근3년) -평균이익률(최근3년) -부채비율	김효중(2007)	-주관적경영성과 -매출액(최근3년) -순이익(최근3년)

출처 : 연구자 정리

초기 창업 모형에 있어서는 주로 기업경영성과, 이해관련자 만족도, 신사업 경영성과(NVP), 창업기회 활용, 벤처성공 등 벤처기업의 내부 관련자들에 의해 평가되는 주관적 경영성과 지표가 주로 사용되었다. 이후 벤처 기업이 사업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ROI, ROE, 판매 성장률, 순이익, 시장점유율, ROA 등 재무경영성과와 수익성, 시장성 등 기업경영성과와 관련된 객관적 경영성과 지표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좀더 정확한 경영성과를 측정하고자 주관적 경영성과와 객관적 경영성과로 나누어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벤처기업의 특성상 재무적 성과에 대한 공개를 매우 꺼려하였다. 객관적 경영성과(재무적 경영성과)측정문항에 대해 해당기업을 연구자가 직접방문을 해서 연구목적에 관해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기피하거나 공란 또는 일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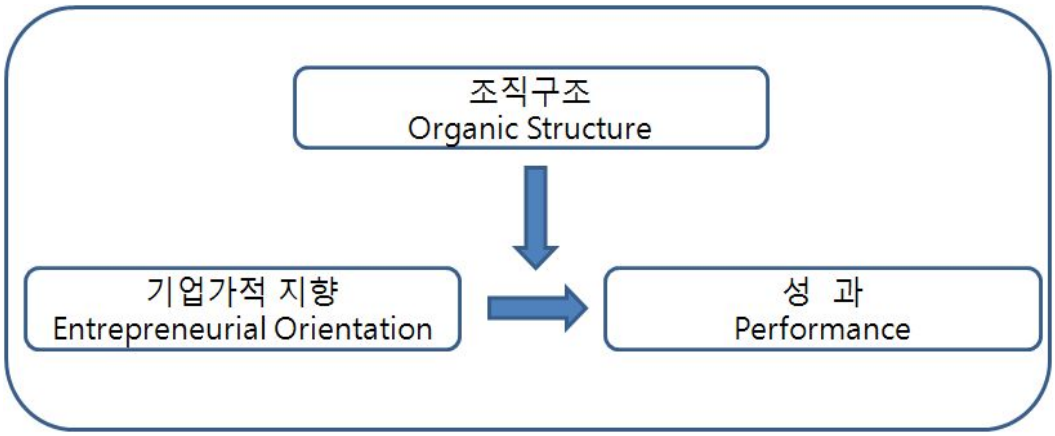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만 작성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 따라서 최초 연구모형 설정 시 경영성과 측정지표로 계획하였던 주관적 경영성과와 객관적 경영성과 중 객관적 경영성과 측정지표는 연구모형에서 제외시켰다. 주관적 경영성과는 Zahra(1996)가 사용한 주관적 경영성과 측정항목을 이용 벤처기업의 창업가가 평가하는 벤처기업의 시장점유율, 생산성, 수익성, 브랜드인지도, 신제품개발에 따른 만족정도를 측정지표로 사용하였다.

2. 4 연구모형에 관한 선행연구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경영성과 연구모형들을 개념모형과 실증분석모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Lumpkin & Dess(1996)는 창업가적 지향과 경영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4가지 유형의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모형은 조절효과모형(moderating-effects model)으로 <그림 2-1>와 같다



<그림 2-1> 조절효과모형

출처 : G. T. Lumpkin & Dess, G. G.(1996) op.cit. p.56

Collection @ chosun

이 모형은 조직구조가 창업가적 지향과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구체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창업가적 지향과 기업경영성과의 관계는 조직구조의 활용에 의해 조절될 것 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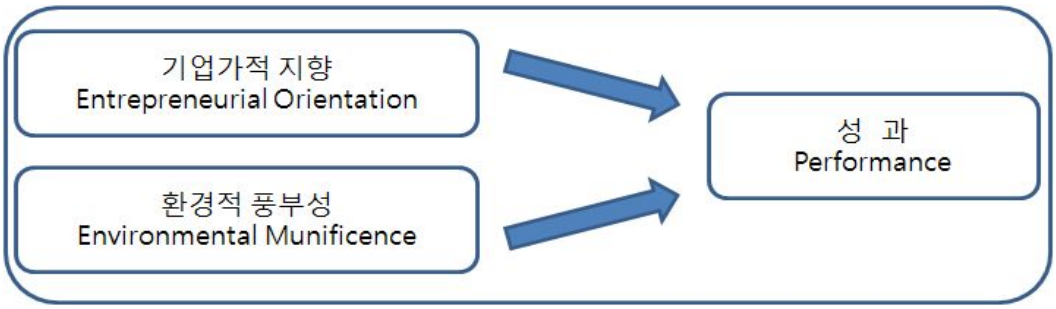
둘째 모형은 매개효과모형(mediation-effects model)으로 <그림 2-2>과 같다

<그림 2-2> 매개효과모형(mediation-effects model)

출처 : G. T. Lumpkin & Dess, G. G.(1996), ibid.

이모형은 효과적인 조직 활동과 과정의 통합이 창업가적 지향과 기업경영성과 사이의 관계에서 조정 또는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으며 창업가적 지향과 기업경영성과와의 관계는 활동의 통합을 활용함에 의해 조정될 거시라고 가정하고 있다.

셋째 모형은 독립효과모형(independent-effects model)으로 <그림 2-3>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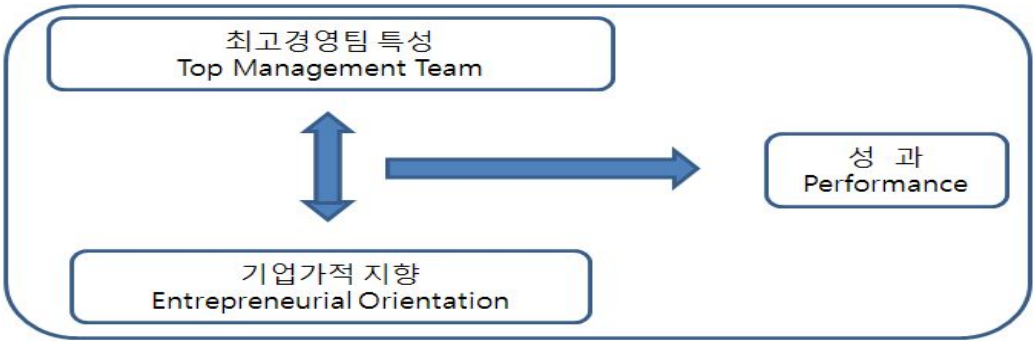
<그림 2-3> 독립효과모형

출처 : G. T. Lumpkin & Dess, G. G.(1996), ibid.

이 모형은 창업가적 지향과 환경적 풍부성, 두 가지 모두는 기업경영성과에 독립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넷째 모형은 상호작용효과모형(interation-effects model)으로 <그림 2-4>과 같다



<그림 2-4> 상호작용효과모형

출처 : G. T. Lumpkin & Dess, G. G.(1996), ibid.

이 모형은 최고경영팀 특성과 창업가적 지향은 기업경영성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여기서 최고경영팀의 특성인 모호함에 대한 인내와 창업가적 지향은 그들의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기업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모형들은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4가지 변수(variable) 유형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거나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경영성과변수가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된다. 그리고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 조절변수(moderating variable), 매개 변수(mediation variable)를 어떤 변수로 설정할 것인가는 연구자의 연구목적과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됨을 알 수 있다.

Moren Levesque(2004)는 수학(mathematics), 이론 그리고 창업가정신이라는 연구에서 수학은 현상들을 설명하고, 새로운 이론을 내세우거나 또는 기존이론을 다듬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라고 주장하면서 수학적 모형(mathematics models)들은 모형의 가정(assumption)에 대한 기초의 형식인 기존 이론들로부터 수립된다고 하였다.[4)]

dCollection @ chosun

Low & MacMillan(1988)은 창업가정신 연구에 있어서의 분석수준을 연구하면서 연구자들은 창업가정신 연구를 다차원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분석들은 서로 보완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성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연구설계의 배경을 6가지 범주 내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목적(purpose), 이론적 관점(theoretical perspective), 초점(focus), 분석수준(level of analysis), 시간 구조(time frame) 그리고 방법론(methodology)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실증적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분석수준들이 통합되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모형에 수학적 함수식 개념을 도입한 연구사례는 Sandberg(1984, 1986) Sandberg & Hofer(1987). Kunkel(1991), McDougall et al(1992), Robinson(1995). Sapienza & Grimm(1997), Chrisman et al(1998), Teal & Hofer(2003) 등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Sandberg(1984, 1986)는 신생벤처의 경영성과와 관련하여 창업가(E:entrepreneur), 산업구조(IS:industry structure), 벤처경영전략(VS:venture strategy)간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최초로 수학적 함수식을 사용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New Venture Performance(NVP) = f(E, IS, VS)이다. 그는 후속연구를 통해 신생벤처 경영성과에 산업구조와 경영전략이 주요한 결정요인임은 확인하였으나, 창업가의 영향은 식별되지 않은 것을 토대로 새로운 함수식을 제시하였는데 New Venture Performance(NVP) = f(IS*VS, IS, VS)이다.

Sandberg & Hofer(1987)는 창업가, 산업구조, 경영전략과 경영성과와의 관계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신생벤처 모형인 New Venture Performance(NVP) = f(E, IS, S)를 제시하였다.

McDougall(1987)은 정보통신업에 종사하는 2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윤에 대한 경쟁경영전략(CS: competitive strategy), 산업구조, 그리고 새로운 변수로 창업형태(VO:venture Origin) 개념을 도입하여 상대적 역할을 연구하기 위하여 New Venture Performance(NVP) = f(CS, S)를 제시하였다.

---

4) Moren Levesque(2004),"Mathematics, Theory, and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9(5) pp. 743-745에서 재인용

dCollection @ chosun

Kunkel(1991)은 Sandberg(1984, 1986)와 McDougalL(1987)의 연구모형을 토대로 하여 연구를 실시한 결과 벤처경영전략과 산업구조의 상호작용적 영향이 벤처경영성과에 미치는 조절변수임을 발견하였으나, 산업구조의 영향은 약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New Venture Performance(NVP) = f(VS*IS, VS, IS)를 제시하였다.

McDougall 등(1992)은 New Venture Performance(NVP) = f(O, S, IS)를 제시하였다. Robinson(1995)은 Roure & Maidique(1986), Roure & Keely(1990), Stuart & Abetti(1987, 1990), Cooper, Gimeno-Gascon, & Woo(1994), Joyer(1995), McGee, Dowling & Megginson(1995), Virany & Tushman(1986) 등이 수행한 8개의 연구에서 창업가(entrepreneur) 또는 창업가 팀(ET:entrepreneurial team)이 신생벤처기업 경영성과에 다양한 관점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과 Roure & Keely(1990) 및 Roure & Maidique(1986)가 정의했던 창업가 팀(founding entrepreneurial team)의 개념 및 Hofer(1987), Kunkel(1991)이 정의했던 벤처경영전략(VS:venture strategy)과 산업구조개념을 이용하여 확대된 신생벤처경영성과모형으로 New Venture Performance(NVP) = f(VS, IS, ET)를 제시하였다.

Sapienza & Grimm(1997)은 Sandberg & Hofer(1987)의 모형인 NVP = f(O, S, IS)을 연구하여 NVP = f(E, O, S, IS)라는 새로운 신생벤처모형을 제시하였고 창업가특성(founder characteristics), 창업과정(start-up processes), 그리고 경영전략과 산업구조의 조화라는 3가지 분리된 모형을 제시하였다.

Chrisman 등 (1998)은 1962년부터 1992년까지의 벤처기업 창업 경영성과에 관련된 62편의 논문을 분석하여 신생벤처기업 경영성과결정요인의 확장모형을 연구하였는데, 그들은 Sandberg & Hofer(1987)의 벤처기업 경영성과모형이 창업가, 산업구조, 사업경영전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원, 조직구조·과정·시스템(OS:organizational structure, Processes, and system)을 추가로 포함시켜서 New Venture Performance(NVP) = f(E, IS, BS, R, OS)와

dCollection @ chosun

같은 수학적 함수식으로 신생벤처기업의 확장모형을 제시하였다.

Teal & Hofer(2003)는 New Venture Performance(NVP) = f(VS, IS, ET)모형을 기초로 하여 경영전략, 산업구조, 그리고 창업자 팀의 관계 속에서 신생벤처 성공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4가지 유형의 상호작용모형(interaction medel)들을 제시하였는데 NVP = f(VS*IS), NVP = f(VS*ET), NVP = f(IS*ET), NVP = f(VS*IS*ET)이다. 연구결과(Sandberg, Mcdougall, Kunkel과 Robinson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였던 벤처경영전략과 산업구조간의 상호작용(VS*IS)이 신생벤처 경영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그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는 충분히 규명할 수 없었으며, 위의 4가지 상호작용모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입증되지 못한 것이 매우 놀랍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한 이유는 표본연구에서 단일한 관점으로 본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New Venture Performance (NVP) = f(VS, IS, ET)라는 수학적 함수식을 제시하였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벤처기업 성공요인을 추출하려는 NVP모형은 창업자, 창업자 팀, 환경, 조직구조, 경영전략 등에 따라 신생벤처의 경영성과가 결정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업경영의 한 측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능한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을 추찰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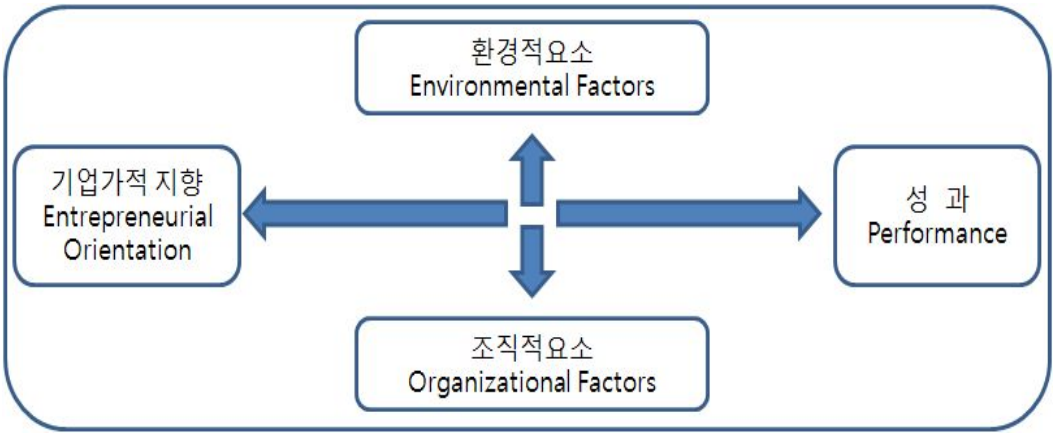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모형을 정리하면 외국 연구자들의 경우는 주로 개념적 모형에 그치고 있어 모형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요구되며, 국내 연구자들의 경우 많은 실증모형들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들 모형들이 영향요인의 관점에서 몇 개의 요인에 한정하여 분석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경영성과의 통합모형에 대한 실증연구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창업자 특성, 조직구조, 경영전략, 자원 그리고 환경요인 등으로 연구영역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제 요인들의 벤처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통합적인 영향요인 고찰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

Collection @ chosun

서는 경영성과 연구모형의 발전을 개념모형과 실증분석모형으로 구분하여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4.1 개념모형

Lumpkin & Dess(1996)는 그들의 연구논문에서 창업가적 지향(entrepreneurial orientation)이라는 개념을 주장하고, 창업가적 지향과 기업경영성과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그림 2-5>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2-5> Lumpkin & Dess(1996)의 연구모형

출처 : Lumpkin, G. T. and G. G. Dess(1996). p.152에 의거 연구자 정리

창업가적 지향은 자율성, 혁신성, 위험감수, 선행성, 경쟁적 적극성으로 구분하였고, 환경적인 요소(environmental factors)로는 역동석, 풍부성, 복잡성, 산업특성, 조직적 요소로는 규모, 구조, 경영전략결정, 기업자원, 문화(culture), 최고경영진 특성, 경영성과로는 판매 성장률, 시장 점유율, 이익률, 전반적 경영성과(overall performance), 주주의 만족(stakeholder satisfaction)을 선전하였다.

Chriman 등(1998)은 신생벤처경영성과(new venture performance)는 창업가, 산업구조, 사업경영전략, 자원, 조직구조와의 함수관계로서 NVP = f(E,I

Collection @ chosun

S, BS, R, OS)임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확장모형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1962년부터 1992년까지의 벤처기업 창업 및 경영성과에 관련된 62편의 논문을 분석하여 신생벤처기업 경영성과결정요인의 확장모형을 연구하였는데,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연구모델들의 경영성과요인은 <표 2-5>과 같다.

<표 2-5>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관련 연구모형

구 분	연구모형(Research Model)				
	창업가(E)	산업구조(IS)	사업경영 전략(BS)	자원(R)	조직구조(OS)
계(62편)	29	23	33	23	28

출처 : Chrisman, et al.(1998), op, cit. pp. 8-9에서 요약, 본 연구자 정리

그들이 분석한 62편의 논문 중에서 단일의 경영성과요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을 제외하고, 2개 이상의 복수의 경영성과요인에 관한 차원 또는 관계구조에 관한 다양한 연구모형을 정리하면 <표 2-6>와 같다.

<표 2-6> 벤처기업 경영성과요인의 다양한 연구모형 사례

구 분	연 구 자	경영성과요인의 차원				
		E	IS	BS	R	OS
2개 차원	Boardman, Barltey, & Ratlif, 1981 Gales & Blackburn, 1990				X	X
	Bourgeois & Eisenhardt, 1988 Changanti, Changanti, & Mahajan, 1989 Copper, Willard & Woo, 1986 Covin & Covin, 1990		X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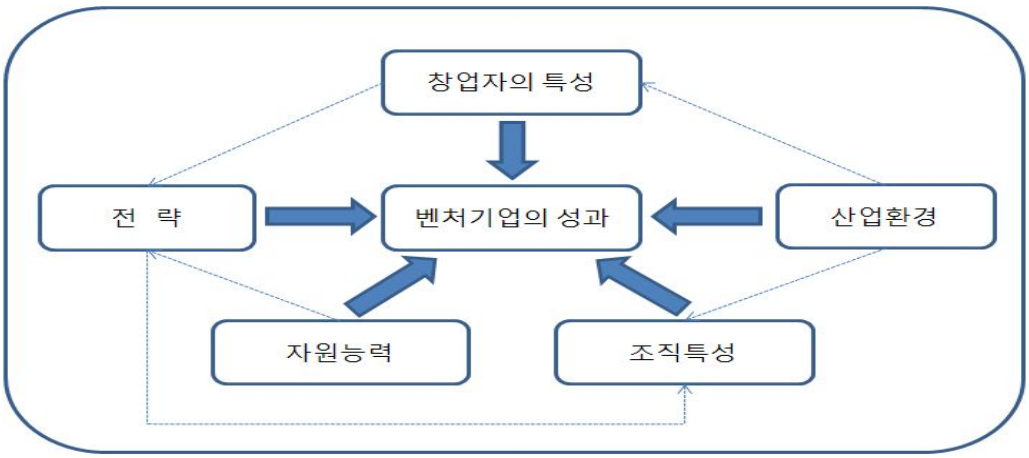
dCollection @ chosun

	McDougall, 1987 Romanelli, 1989					
	Hunsdiek, 1985 / 1986			X	X	
	Randolph, Sapienza, & watson, 1991 Robinson, Salem, Logan, & Pearce, 1986 Roure & Madique, 1986 Sapienza, 1992			X		X
	Cooper & Bruno, 1997 Cooper, Woo & Dunkelberg, 1989 Feeser & willard, 1989	X			X	
	Carsrud, Olm, & Thomas, 1989 Cuba, Decenzo, & anish, 1983 Cuba & Milbourn, 1982 Montagno, Kuratko, & Scarcella, 1986 Small, Gannon, Grimm, & Mitchell, 1988 Stuart & Abetti, 1990	X				X
	Feeser & Willard, 1990	X		X		
	Mansfield, 1962 Venkataraman, Van de Ven, Buckeye, & Hudson, 1990		X		X	
	Montagno, Kuratko, & Scarcella, 1986	X				X
3개 차원	Davidsson, 1991 Dubini, 1989 Herron, 1990 Keeley & Roure, 1980 Sandberg & Hofer, 1987	X	X	X		
	Covin & Slevin, 1990 Covin, Slevin, & Covin, 1990		X	X		X
	Smallbone, 1990	X	X		X	
	Cragg & King, 1998	X			X	X

Collection @ chosun

	Fombrun & Wally, 1989		X		X	X
	Hambrick & Crozier, 1985	X		X		X
4개 차원	Eisenhardt & Schoonhoven, 1990 MacMillan, Zeman, & Subbanarasimha, 1987	X	X	X	X	
	Reynolds, 1987		X	X	X	X
	Duchesneau & Gartner, 1990 Van de Van, Hudson, & Schroeder, 1984	X		X	X	X
5개 차원	Miller & Tourlouse, 1986 Stuart & Abetti, 1987	X	X	X	X	X

국내 연구자에 의한 개념모형으로는 이장우와 장수덕(1998)은 창업자의 특성, 산업환경, 경영전략, 조직특성, 자원능력으로 구성된 개념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그림 2-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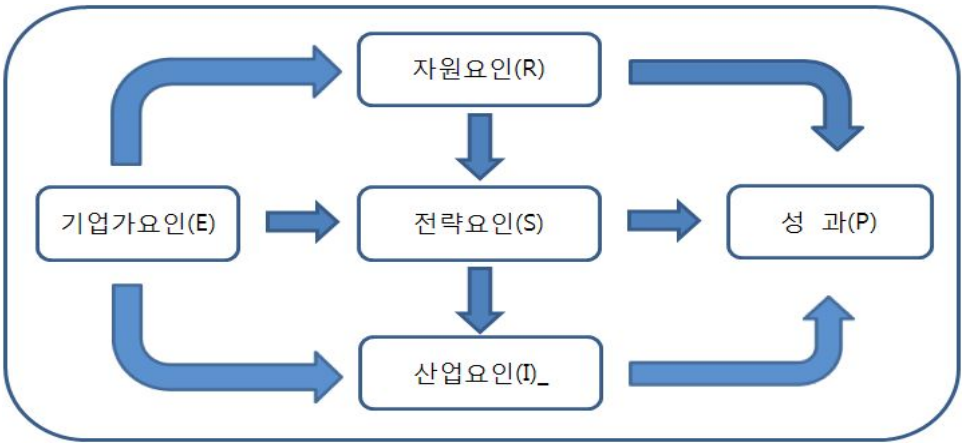


<그림 2-6> 벤처기업 경영성과의 개념모형(이장우·장수덕, 1998)

한정화(2003)는 그의 저서 「벤처창업과 경영전략」에서 벤처기업의 경영성

Collection @ chosun

과결정 요인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검토한 후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VP= f(E, R, I, S)라는 함수식으로 설명하였고(E : 창업가, R: 자원과 역량, I: 산업환경, S: 경영전략), ERIS모델을 제시하였는데 <그림 2-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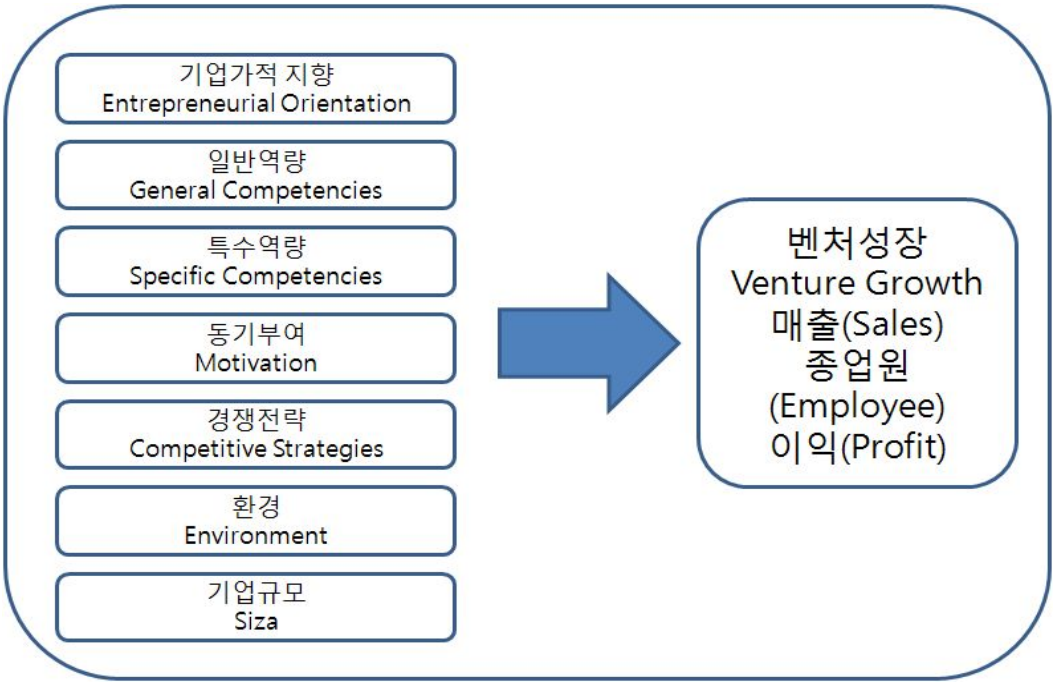
<그림2-7> 벤처기업 경영성과의 개념모형(한정화, 2003)

2.4.2 실증분석모형

Baum 등(2001)은 과거에는 창업가 정신 연구가 개인적 차이(Begley & Boyd, 1987)경영전략경영개념(Mcdougall, Robinson, & DeNisi, 1992), 그리고 조직이론개념(Aldrich & Wiedenmayer, 1993)과 기업경영성과와의 관계를 단일차원으로 다루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들은 어떤 한 차원보다는 개인차원, 조직적 차원, 그리고 환경적 차원을 결합하여 다차원적으로 연구(Chrisman, Bauerschmidt, & Hofer, 1998 ; Covin & Slevinm 1997 ; Lumpkin & Dess, 1996 ; Naffziger, Hornsby, & Kuratko, 1994 ; Herron & Robinson, 1993 ; Sandberg, 1986)하는 경향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다차원적 연구모형들이 제한된 검증을 해왔다고 주장하면서 벤처성장의 포괄적인 다차원 통합모형을 제안하고 실증연구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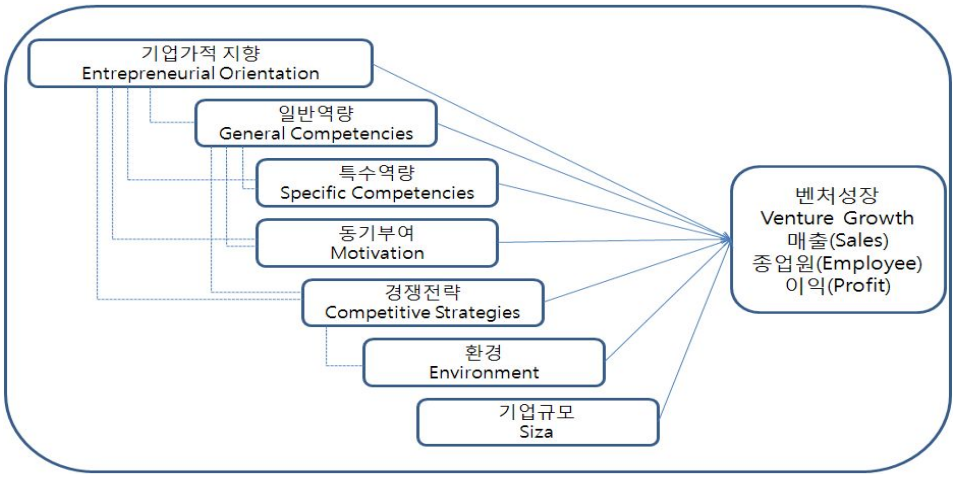
이들은 307개의 건축용 목공산업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경영이론, 조직행위이론, 조직이론, 그리고 창업모형 등을 참고하여 5개의 크고 작은 영역으로부터 17가지 개념을 선정하여 벤처성장의 통합모형을 만들고, 창업가용과 종업원용으로 구분하여 만든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들이 제시하는 실증연구모형은 직접효과모형(direct effects model)과 간접 및 직접효과모형(indirect and direct effects model)으로 구분되는데 직접효과모형은 <그림 2-8>와 같다



<그림 2-8> 직접효과모형(baum 등, 2001)

연구결과, 벤처성장의 직접효과요인은 창업가의 특수역량과 동기부여 및 기업의 경쟁경영전략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 및 직접효과모형은 <그림 2-9>와 같다

Collection @ chosun



<그림 2-9> 간접 및 직접 효과모형(Baum 등, 2001)

연구결과, 창업가 특성 일반역량 및 환경은 중요한 간접효과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기존의 개념모형을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는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연구를 통하여 벤처성장은 복합적인 과정으로, 관련된 크고 작은 영역의 다양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목공산업이라고 하는 단일산업에 국한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모든 산업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통합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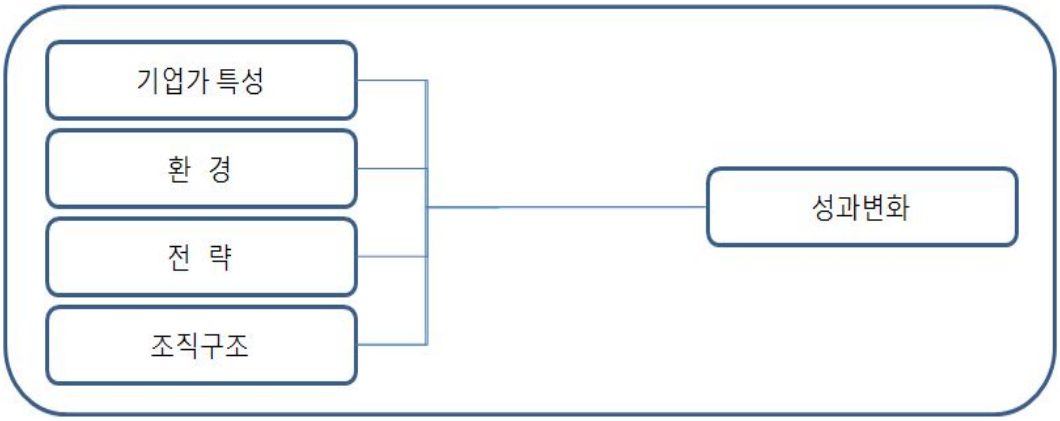
국내 연구자에 의한 실증분석모형으로 한태인(2001)은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 중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창업가 특성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창업가의 행태적 특성(심리적 요인, 행위적 요인, 리더십 요인), 종속변수는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재무적 경영성과, 사업적 경영성과)를 고려하였다. 그리고 규모, 업종, 성장단계 등으로 파악되는 기업조직의 일반적 특성 학력, 창업가 경험, 창업경험, 관련 산업에서의 근무경험 등으로 파악되는 창업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절변수로 고려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이 모형은 기업조직의 일반적 특성, 창업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그리고 창업가의 특성요인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하였고, 특히 창업가의 특성파악에 있어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다양한 요인들을 심리적 요인, 행위적 요인, 리더십 요인으로

Collection @ chosun

분류한 후 전체를 행태적 특성으로 인식하고 이들 요인과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연구모형 설계에 있어 독립적인 변수로서 창업가 특성만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독립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양희순(2002)은 126개 벤처기업의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특성, 경영전략특성, 조직특성, 창업자 특성 등 4가지 특성요인을 가지고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와 더불어 경영성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중심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그러나 경영전략집단간 또는 성장단계간의 명확한 특징과 성장단계를 유형화 시키는데는 다소 문제점을 지닌 한계가 있다. 강숙자(2003)는 112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과 환경, 조직구조 및 문화의 적합성을 실증분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벤처기업들이 사용하는 경영전략의 유형을 실증적으로 도출하고, 경영전략유형간의 환경특성 조직구조 및 문화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고, 환경특성 조직구조 및 문화, 경영전략유형에 따른 경영성과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변수들 사이의 종합적인 관계와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장수덕과 이장우(2003)는 벤처기업 경영성과의 영향요인으로 창업가 특성, 환경, 경영전략, 조직구조 특성 같은 요인들이 IMF와 같은 환경적 충격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것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변화를 IMF 전·후를 비교하여 4개 유형의 기업군을 대상으로 구분, 각 경영성과변화 유형별로 창업가 특성, 환경, 경영전략, 조직구조 특성의 변화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IMF라는 환경적 충격을 맞아 벤처기업의 창업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무엇을 중시하며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경영전략과 조직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 경영성과가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창업자의 지식축적활동, 네트워킹 및 신뢰성, 마케팅경영전략의 차별화 외부자원 활용경영전략, 환경적 변화와 조직특성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은 <그림 2-10> 과 같다.

dCollection @ chosun



<그림 2-10> 기업경영성과 모형

장수덕과 송영화(2003)는 장수덕과 이장우(2003)의 연구주제에서 창업가 특성을 빼고 벤처기업 경영성과의 영향요인으로 환경, 경영전략 및 조직구조 같은 요인들이 IMF와 같은 환경적 충격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고, 그것이 경영성과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IMF를 전 ·후한 두 기간(1994~1996년과 1997~1999년)에 걸쳐 74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종단적 자료를 수집하여 벤처기업의 환경, 경영전략 및 조직구조의 변화와 경영성과변화 유형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최용호 등(2003)은 벤처기업체를 대상으로 창업가 특성, 경영전략 및 조직구조가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창업가의 특성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경영전략 및 조직구조를 통해 간접적인 매체효과도 동시에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 역량특성은 경영성과에 대하여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보다는 경영전략 및 조직구조 변수를 통한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미치는 영향을 더욱 지지해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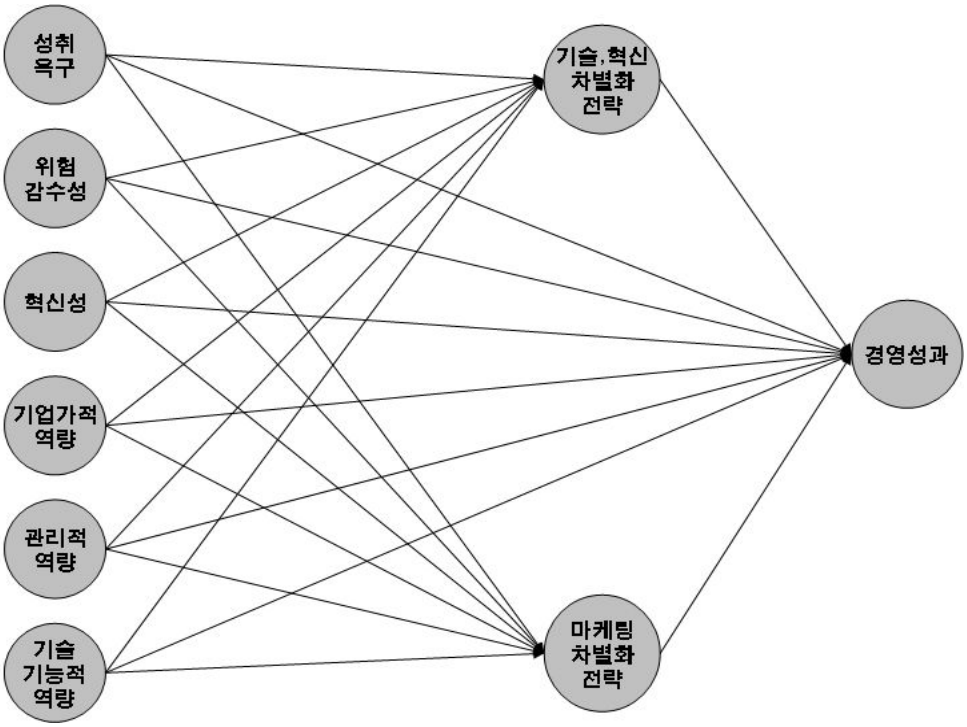
Ⅲ.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3. 1 연구모형의 설계

기존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영향 요인인 창업가 특성과 경영전략, 그리고 경영성과 변수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에 있어 창업가의 특성이나 경영전략은 주로 독립요인으로 구성하여 연구되었다(Wiklund & Shepherd 2005; Sandberg & Hofer 1987; Cooper 1993; Covin & Slevin 1991). 그러나 최근 들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개인차원, 경영 전략적 차원을 결합하여 다차원적으로 연구(Chrisman, Bauerschmidt, & Hofer, 1998 ; Covin & Slevinm 1997 ; Lumpkin & Dess, 1996)가 진행되고 있으며 벤처기업 성장의 포괄적인 다차원 통합모형을 제안하고 실증연구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Baum(2003)의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특성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경영전략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가 특성과 경영전략을 경영성과에 대한 동일한 단일차원 함수관계로 파악하는 연구들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설명의 한계(Covin & Slevin, 1998)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Baum(2003)의 벤처성장에 대한 구조모형연구에 근거를 두고 창업가 특성을 외생변수로 경영전략을 매개적 내생변수로 설정,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그림 3-1> 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Collection @ chosun



<그림 3-1> 연구모형

3. 2 가설의 설정

앞에서 제시한 창업가의 특성 중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혁신성, 창업가적 역량, 관리적 역량, 기술·기능적 역량, 경영전략 그리고 경영성과사이의 연구모형을 통해 도출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3.2.1 창업가의 특성과 경영전략

연구가설 Ⅰ은 창업가의 특성과 경영전략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경영전략의 선택과정에서 나타나는 지각이 창업가의 인지기반 및

Collection @ chosun

가치관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창업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영전략선택은 창업가의 특성을 반영한다. 즉 객관적인 동일한 환경에 직면했을 경우 특성이 다른 창업가들은 심리적인 특성이나 역량, 그리고 개인의 경험과 가치관이 경영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Hambrick & Mason, 1984). 그리고 창업가의 의사결정은 창업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정보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의사결정에 의해 행동이 결정된다(March & Simon, 1988). 따라서 창업가는 개인적 심리적특성과 혁신성, 역량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자신의 인지기반과 일관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창업가의 개인적인 업무영역에서의 경험과 축척된 전문지식은 창업가의 경영전략수행에 영향을 미친다(Thomson & Stickland, 1993)라고 주장하였으며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 역량특성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경영전략의 매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Baum. 2001)는 선행연구가 있다 창업가의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등과 같은 심리적인 특성은 창업가가 경영전략적 상황에 반응하여 일정한 해석 과정을 통해 특정한 경영 전략적 선택을 하는데 기초가 된다. 따라서 최고 경영자의 심리적인 특성으로부터 경영전략선택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특성은 창업가와 경영전략의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 창업가의 심리적 요소로는 가치, 인지모델, 성격 등의 심리적 특성을 주로 채택하였는데 이장우(1997)는 비전과 목표는 기업의 장기적 경영전략 방향을 결정하고 모든 경영전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분명한 기업의 목적은 기업 구성원들의 흥미와 몰입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역량은 개념 자체적으로 특정 직무에서 효과적이거나 뛰어난 경영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및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Klemp, 1980), 창업가가 자신의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및 능력을 소유한다면 이는 기업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차별적 역량이론에 따르면, 창업가가 기업경영전략이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일반적으로 뛰어난 자질의 최고경영자가 가진 기업이 그렇

Collection @ chosun

지 못한 경영자를 가진 기업보다 더욱 높은 경영성과를 올리게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Barney & Arikan, 2001). 특히, 벤처기업은 창업가가 대부분의 주요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가 소유하고 있는 역량은 경영전략과 유의한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세부적인 운영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창업가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handler & Jansen(1992)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벤처기업 창업가에게서 가장 핵심적인 역량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세 가지 역량, 즉 기업가적 역량과 관리적 역량, 기술·기능적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경영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을 설정하였다. 물론, 연구자마다 다양한 역량들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개개 역량들을 포괄적으로 개념화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Baum, Locke & Smith, 2001).

창업가의 특성과 경영전략

가설Ⅰ 창업가의 특성은 벤처기업 경영전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Ⅰ-1 창업가의 성취욕구는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에 정(+)의 영향을 미칠것이다.
가설Ⅰ-2 창업가의 성취욕구는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Ⅰ-3 창업가의 위험감수성향은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Ⅰ-4 창업가의 위험감수성향은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Ⅰ-5 창업가의 혁신성은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에 정(+)의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Ⅰ-6 창업가의 혁신성는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에 정(+)의 미칠 것이다.
가설Ⅰ-7 창업가의 기업가적역량은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Ⅰ-8 창업가의 기업가적역량은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에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가설Ⅰ-9 창업가의 관리역량은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Ⅰ-10 창업가의 관리역량은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Ⅰ-11 창업가의 기술·기능적 역량은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Ⅰ-12 창업가의 기술·기능적 역량은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창업가의 특성과 경영성과

연구가설 Ⅱ는 창업가의 특성과 경영성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과 경영성과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모호성에 대한 인내, 통제위치 등이 주요한 변수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취욕구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Smith & Miner, 1993; Sexton & Bowman, 1985; Stuart & Abetti, 1987, 1990; Amit et al, 1993; 조형, 1995; 정성한과 김해룡, 2001)와 위험감수성향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Smith & Miner,1993; Sexton & Bowman, 1985; Begley & Boyd, 1987)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창업가 특성에 있어 창업가의 혁신성은 경영성과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Kuratko & Hodgetts, 2001). 혁신성은 창업가들이 기업의 성장을 위해 만드는 기회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혁신성은 조직이 기술혁신, 관리 관행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모든 경영 관리 활동을 말한다(이춘우, 2002). Schumpeter(1937)는 창업가에 의해 제품의 개선이나 효율적인 생산과정 활동 등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Schumpeter가 말하는 창업가란 기업의 성장을 위해 혁신성을 갖춘 사람이며, 자신의 기업을 창

Collection @ chosun

업하거나 기업에서 혁신적 경영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영수(1997)는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기업 등의 혁신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기업들은 여타 기업들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들마다 가지고 있는 속성에 따라 기업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속성이 창업가의 혁신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기업에 있어 창업가 특성의 구성요소로서 혁신성, 위험감수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만을 제시한바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개개 역량들을 포괄적으로 개념화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Baum, Locke & Smith, 2001). 여러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환경을 탐색하고 약속된 기회를 선택하며 이러한 기회로부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업가적 능력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원을 획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적 능력,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기능적 역량을 강조하여 왔다(최용호, 신진교, 김승호, 2003; Baum, Locke 및 Smith, 2001; Chandler & Hanks, 1994; Chandler & Jansen, 1992; Herron & Robinson, 1990; Hood & Young, 1993; McClelland, 1987; Mitton, 1986). 여러 실증연구에서도 일관적이지는 않지만 기업가적 역량과 관리적 역량 그리고 기술·기능적 역량이 기업경영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봉상, 용세중, 이상천, 2003; 최용호, 신진교, 김승호, 2003; Baum, Locke & Smith, 2001; Chandler & Jansen, 1992; Chandler & Hanks, 1994, 1998).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이 설정되었다.

창업가의 특성과 경영성과

가설 Ⅱ 창업가의 특성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1 창업가의 성취욕구는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2 창업가의 위험감수성향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가설 Ⅱ-3 창업가의 혁신성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4 창업가의 기업가적역량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5 창업가의 관리역량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6 창업가의 기술·기능적 역량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경영전략과 경영성과

가설 Ⅲ은 경영전략과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경영전략과 관련하여 Porter(1980)는 경쟁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세 가지 본원적 경영전략으로 차별화경영전략, 원가우위경영전략, 집중화경영전략을 제시하였다. Zahra & Covin(1993)은 원가우위경영전략, 마케팅차별화 경영전략을 제시하였다. Chandler & Hanks (1994)는 혁신경영전략, 원가우위경영전략, 품질우위경영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벤처기업의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판단되는 Miller(1986)가 벤처기업 전략연구에서 제시한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집중화경영전략, 원가우위경영전략 중 차별화 전략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과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을 매개변수로 사용하였다. 차별화전략의 핵심은 창의성 혁신성, 연구개발, 제품엔지니어링 등이며 이는 벤처기업의 특성과도 잘 부합되며(Govindarajan & Fisher, 1990)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은 혁신적이며 시장에 대하여 신속하게 반응하며 정형화된 업무 보다는 창의력과 지적자산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원가를 낮추어 경쟁기업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원가우위경영전략의 경우 벤처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따른 어려움과 설비의 특성상 원가우위전략을 추구하는데 무리가 따르는 경우가 많으며(Miller & Friesen, 1992), 이러한 가격메커니즘으로 경쟁

Collection @ chosun

력을 확보하기에는 국내 벤처기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기존연구에서 개념적 타당성이 입증된 Miller(1986)의 경쟁경영전략 중 벤처기업의 특성과 가장 밀접한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경영전략과 경영성과

가설 Ⅲ 경영전략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Ⅲ-1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Ⅲ-2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경영전략의 매개효과

다음은 기술혁신차별화 경영전략과 마케팅 차별화 경영전략이 매개효과를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창업가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창업가 정신모형 중심의 단일모형 보다는 기업행위 모형을 채택할 필요성이 있으며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할 때 창업가 개인차원의 특성 뿐 만 아니라 경영전략차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창업가 부문의 개인차원 특성은 경영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방향이 창업가 개인특성 중심의 속성 관점차원에서 기업행위관점차원으로 변화되면서 나타난 연구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단일차원 함수관계로 파악하는 전통적 시각의 연구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설명

Collection @ chosun

하려는 현대적 시각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가설 Ⅳ 경영전략의 매개효과가 나타 날 것이다.

가설Ⅳ-1 성취욕구와 주관적 경영성과를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Ⅳ-2 성취욕구와 주관적 경영성과를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Ⅳ-3 위험감수성향과 주관적 경영성과를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Ⅳ-4 위험감수성향과 주관적 경영성과를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Ⅳ-5 혁신성과 주관적 경영성과를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Ⅳ-6 혁신성과 주관적 경영성과를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Ⅳ-7 기업가적역량과 경영성과를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Ⅳ-8 기업가적역량과 주관적 경영성과를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Ⅳ-9 관리역량과 주관적 경영성과를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Ⅳ-10 관리역량과 주관적 경영성과를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Ⅳ-11 기술·기능적 역량과 주관적 경영성과를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Ⅳ-12 기술·기능적 역량과 주관적 경영성과를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이 매개할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Ⅳ. 연구방법

4. 1 표본의 선정 및 특성

4.1.1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창업가 특성 경영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경영성과의 영향요인으로 구분된 창업가 특성 중 심리적 특성, 혁신성, 역량 특성, 경영전략 그리고 주관적 경영성과 및 객관적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08년 12월 5일부터 2009년 4월 3일까지 약 4개월간 이루어 졌으며 조사는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설립된 지 3년 이상 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300개 업체를 선정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개월에 걸친 수집기간동안 총 38부(회수율 12%)의 매우 저조한 회수율을 보였기 때문에 설문지를 우편조사로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각 지역의 벤처기업관련 유관기관을 활용한 수집방법을 사용하였다. 벤처기업 설립이 3년 이상 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약속된 일정이더라도 기업체 사정에 따라 현장에서 작성하여 곧바로 회수하는 것이 대부분 곤란하여 최초 방문 시에는 설문지 배부 및 작성요령을 설명하고 작성이 완료된 후 전화통보에 의거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360개 업체에 배포하였으며, 그중 258개 업체가 회수되었다. 그러나 설명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항 중 응답이 누락되어 결측

Collection @ chosun

치가 있거나 내용작성이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30개 업체 분을 제외한 후 234개 벤처기업의 유효한 설문지를 확보하였다. 이렇게 하여 총 266부의 유효한 설문지가 본 연구 분석에 이용 되었다. Ding (1995)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추정법인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에 적절한 최소한의 표본크기는 일반적으로 100-150이라고 주장하였고, Hoelter(l983)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표본크기는 200 개가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기초하여 266 부의 규모로 표본크기를 정하였다. 그러나 객관적 경영성과(재무적 경영성과)측정문항은 직접방문을 해서 연구목적에 관해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기피하거나 공란으로 두거나 일부분만 작성한 경우가 173개 업체로 매우 많았다. 따라서 최초 연구모형 설정 시 경영성과측정 지표로 계획하였던 주관적 경영성과와 객관적 경영성과 중 객관적 경영성과 측정지표는 연구모형에서 제외시켰다.

4.1.2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표본기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표본기업에 대한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30세 이하가 15.8%, 30-39세가 48.5%, 40-49세가 30.5%, 50-59세가 4.9% 60세 이상에는 0.4%로 나타났으며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이하가 2.6%, 전문대졸은 10.5%, 학사학력은 44.7%, 박사학력은 15.4% 기타에는 4.1%로 나타났으며 경영진의 전공을 살펴보면 경영, 경제학은 18.4%, 공학은 49.6%이며 자연과학은 12.8%이며 인문사회는 9.8%, 기타에는 9.4%로 나타났으며 제품관련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 에 6.4%, "대체로 관련 없다" 에 11.3%, "보통이다" 에 22.6%이며, "대체로 관련 있다" 에 25.6%이며, "매우 관련 있다" 에는 34.2%로 나타났으며 창업경험을 살펴보면 34.6%가 창업경험이 있었으며 65.4%는 그전 창업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경험를 살펴보면 85.3%가 근무경험이 있었으며 14.7%는 그전 근무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

dCollection @ chosun

관련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 에 8.3%, “대체로 관련 없다” 에 13.5% “보통이다” 에 19.9%이며, “대체로 관련 있다” 에 35.0%이며, “매우 관련 있다” 에는 23.3%로 나타났으며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에는 34.6%이며, 정보처리 S/W에는 24.4%이며, 연구개발서비스에는 25.6%이며, 건설운수에는 2.3%, 도, 소매업에는 2.6%이며, 농·어·임·광업에는 0.4%, 기타에는 10.2%나타났다.

지역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지역은 25.6%, 부산, 경남지역은 22.9% 대구, 영남지역은 5.3%, 광주, 전남지역에는 24.8%, 대전, 충청지역에는21.4%로 나타났다.

<표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명	%	구 분		명	%
연령	30세 이하	42	15.8	창업 경험	있다	92	34.6
	30-39세	129	48.5		없다	174	65.4
	40-49세	81	30.5	근무 경험	있다	227	85.3
	50-59세	13	4.9		없다	39	14.7
	60세 이상	1	0.4				
학력	고졸이하	7	2.6	생산 관련	전혀관련없다	22	8.3
	전문대졸	28	10.5		대체로관련없다	36	13.5
	학사	119	44.7		보통이다	53	19.9
	석사	60	22.6		대체로관련있다	93	35.0
	박사	41	15.4		매우관련있다	62	23.3
	기타	11	4.1				
전공	경영, 경제학	49	18.4	업종	제조업	92	34.6
	공학(엔지니어)	132	49.6		정보처리 S/W	65	24.4
	자연과학	34	12.8		연구개발서비스	68	25.6
	인문사회	26	9.8		건설운수	6	2.3
	기타	25	9.4		도, 소매업	7	2.6
					농·어·임·광업	1	0.4
					기타	27	10.2
제품 관련	전혀관련없다	17	6.4	소재지	서울, 경기지역	68	25.6
	대체로관련없다	30	11.3		부산, 경남지역	61	22.9
	보통이다	60	22.6		대구, 영남지역	14	5.3
	대체로관련있다	68	25.6		광주, 전남지역	66	24.8
	매우관련있다	91	34.2		대전, 충청지역	57	21.4
Total		266	100%	Total		266	100%

Collection @ chosun

4. 2 변수의 조직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4.2.1 변수의 조작적 정의

실증연구를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계량적인 측정이 요구되며 이러한 측정을 통해서 현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특정변수의 상태와 변수들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이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목적에 따라서도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본 연구목적에 맞도록 기존의 정의된 개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관찰 가능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1) 성취욕구

성취 욕구란 어떤 일을 성취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의 정도이며 어떤 것들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욕, 물질적 사물, 인간, 또는 아이디어에 정통하고 이들을 조직하며 조직화하려는 의욕, 가능한 한 신속하고 독립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려는 의욕, 역경을 극복하고 높은 기준에 도달하려는 의욕, 자기 자신을 탁월하게 만들려는 의욕, 다른 사람들과 경쟁에서 그들을 능가하려는 의욕,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의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Blackburn(1981)과 Steers & Braunstein(1976)의 연구를 기초로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2) 위험감수성향

위험감수성향이란 급변하는 환경을 선호하거나 또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이나 어떤 위험에 대하여 기꺼이 감수하려는 심리적인 성향을 의미는 것으로 위험감수성향은 특히 신규사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창업가적 과정에 내재하고 있는 특성으로 창업가의 중요한 심리적 특성 중의 하나이다. 행동과학자들은 위험감수성향을 불확실한 기업환경 속에서 창업가들의 행동방향을 설정해주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라고 주장한다. 위험감수성향

Collection @ chosun

을 측정하는 요인으로써 위험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의 선호, 과감한 행동의 선택, 불확실한 상황에 과감한 대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Boone& Brabander (1997)의 연구를 기초로 5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3) 혁신성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창업가특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왔는데 기존의 창업가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향을 주로 창업가 특성으로 다루어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특성요인으로 혁신성을 측정하고자 하며 혁신성이란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과감히 지원하며 업무수행에 있어 새로운 기술과 방법 등을 찾으려는 노력, 끊임없는 업무개선, 혁신적 경영기법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써 이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Covin & Slevin(1991), Miller(1998) 그리고 Zahra(1991)의 설문항목을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6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4)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역량이란 환경을 탐색하고 약속된 기회를 선택하며 이러한 기회로부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즉 사업기회인식능력과 벤처성공을 위한 역량을 의미하며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역량, 사업성공에 대한 열정, 고객들이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는지에 대한 인식정도 등으로 Chandler & Hanks(1994)의 연구를 기초로 5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5) 관리역량

관리역량이란 자원을 획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적 역량을 의미하며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경영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 자원을 배분하고 과업을 통합, 조정시킬 수 있는 역량, 감독과 설득을 통해 지도할 수 있는 역량, 조직관리역량, 권한을 효율적으로 위임하는 역량 등으로 Chandler & Hanks(1994)의 연구를 기초로 5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Collection @ chosun

6) 기술·기능적 역량

기술·기능적 역량이란 자기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 기법에 대한 역량을 의미하며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정도, 전문화된 분야의 기술, 과정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 기술적 문제 해결 역량 등으로 Chandler & Hanks(1994)의 연구를 기초로 5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7)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이란 차별화의 요소로 기술적 아이디어와 성능을 강조하는 경영전략를 말하며 Miller(1998), 강숙자(2003), 고봉상(2004)의 연구를 기초로 이를 측정하기 위한 요인으로는 타 기업보다 우선적으로 신제품을 개발, 기술도입 및 제휴강화, 생산품목이 다양화,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해 기업이 어느 정도 중요시 하며 투자를 기울여 왔는가를 5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8) 마케팅 차별화 경영전략

마케팅 차별화 경영전략이란 차별화의 요소로 마케팅을 강조하는 경영전략으로 Miller D.(1998), 강숙자(2003), 고봉상(2004)의 연구를 기초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강화, 판매대리점 및 유통망의 확보, 상표명에 의한 제품이미지 제고,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에 대한 투자정도이며 5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9) 경영성과측정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연구에서 사용되는 지표는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객관적 지표는 다시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벤처기업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재무적 지표에 대한 실질적인 공개를 꺼려하는 벤처기업 입장 때문에 연구자들이 원천자료에의 접근이 제한되는 관계로 대부분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벤처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주관적

Collection @ chosun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Zahra(1996), 한상설(1997), 양희순(2002), 김효중(2006)의 측정요인을 기초로 하며 그 측정요인으로는 제품에 대한 시장 점유율, 회사 전반적인 투입에 대한 산출 효과, 회사의 수익성, 신제품개발과정에 따른 만족도, 신제품의 브랜드 인지도 등의 5개항목이다.

<표 4-2> 창업가 특성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관련연구

연구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척도 (범위)	관련문헌
성취욕구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의 정도	연속변수 (1-5)	Blackburn,r.S(1981) Steers,R.M&Braunstein,D.N.(1976)
위험감수성향	어떤 위험에 대하여 기꺼이 감수하려는 심리적인 성향	연속변수 (1-5)	Boone,C.,Brabander,B.D (1997)
혁신성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과 방법 등을 찾으려는 노력	연속변수 (1-5)	Covin & Slevin(1991), Miller(1998) Zahra(1991)
기업가적능력	기회인식능력과 벤처성공을 위한 열정	연속변수 (1-5)	Chandler,G.N&Hanks,S.H(1994)
관리적 능력	인간적 능력, 개념적 능력, 정치적 능력	연속변수 (1-5)	Chandler,G.N&Hanks,S.H(1994)
기술, 기능적능력	자기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 기법의 능력	연속변수 (1-5)	Chandler,G.N&Jansen,E.(1992)
마케팅 차별화 경영전략	차별화의 요소로 마케팅을 강조하는 경영전략	연속변수 (1-5)	Miller, D.(1998) 강숙자(2003), 고봉상(2004)
기술혁신 차별화 경영전략	차별화의 요소로 기술적 아이디어와 성능을 강조하는 경영전략	연속변수 (1-5)	Miller, D.(1998) 강숙자(2003), 고봉상(2004)
경영성과	시장점유율	연속변수 (1-5)	Zahra, S.A(1996) 한상설(1997) 양희순(2002) 김효중(2006)
	생산성		
	수익성		
	신제품개발능력		
	브랜드 인지도		

dCollection @ chosun

4.2.2 설문지 구성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할 설문지는 연구목적에 맞게 질문의 범위를 크게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한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영향요인 2가지 범주와 경영성과 범주, 일반현황 9가지 부류로 구분하고자 한다. 설문항목은 선행연구에서 검토되어진 것으로서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검증된 사항을 선별적으로 본 연구목적에 맞도록 일부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첫 번째 부류는 창업가의 특성에 관한 질문으로 성취욕구 6개 문항, 위험감수성향 5개 문항, 혁신성 5개 문항, 창업가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5개 문항, 관리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5개 문항, 기술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5개 문항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평가에 사용된 척도는 리커트 평가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 부류는 경영전략특성에 관한 질문으로, 마케팅 차별화경영전략 5개 문항,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을 측정하기 위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부류는 경영성과에 관한 질문으로 주관적 경영성과지표인 벤처기업의 창업가가 평가하는 벤처기업의 시장점유율, 생산성, 수익성, 브랜드인지도, 신제품개발에 따른 만족정도를 측정지표로 사용하였으며, 객관적 경영성과지표는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지표로 구성되었다.

네 번째 부류는 벤처기업의 일반현황에 관한 질문으로 창업 시 연령, 학력, 전공분야와의 관련성정도, 직장근무경험, 업종, 소재지 등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은 <표 4-3>와 같다.

Collection @ chosun

<표 4-3> 설문지의 구성

변 수	문 항 수	문항번호
성취욕구	6	Ⅰ-1 ~ Ⅰ-6
위험감수성향	5	Ⅰ-7 ~ Ⅰ-11
혁신성	6	Ⅰ-12 ~ Ⅰ-17
기업가적 역량	5	Ⅱ-1 ~ Ⅱ-5
관리적 역량	5	Ⅱ-6 ~ Ⅱ-10
기술·기능적 역량	5	Ⅱ-11 ~ Ⅱ-15
마케팅 차별화 경영전략	5	Ⅲ-1 ~ Ⅲ-5
기술혁신 차별화 경영전략	5	Ⅲ-6 ~ Ⅲ-10
주관적경영성과	5	Ⅳ-1 ~Ⅳ -5
연령	1	Ⅴ-1
학력	1	Ⅴ-2
전공분야	1	Ⅴ-3
생산제품과의 관련성	1	Ⅴ-4
창업경험	1	Ⅴ-5
직장근무경험	1	Ⅴ-6
직장경험과 관련성	1	Ⅴ-7
업종	1	Ⅴ-8
소재지	1	Ⅴ-9

4. 3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기술통계분석, 탐색적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에는 SPSS 14.0 KO for Windows를 사용하며 확인적 요인분석 및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및 경로분석은 Amos 6.0을 이용하여

Collection @ chosun

분석하였다.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 혁신성, 역량 특성, 경영전략과 경영성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탐색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CFA), 그리고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자료분석의 절차는

첫째,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둘째,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이때 개념측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측정모형의 분석을 먼저 실시하며 다음으로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구조모형을 분석한다.

셋째, 간명성이 높은 최적의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대안모형을 실시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이 가지는 장점은 여러 개의 측정변수를 이용해서 추출된 공통변량을 변수 즉, 잠재변수로 사용하므로 그 변수의 측정오차가 통제된다는 점과 매개변수의 사용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매개변수는 특성상 모형에서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회귀분석의 경우, 한 변수는 하나의 역할만을 해야 하므로, 특히 매개변수가 하나 이상인 경우, 매개 수의 도입 및 평가가 쉽지 않다. 회귀분석 대신 경로분석 사용하면 매개변수를 쉽게 다룰 수 있지만 경로분석에는 잠재변수가 아닌 측정변수가 사용되므로 측정오차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대안모형을 통한 방법은 연구자가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가능한 여러 모형을 제시하고 이들을 비교하여 최적의 모형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단일모형 평가는 하나의 모형만을 평가하여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게 되므로 더 나은 대안모형(alternative model)의 선택 가능성이 없어 제시한 모형이 적합도가 좋다고 해서 최적의 모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과 수정지수를 통한 모형의 수정은 연구자가 분석하는 특정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수정모형을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단일모형 평가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대안모형을 통한 평가방

Collection @ chosun

법이다(홍세희, 2007). 대안모형 평가방법으로 Baum(2003)의 연구에서 이루어진 간접 및 직접모형에 기초하여 최적의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주관적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혁신성, 기업가적 역량, 관리적 역량, 기술 기능적 역량이 주관적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과, 기술혁신차별화 경영전략,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을 통한 간접적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직접적인 효과를 제외한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만을 살펴보는 것을 대안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은 제안된 공식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Preacher & Hayes, 2004).

Collection @ chosun

Ⅴ. 실증분석

5. 1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정에 앞서 가설검정에 필요한 각 구성개념들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측정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신뢰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반복하여 측정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과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내적 일관성 검정법은 같은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측정도구 내의 항목별 평균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신뢰성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다. Cronbach's Alpha에 의한 신뢰성 검정은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 방법으로 측정수단들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타당성은 측정하려고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즉, 특정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측정도구가 그 속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여러 변수들의 저변에 존재하는 하나의 혹은 여러 개의 요인들을 찾아내는 통계적 기법으로 여러 개의 변수들을 그 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정리한다는 점에서 자료를 축소하고 요약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변수들을 요인별로 정리한다는 점에서 분류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요인분석에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증적 요인분석이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연구 대상의 저변에 존재하는 잠재요인을 찾아보거나, 자료를 요인으로 축소하여 살펴보는데 사용한다. 반면 확증적 요인분석은 잠재요인에 대한 가정을 계량적으로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그렇다고 이 둘 사이의 경계가 항상 명확한

dCollection @ chosun

것은 아니다. 다만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통상 연구 대상에 많은 사전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정충영, 최이규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증적 요인분석을 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요인으로 묶이지 않거나, 전체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수정된 총 점수와의 상관관계가 낮고 Alpha값을 상당히 개선시키는 항목은 최종분석에서 제외되었다.

5.1.1 외생변수 탐색적 요인 및 신뢰성분석

타당성은 그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를 의미하게 된다. 타당성의 평가는 그 방법에 따라 개념 타당성, 기준관련 타당성, 내용 타당성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용 타당성은 특정한 측정도구의 대표성에 관한 개념이며, 기준 관련타당성은 특정변수간의 통계적인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개념 타당성은 변수들의 특성 측정과 관련한 것으로서 측정자체의 정확성에 관련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개념타당성을 검증하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흔히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이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간의 판별 타당성과 개념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추출에 있어서는 구해진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요인의 수를 적절히 줄이기 위한 주성분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식을 사용하였고, 요인의 회전으로는 직각회전방식(Varimax)을 선택하였다. 외생변수에 대한 요인 분석결과는 <표 5-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2개 문항 중 9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23개 문항이 6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각 요인별로 적재치(Factor Loading)를 살펴 0.6이상인 변수들만 추출하였는데, 그 결과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혁신성, 기업가적역량, 관리적역량, 기술`·기능적 역량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창업가의 기술`·기능적 역량을 설명해주

Collection @ chosun

는 설명분산은 13.96%, 관리적역량을 설명해주는 설명분산은 12.43%, 기업가적역량을 설명해주는 설명분산은 9.36%, 창업가의 혁신성을 설명해 주는 설명분산은 13.47%였으며, 성취욕구 요인의 설명분산은 10.39%, 위험감수성향은 8.92%로 도출되었다. 전체적인 누적 분산 설명비율은 68.56%로 나타났다. 또한 도출된 차원들의 내적 신뢰성 검증을 위한 Cronbach's Alpha 분석결과 모든 차원들이 일반적으로 기준값 0.6을 초과함으로써 각 문항에 대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복 유사한 질문은 각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구해서 상관관계가 낮은 값을 제거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Cronbach's Alpha 분석결과 기술·기능적역량은 α=0.899, 관리적역량은 α=0.839, 기업가적역량은 α=0.789, ,창업가의 혁신성은 α=0.888, 성취욕구 요인은 α=0.779이었으며 위험감수성향 요인은 α=0.686으로 나타났다.

dCollection @ chosun

<표 5-1> 외생변수 탐색적요인 및 신뢰성 분석

개 념	변 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기술, 기능적 역량	기술·기능적역량3	.877	.128	.119	.069	.076	.076
	기술·기능적역량1	.857	.010	.143	-.036	.076	.072
	기술·기능적역량2	.845	.133	.053	.199	.179	.021
	기술·기능적역량4	.806	.186	.148	.214	.032	.013
혁신성	혁신성2	.122	.857	.126	.185	.151	.176
	혁신성3	.206	.784	.159	.158	.213	.181
	혁신성1	.178	.783	.078	.133	.256	.115
	혁신성4	.011	.719	.335	.167	.027	.092
관리적 역량	관리적역량1	-.004	.160	.786	.080	.216	.048
	관리적역량2	.153	.182	.776	.147	.029	.016
	관리적역량4	.170	.102	.762	.190	.226	.080
	관리적역량3	.209	.149	.701	.151	.187	.135
성취 욕구	성취욕구1	.069	-.042	.147	.800	.099	.181
	성취욕구3	.107	.306	.076	.758	.125	.035
	성취욕구2	.217	.224	.228	.678	-.009	.203
	성취욕구4	.093	.229	.187	.664	.218	-.018
기업 가적 역량	기업가적역량2	.064	.137	.236	.173	.845	.131
	기업가적역량3	.096	.224	.261	.010	.776	.195
	기업가적역량1	.214	.216	.120	.178	.645	-.158
위험 감수 성향	위험감수성향2	.107	.059	-.148	.073	.084	.730
	위험감수성향5	.014	.031	.045	.126	.014	.701
	위험감수성향1	.102	.152	.195	-.037	-.054	.632
	위험감수성향4	-.089	.167	.191	.180	.136	.629
고유치		3.212	3.100	2.860	2.391	2.154	2.052
설명분산(%)		13.967	13.478	12.436	10.395	9.367	8.920
누적분산(%)		13.697	27.445	39.881	50.275	59.643	68.563
Cronbach's Alpha		.899	.888	.839	.779	.789	.685

Collection @ chosun

5.1.2 내생변수 탐색적 요인 및 신뢰성 분석

내생변수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15개 문항 중 4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문항이 3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표 5-2> 내생변수의 탐색적 요인 및 신뢰성분석

개 념	변 수	요 인 1	요 인 2	요 인 3
기술혁신 차별화경영전략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1	.856	.048	.034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2	.830	.106	.089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4	.798	.135	-.157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5	.679	.101	.171
경영성과	경영성과1	.040	.832	.171
	경영성과4	.214	.789	.077
	경영성과2	-.086	.751	.236
	경영성과3	.327	.668	-.098
마케팅 차별화 경영전략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3	.052	.063	.892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4	.015	.152	.878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5	.059	.116	.799
고유치		2.688	2.407	2.369
설명분산(%)		24.434	21.877	21.534
누적분산(%)		24.434	46.311	67.845
Cronbach's Alpha		.839	.782	.815

내생변수에 대한 요인분석결과는 <표 5-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개의 요인이 나타났다. 각 요인별로 적재치(Factor Loading)를 살펴 0.6이상인 변수들만 추출하였는데, 그 결과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경영성과, 마케팅차별화

Collection @ chosun

경영전략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요인은 24.43% 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경영성과의 설명분산은 21.87%,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의 설명분산은 21.53%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누적 분산 설명비율은 67.84%로 나타났다. 또한 도출된 차원들의 내적 신뢰성 검증을 위한 Cronbach's Alpha 분석결과 모든 차원들이 일반적으로 기준값 0.6을 초과함으로써 각 문항에 대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Cronbach's Alpha 분석결과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요인 α=0.839. 경영성과의 요인은 α=0.782,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은 α=0.815로 나타났다.

5. 2 상관관계 분석

5.2.1 잠재변인들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방정식을 통한 분석에 사용할 잠재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을 <표 5-3>에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취욕구는 모든 잠재변수들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위험감수성(r=.385), 혁신성(r=.503), 기업가적 역량(r=.394), 관리적 역량(r=.471), 기술·기능적 역량(r=.335),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r=.292)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하지만 마케팅 차별화와 경영성과와는 정적이지만 의미 있는 상관을 보이지는 못했다.

다음으로 위험감수성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혁신성(r=.405), 기업가적 역량(r=.254), 관리적 역량(r=.275), 기술·기능적 역량(r=.200),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r=.225)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하지만 마케팅 차별화와 경영성과와는 의미있는 상관을 보이지는 못했다. 혁신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업가적 역량(r=.485), 관리적 역량(r=.483), 기술·기능적 역량(r=.339), 기

Collection @ chosun

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r=.395)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하지만 마케팅 차별화와 경영성과와는 의미 있는 상관을 보이지는 못했다. 하지만 기업가적 역량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관리적 역량(r=.497), 기술·기능적 역량(r=.316),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r=.257), 마케팅 차별화(r=.175)와 경영성과(r=.127), 모든 변인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5-3> 잠재변인들의 상관관계

	1.성취욕구	2.위험감수성	3.혁신성	4.기업가적역량	5.관리적역량	6.기술·기능적역량	7.기술혁시차별화	8.마케팅차별화	9.경영성과
1	1								
2	.385**	1							
3	.503**	.405**	1						
4	.394**	.254**	.485**	1					
5	.471**	.275**	.483**	.497**	1				
6	.335**	.200**	.339**	.316**	.327**	1			
7	.292**	.225**	.395**	.257**	.333**	.425**	1		
8	.078	-.013	.071	.175**	.200**	-.026	.090	1	
9	.119	.073	.061	.127**	.178**	-.085	.270**	.262**	1

*p<.05, **p<.01

관리적 역량 역시, 기술·기능적 역량(r=.327),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r=.333), 마케팅 차별화(r=.200)와 경영성과(r=.178)의 모든 변인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기술·기능적 역량은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r=.425)과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기술차별화 경영전략 역시 경영성과(r=.270)와만 정적 관계에서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차별화 경영전략과 경영성과(r=.262)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dCollection @ chosun

5.2.2 다변량 분석의 기본가정 검토

구조모형 분석은 수집된 자료가 다변량 분석의 가정을 충족시킨다는 조건에서 분석되는 것임으로 먼저 다변량 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극단치, 변량의 정규성, 다변량 가정,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변량의 극단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귀방정식을 통한 Cook의 거리(Cook's Distance)를 사용하였다. CDi>1인 경우에는 영향력이 큰 관측값으로 해석하여 제외하고 분석을 하여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266사례에서 극단 값으로 나타난 사례가 없어 266사례를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변량의 정규분포는 분포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의 검토를 통해 평가할 수 있는데 절대값을 기준으로 왜도의 경우 3이상, 그리고 첨도의 경우 10이상 일 때 변량이 정규분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들은 모두 왜도는 3이하이고 첨도는 10이하 이므로 정규분포의 가정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다변량의 기본가정인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 분석시 공분산행렬에 대한 Box의 동일성 검증(Box's M)과 오차분산의 동일성에 대한 Levene의 검정을 실시하였다. Box의 동일성 검증(Box's M) 에서는 공분산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아 각 유형별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였다. 또한 오차분산의 동일성에 대한 Levene의 검정도 여러 집단에서 종속변인의 오차분산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아 오차분산 역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성 검증은 Durbin-Watson의 d를 사용하였다. 완전 정적상관일 경우는 d값이 0이고 완전 부적상관일 경우에는 d값이 4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량이 모두 2에 가깝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량의 선형성(linearity)을 알아 볼 수 있는 다중공선성은 분산 증가 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의 점검을 통해 파악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분산 증가 요인이 10이상이면, 심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변수들을 제거하거나 조합하여 합성변수를 만들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 증가 요인이 모두 10을 넘지 않아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Collection @ chosun

5. 3 연구모형의 분석

5.3.1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을 할 수 없는 연구모형의 전체적인 적합성 검증과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AMOS를 이용 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은 회귀분석이나 요인분석보다 복잡한 분석이 요구될 때 구조 방정식 모형을 쉽게 분석해 주는 도구로써, 다수의 설문 문항을 소수의 차원으로 축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요인 점수나 요인 평균값을 사용하여 분석에 활용하는 경우와 같은 원리이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취급되어 변수들 간의 함수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회귀방정식에 묻혀 결과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경우에 활용될 뿐이다. 또한 회귀분석에서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가 가정되고 검증됨으로써 변수들이 어떻게 서로에 영향을 미치는가, 즉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인 효과만을 표시해 줄 뿐, 예측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존재할 수 있는 간접효과나 제 3의 효과는 해석되지 않는 한계를 가진다. 이와 같은 한계는 경로분석을 통한 검증으로 극복할 수 있다(이순묵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에서 검증할 수 없는 모형의 적합성이나,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도 경로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과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를 창업가 심리적 특성, 혁신성, 역량특성을 제시하였으며, 매개변수로는 경영전략 그리고 결과변수로는 주관적경영성과를 선정하였다. 경로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심리적 특성, 혁신성, 역량특성이 경영전략과 경영성과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연구모형에 대한 전체적인 적합도와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다.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AMOS 6.0을 이용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분산구조분석에서 적합성 검증은 모델의 부합지수와 경로계수

dCollection @ chosun

에 의해 검증되어질 수 있다(김계수, 2003). 가설 경로의 부합지수는 20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절대적합지수(x^2, GFI, RMR 등), 증분적합지수(NFI, CFI 등), 간명적합지수(PNFI, AGFI 등) 등이 이용되며, 이를 기준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다. RMR은 실제 자료의 값과 모형에 의해 산출된 값을 표준화한 값으로 0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높은 모형이며 적합도가 낮은 모형일수록 더 큰 양의 값을 나타낸다. GFI는 표본크기의 변화와 다변량 정규분포의 위반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의 자료에서의 적부를 나타내 준다.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의 R2과 비슷하며, 모형의 절대적인 부합정도의 판단에 주로 이용된다(김계수, 2003).

GFI는 일반적으로 0.9 이상일 경우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표본크기 가 200이상이면 GFI의 사용을 권한다(이순묵, 1990).

다음으로 AGFI는 변수의 수와 관련 있는 모형의 자유도를 GFI에 조절한다. GFI와 마찬가지로 AGFI 역시 0.9 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표본크기가 200 이상이면 좋다(Silvia, 1988).

일반적으로 AGFI 값은 GFI 값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 또 다른 부합지수인 NFI는 적합도를 판단할 때, 사용되어지는 부합지수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이 값의 범위는 0에서 1사이이며 1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높은 모형이다. 또한 이 밖에 NFI를 변형한 지수로 모델의 간명성(절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간명부합지수(PNFI)가 있는데(James, Mulaik, & Brett, 1982), 이는 추정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모델을 비교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즉 AMOS의 또 다른 목적으로 가장 간명하고 절약성이 있는 모델을 찾고자 할 때, 각 모델 의 PNFI의 차이값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간명한 모델을 선택한다. PNFI는 명확한 준거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수용 가능한 준거로 모델의 PNFI 가 O과 1사이의 값에서 클수록 좋은 모형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Williams & Podsakoff, 1989).

모형 간을 비교하기 위한 또 하나의 지수가 자유도에 따른 오차를 감소시켜 그 영향을 배제하고 모델을 비교하는 비교 부합치(CFI)이다. CFI도 PNFI 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CFI는 서로 포함 관계에 있는 모형(nested model)에

Collection @ chosun

서 풀모형과 축소모형 간에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 CFI 역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0.9 이상의 값을 가지면,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 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Widaman, 1985). 카이제곱(x^2)은 모형이 얼마나 현실 자료에 잘 맞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써, 보통 100 이하이면 수용 가능한 모형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에는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혁신성, 기업가적 역량, 기술·기능적 역량, 기술차별화 경영전략, 마케팅차별화 경영전략, 경영성과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경우 요인별로 따로 요인분석을 하는 방법,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방법, 투입되는 모든 요인을 함께 분석하는 방법 3가지가 있다(박혜정,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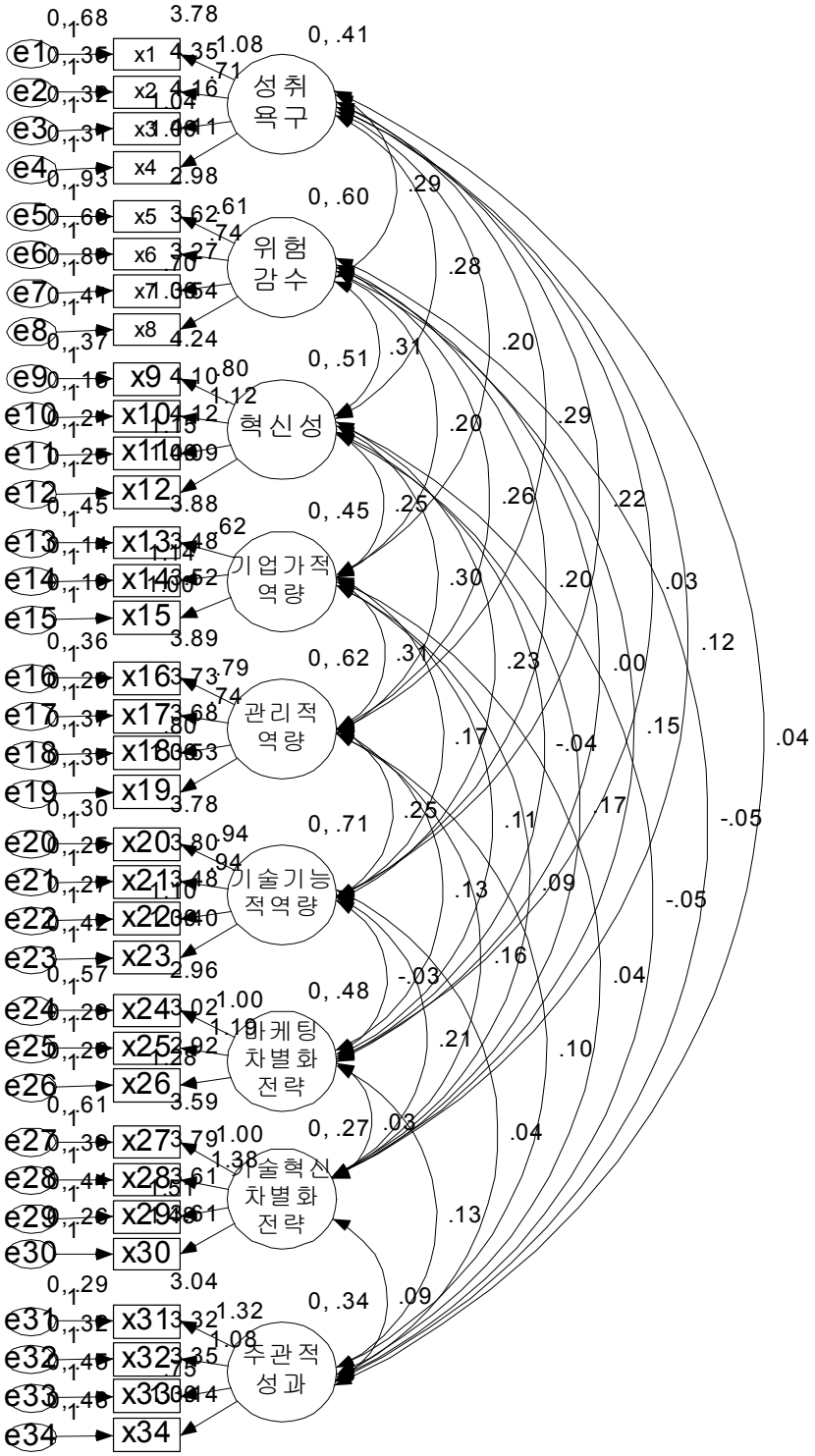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모든 요인을 함께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분포의 정상성을 가정하고 결측치가 있더라도 분석할 수 있는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5-7> 에 나타나 있다.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χ^2=909.124 (p<.001)로 모형은 변수 사이의 관계를 완벽히 설명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써 모형이 적합하지 않지만 χ^2 검증은 귀무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하여 너무 쉽게 기각이 되고,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존재함으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NFI=.966 TLI=.975, CFI=.980는 모두 .90이상이며, RMSEA= .073으로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정모형을 바탕으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표 5-4>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χ2	df	NFI	TLI	CFI	RMSEA	p
기준값	-	-	>.90	>.90	>.90	<.80*	>.05
연구모형	909.124	377	.966	.975	.980	.073	.000

*: RMSEA 가<.05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10이면 나쁜 적합도 (홍세희, 2007).

Collection @ chosun



<그림 5-1> 측정모형분석

Collection @ chosun

<표 5-5> 요인 간 공분산(상관관계)

			공분산 추정치	상관관계 추정치
성취욕구	↔	위험감수성	.287	.578
성취욕구	↔	혁신성	.276	.607
성취욕구	↔	기업가적 역량	.198	.461
성취욕구	↔	관리적 역량	.291	.581
성취욕구	↔	기술기능적 역량	.224	.417
성취욕구	↔	마켓팅차별화경영전략	.027	.062
성취욕구	↔	기술적차별화경영전략	.118	.354
성취욕구	↔	경영성과	.042	.115
위험감수성	↔	혁신성	.315	.569
위험감수성	↔	기업가적 역량	.200	.384
위험감수성	↔	관리적 역량	.255	.418
위험감수성	↔	기술기능적 역량	.204	.312
위험감수성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003	-.005
위험감수성	↔	기술적차별화경영전략	.148	.366
위험감수성	↔	경영성과	.055	.122
혁신성	↔	기업가적역량	.245	.513
혁신성	↔	관리적 역량	.295	.528
혁신성	↔	기술기능적역량	.234	.390
혁신성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039	-.080
혁신성	↔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167	.451
혁신성	↔	경영성과	.049	.118
기업가적역량	↔	관리적 역량	.307	.582
기업가적역량	↔	기술기능적역량	.175	.310
기업가적역량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108	.232
기업가적역량	↔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095	.271
기업가적역량	↔	경영성과	.042	.107
관리적 역량	↔	기술기능적역량	.253	.383
관리적 역량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126	.231
관리적 역량	↔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157	.383
관리적 역량	↔	경영성과	.097	.213
기술 기능적역량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033	-.057
기술 기능적역량	↔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213	.486
기술 기능적역량	↔	경영성과	.037	.076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031	.085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	경영성과	.086	.286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	경영성과	0.125	.312

dCollection @ chosun

<표 5-6> 측정모형의 회귀계수

			회귀계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표준오차	t
성취욕구	→	X1	1.000	.639		
	→	X2	1.041	.610	.093	11.194
	→	X3	.708	.764	.078	9.101
	→	X4	1.077	.754	.113	9.531
위험감수	→	X5	1.000	.444		
	→	X6	.700	.587	.100	7.036
	→	X7	.742	.521	.096	7.761
	→	X8	.614	.770	.101	6.105
혁신성	→	X9	1.000	.683		
	→	X10	1.150	.901	.068	17.009
	→	X11	1.116	.875	.063	17.670
	→	X12	.802	.820	.066	12.097
기업가적 역량	→	X13	1.000	.530		
	→	X14	1.136	.897	.079	14.395
	→	X15	.623	.839	.072	8.687
관리적 역량	→	X16	1.000	.719		
	→	X17	.802	.736	.069	11.700
	→	X18	.740	.721	.062	11.957
	→	X19	.785	.801	.067	11.674
기술·기능적역량	→	X20	1.000	.824		
	→	X21	1.095	.847	.070	15.631
	→	X22	.939	.872	.062	15.109
	→	X23	.943	.792	.065	14.616
기술혁신차별화 경영전략	→	X24	1.000	.676		
	→	X25	1.505	.862	.176	8.561
	→	X26	1.384	.864	.162	8.527
마케팅차별화 경영전략	→	X27	1.000	.676		
	→	X28	1.276	.862	.111	11.509
	→	X29	1.186	.864	.103	11.507
경영성과	→	X30	1.000	.817		
	→	X31	.747	.745	.101	7.403
	→	X32	1.079	.545	.115	9.378
	→	X33	1.319	.643	.136	9.723

*** $p<.001$

Collection @ chosun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는 <그림 5-1>에 제시하였고 <표 5-5>에는 <그림 5-1>에 제시하지 못한 요인 간 공분산 추정치와 상관 추정치를 제시하였으며, <표 5-5>, <표 5-6>에는 잠재요인에 대한 측정변수들의 회귀 값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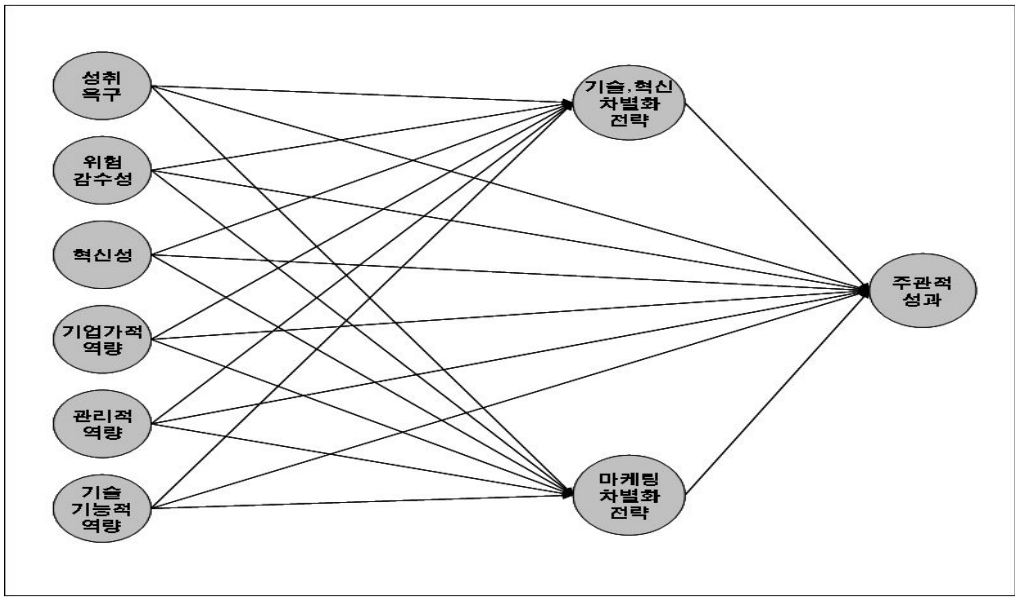
5.3.2 대안모형의 확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주관적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혁신성, 기업가적 역량, 관리적 역량, 기술 기능적 역량을 외생변인으로 기술차별화 경영전략, 마케팅차별화 경영전략, 경영성과를 내생변인으로 설정하여 최적의 모형을 찾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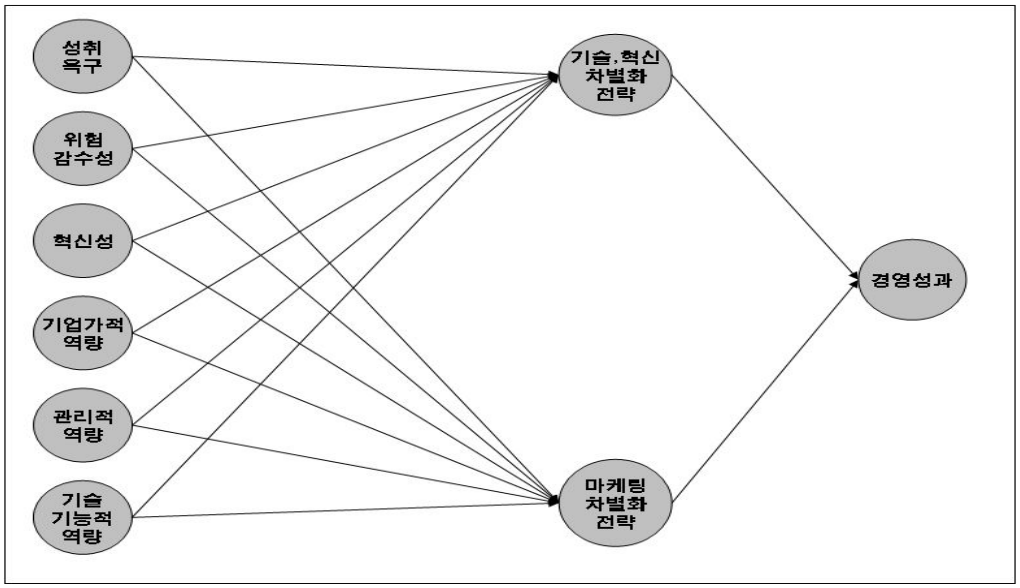
본 연구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최적의 모형을 평가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단일모형 평가와 대안모형 평가의 두 가지 방법 중에 대안모형 평가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단일모형 평가는 하나의 모형만 상정하여 적합도 확인을 통해 최적의 모형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적합도가 좋지 않으면 적합도가 좋아질 때까지 수정해가면서 최적의 모형을 찾는 방법이다. 반면 대안모형을 통한 방법은 연구자가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가능한 여러 모형을 제시하고 이들을 비교하여 최적의 모형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단일모형 평가는 하나의 모형만을 평가하여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게 되므로 더 나은 대안모형의 선택 가능성이 없어 제시한 모형이 적합도가 좋다고 해서 최적의 모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과 수정지수를 통한 모형의 수정은 연구자가 분석하는 특정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수정모형을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단일모형 평가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대안모형을 통한 평가방법이다(홍세희, 2007). 본 연구자는 대안모형 평가방법으로 Baum(2003)의 연구에서 이루어진 간접 및 직접모형에 기초하여 최적의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주관적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혁신성, 기업가적 역량, 관리적 역량, 기술 기능적 역량이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과, 기술혁신차별화 경영전략,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을 통한 간접적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직접적인

Collection @ chosun

효과를 제외한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만을 살펴보는 것을 대안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이 두 모델을 비교해보고자 그림 <5-2>과 <5-3> 제시하였다.



<그림 5-2> 연구모형



<그림 5-3> 대안모형

dCollection @ chosun

<표 5-7>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모형 적합도

	χ2	df	NFI	TLI	CFI	RMSEA
연구모형	1153.231***	492	.962	.973	.978	.071
대안모형	1179.272***	498	.961	.973	.977	.072

*** p<.001

연구모형은 대안모형에 내재된 모형이므로 모형간의 비교를 위해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χ^2 차이 검증은 비교하는 두 모형이 내재된 관계일 때 두 모형의 자유도 차이에 따른 χ^2 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는 방법이다(성태제, 2008). 또한 모형 비교를 위해 χ^2 차이 검증과 함께 적합도 지수도 고려하였다. 두 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는 다음 <표5-7>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χ^2=1153.231(p.<.001)로 나타나 귀무가설을 기각하였지만 적합도 지수인 NFI=.962 TLI=.973, CFI=.978는 모두 .90이상이며, RMSEA=.071는 .08 이하로 나타나 이 모형이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안모형 역시 χ^2=1179.272(p.<.001)로 나타나 역시 귀무가설을 기각하였지만 적합도 지수인 NFI=.961 TLI=.973, CFI=.9797 모두 .90이상이며, RMSEA=.072는 .08 이하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이때 두 모형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χ^2 검증의 차이값을 비교하였는데 χ^2 검증에서 자유도 6이 감소할 때 필요한 12.59의 임계치를 넘어서는 값으로 이 두 모형은 자료를 설명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연구모형이 복잡하지만 더 단순한 대안모형보다 유의미한 정도로 자료를 잘 설명하므로 복잡한 연구모형을 선택한다. χ^2 값이 연구모형이 더 작으며 적합도 지수들도 TLI는 같지만 NFI, CFI, RMSEA값은 연구모형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5-11> 는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경로계수를 비교한 것이다. 각 값들은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에서 비슷한 값과 부호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유의도 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표 5-8> 경로계수 (표준화 추정치)

			연구모형		대안모형	
			β	t	β	t
성취욕구	→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059	.546	.049	.307
성취욕구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026	.221	.036	.230
위험감수성	→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120	1.204	.109	1.346
위험감수성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012	-.116	-.028	-.259
혁신성	→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231*	2.394	.218**	3.190
혁신성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323**	3.145	.337**	2.048
기업가적역량	→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057	.671	.056	.617
기업가적역량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257**	2.765	.257**	2.746
관리적 역량	→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153	1.564	.157	1.235
관리적역량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295**	2.773	.303**	2.826
기술기능적역량	→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339***	4.272	.338***	4.420
기술기능적역량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125	-1.635	-.124	-1.538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	경영성과	.187*	2.472	.310***	3.200
기술적차별화경영전략	→	경영성과	.400***	4.097	.254***	4.259
성취욕구	→	경영성과	.242*	2.042	-	
위험감수성	→	경영성과	.272*	2.439	-	
혁신성	→	경영성과	.375***	3.421	-	
기업가적역량	→	경영성과	.055	.580	-	
관리적 역량	→	경영성과	.180	1.645	-	
기술기능적역량	→	경영성과	-.063	.753	-	

*p<.05, **p<.01, *** p<.001

Collection @ chosun

5.3.3 직접효과 검증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는 다음 <표5-9>에 제시되어 있다. 유의수준 .05에서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취욕구가 매개변수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보면, 성취욕구는 기술차별화 경영전략과 마케팅 차별화 경영전략과는 의미있는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경영성과에는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t=2.042, p<.05)을 행사하였다. 성취욕구가 증가할수록 경영성과(β=.242)는 증가 하였다. 다음으로 위험감수성향이 차별화 경영전략의 매개변수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보면, 위험감수성은 기술차별화 경영전략과 마케팅 차별화 경영전략에는 역시 의미 있는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경영성과에는 유의미한 영향력(t=2.439, p<.05)을 행사하였다. 위험감수성향이 높을수록 경영성과(β=.272)는 증가 하였다.

다음으로 혁신성이 기술차별화 경영전략과 마케팅 차별화경영전략의 매개변수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보면, 혁신성은 기술차별화 경영전략에 의미있는 영향력(t=2.394, p<.05)을 보였고 마케팅 차별화 경영전략에도 의미있는 영향력(t=3.145, p<.01)을 보였다. 그래서 혁신성이 증가할수록 기술차별화 경영전략(β=.231)과 마케팅 차별화 경영전략(β=.323)은 증가하였다. 그리고 혁신성은 경영성과에도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t=3.421, p<.001)을 행사하였다. 혁신성이 증가할수록 경영성과(β=.375)도 증가 하였다.

기업가적 역량은 기술차별화 경영전략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기업가적 역량은 마케팅차별화 경영전략(t=2.765, p<.01)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기업가적 역량이 증가할수록 마케팅 차별화 경영전략(β=.257)은 증가하였다. 그리고 경영성과에는 역시 의미 있는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관리적 역량은 매개변인과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기술차별화 경영전략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관리적 역량은 마케팅차별화 경영전략(t=2.773, p<.01)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관리적 역량이 증가할수록 마케팅 차별화 경영전략(β=.295)은 증가하였다. 그리고 경영성과에는 역시 의미 있는 영향을 보이지 못했다.

Collection @ chosun

<표5-9>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	p
성취욕구	→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048	.059	.546	.585
성취욕구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035	.026	.221	.825
성취욕구	→	경영성과	.289	.242	2.042	.040*
위험감수성	→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080	.120	1.204	.228
위험감수성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014	-0.12	-.116	.908
위험감수성	→	경영성과	.266	.272	2.439	.015*
혁신성	→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167	.231	2.394	.017*
혁신성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399	.323	3.145	.002**
혁신성	→	경영성과	.401	.375	3.421	.015*
기업가적 역량	→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044	.057	.671	.502
기업가적 역량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337	.257	2.765	.006**
기업가적 역량	→	경영성과	.062	.055	.580	.562
관리적역량	→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100	.153	1.564	.118
관리적역량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330	.295	2.773	.006**
관리적역량	→	경영성과	.175	.180	1.645	.100
기술기능적역량	→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207	.339	4.272	.000***
기술기능적역량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130	-.125	-1.635	.102
기술기능적역량	→	경영성과	-.057	-.063	-.753	.451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	경영성과	.161	.187	2.472	.013*
기술적차별화경영전략	→	경영성과	.592	.400	4.097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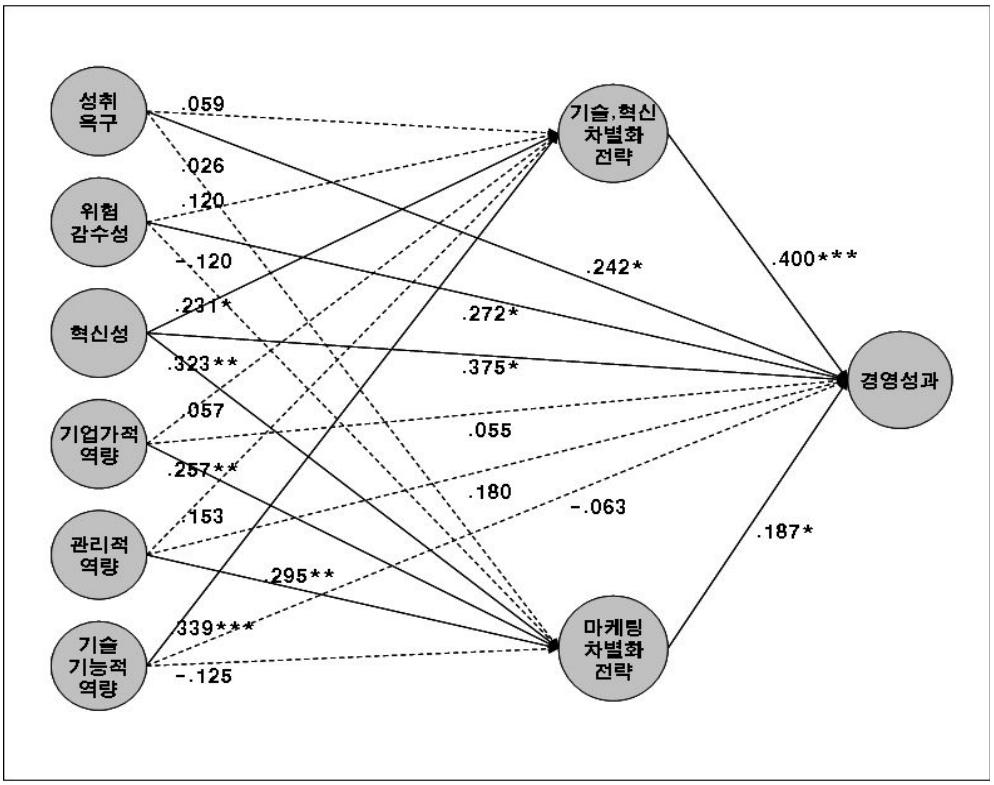
*p<.05, **p<.01, *** p<.001

다음으로 기술·기능적 역량은 기술차별화 경영전략(t=4.272, p<.001)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기술·기능적 역량이 증가할수록 기술차별화 경영전략(β=.339)은 증가하였다. 하지만 기술·기능적 역량은 마케팅차별화 경영전략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경영성과에는 역시 의미 있는

Collection @ chosun

상관을 보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차별화 경영전략과 기술차별화 경영전략이 주관적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보면 마케팅 차별화 경영전략은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력(t=2.472, p<.05)을 보여주었고, 마케팅차별화 경영전략이 증가할수록 경영성과(β=.187)는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기술차별화 경영전략은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력(t=4.097, p<.001)을 보여주었고, 기술차별화 경영전략이 증가할수록 경영성과(β=.400)는 증가하였다. 이를 모형으로 표현하면 <그림 5-4 >과 같다.



<그림 5-4> 경로계수

연구모형에서는 성취욕구는 직접적으로 경영성과에 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기술차별화 경영전략과 마케팅 차별화 경영전략을 통해서는 영향력을 보이지 않

Collection @ chosun

았다. 위험감수성향 역시 경영성과에는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보였지만 매개변수를 통해서는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혁신성은 마케팅 차별화 경영전략과 기술차별화 경영전략은 경영성과에 모두 정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다음으로 역량을 살펴보면 기업가적 역량은 마케팅 경영전략을 통해서만 경영성과에 영향을 보였다. 관리적 역량 역시 마케팅 경영전략을 통해서만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기술·기능적 역량은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을 통해서만 주관적 경영성과에 영향을 보였다. 창업가의 특성은 경영성과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매개요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창업가의 역량은 이와 반대로 경영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3.4 간접효과 확인(매개효과 확인)

매개변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Baron & Kenny(1986)의 제안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매개효과를 직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제안된 공식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Preacher & Hayes, 2004). 두 변수의 간접효과는 외생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효과와 매개변수가 내생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곱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Z = \frac{ab}{\sqrt{(SE_a^2 SE_b^2 + a^2 SE_b^2 + b^2 SE_a^2}}$$

a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간의 비표준화 회귀계수이고,
b는 매개변인과 종속변인간의 비표준화 회귀계수이며,
SE_a는 a의 표준오차,
SE_b는 b의 표준오차이다.

Collection @ chosun

<표 5-10> 매개변인 효과 분석

	경 로	z	p
Ⅳ-1	성취욕구 →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 경영성과	.546	*.584*
Ⅳ-2	성취욕구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 경영성과	.217	.827
Ⅳ-3	위험감수성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 경영성과	1.162	.244
Ⅳ-4	위험감수성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 경영성과	-.116	.907
Ⅳ-5	혁신성 →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 경영성과	2.063*	.038
Ⅳ-6	혁신성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 경영성과	2.008*	.044
Ⅳ-7	기업가적 역량 →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 경영성과	.667	.504
Ⅳ-8	기업가적 역량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 경영성과	1.988*	.047
Ⅳ-9	관리적 역량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 경영성과	1.460	.144
Ⅳ-10	관리적 역량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 경영성과	1.963*	.049
Ⅳ-11	기술·기능적 역량 →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 경영성과	2.946**	.003
Ⅳ-12	기술·기능적 역량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 경영성과	2.136*	.032

*p<.05, **p<.01, *** p<.001

soble-test를 통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유의미한 매개변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혁신성과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기술차별화 경영전략(z=2.063, p<.05)과 마케팅 차별화 경영전략(z=2.008, p<.05)이 모두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업가적 역량과 경영성과에 마케팅 차별화 경영전략(z=1.978, p<.05) 유의미한 매개변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마케팅 차별화 경영전략은 또한 관리적 역량과 경영성과 간에도 유의미한 효과(z=1.963, p<.05)를 보이고 있어 매개변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술·기능적 역량과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z=2.946, p<.01)이 효과적으로 매개하

Collection @ chosun

고 있으며, 기술·기능적 역량과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마케팅차별화 경영전략 또한 유의미하게 매개(z=2.136, p<.01)하고 있었다. 이를 제외하고는 매개변인의 유의미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5.3.5 효과분해

<표 5-11>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성취욕구	위험 감수성향	혁신성	기업가적 역량	관리적 역량	기술·기능적 역량	마케팅 차별화경영전략	기술 차별화경영전략
총효과	마케팅 차별화경영 전략	.026	-.012	.323	.257	.295	-.125	-	-
	기술 차별화경영 전략	.059	.120	.231	.057	.153	.339	-	-
	경영성과	.261	.226	.407	.080	.297	.050	.187	.400
직접효과	마케팅 차별화경영 전략	.026	-.012	.323	.257	.295	-.125	-	-
	기술 차별화경영 전략	.059	.120	.231	.057	.153	.339	-	-
	경영성과	.242	.272	.375	.055	.180	-.063	.187	.400
간접효과	마케팅 차별화경영 전략	-	-	-	-	-	-	-	-
	기술 차별화경영 전략	-	-	-	-	-	-	-	-
	경영성과	.019	-.046	.032	.025	.116	.112	-	-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기존의 회귀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없었던 요인 사이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통해 총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성취욕구의 총 효과는 .261로 나타났다. 여기에 직접

dCollection @ chosun

적인 효과는 .242이었으며, 간접적인 효과는 .019로 직접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여진다. 위험감수성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총 효과는 .226으로 나타났으며 직접적인 효과는 .272이었고 간접적인 효과는 .046으로 나타났다. 위험감수성향은 직접적으로는 경영성과에 정적영향을 보였지만 간접적으로는 부적영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혁신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총 효과는 .407이였으며 직접적으로는 .375의 정적 영향을 보여주었고 간접접적으로는 .032의 정적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혁신성은 모두 직접효과의 크기가 더 컸다.

기업가적 역량이 보여주는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력은 총 효과 .080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효과는 .055였으며, 간접적 크기는 .025로 나타났다. 관리적 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알아보면 총 효과 .297로 직접효과는 .180 간접효과는 .116으로 나타났다. 기술·기능적 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총 효과는 .050이고, 직접 효과는 -.063이고 간접효과는 .112로 나타났다. 마케팅 차별화 경영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만을 받아 .187로 나타났고 기술차별화 경영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역시 직접적인 영향만으로 .400을 보여주었다. 대부분 직접효과의 크기가 더 컸으며 간접효과의 크기는 더 작았다.

5. 4 가설 검증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가설 검증에 대한 요약은 <표 5-12>과 <표 5-13> 에 제시되어 있다. 직접적인 효과는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매개변인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obel test equation을 이용하였다.

먼저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가설을 살펴보면 가설 Ⅰ-1 “성취욕구가 기술혁신차별화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에서 성취욕구가 기술차별화 경영전략에 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지만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주지 못해 (t=.546, *n.s.*) 첫 번째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Ⅰ-2 성취욕구가 마케팅

Collection @ chosun

차별화경영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도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해(t=.221, *n.s.*) 가설을 지지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성취욕구가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설 Ⅱ-1은 유의한 영향력(t=2.042, $p<.05$)을 행사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표 5-12> 가설 검증표 1

		β	t	결과
Ⅰ-1	성취욕구 →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059	.546	*n.s.*
Ⅰ-2	성취욕구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026	.221	*n.s.*
Ⅰ-3	위험감수성 →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120	1.204	*n.s.*
Ⅰ-4	위험감수성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0.12	-.116	*n.s.*
Ⅰ-5	혁신성 →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231	2.394*	지지
Ⅰ-6	혁신성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323	3.145**	지지
Ⅰ-7	기업가적 역량 →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057	.671	*n.s*
Ⅰ-8	기업가적 역량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257	2.765**	지지
Ⅰ-9	관리적역량 →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153	1.564	*n.s*
Ⅰ-10	관리적역량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295	2.272**	지지
Ⅰ-11	기술·기능적역량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339	4.272***	지지
Ⅰ-12	기술·기능적역량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125	-1.635	*n.s*
Ⅱ-1	성취욕구 → 경영성과	.242	2.042*	지지
Ⅱ-2	위험감수성 → 경영성과	.272	2.439*	지지
Ⅱ-3	혁신성 → 경영성과	.375	3.421***	지지
Ⅱ-4	기업가적 역량 → 경영성과	.055	.580	*n.s*
Ⅱ-5	관리적역량 → 경영성과	.180	1.645	*n.s*
Ⅱ-6	기술·기능적역량 → 경영성과	-.063	-.753	*n.s*
Ⅲ-1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 경영성과	.187	2.472*	지지
Ⅲ-2	기술적차별화경영전략 → 경영성과	.400	4.097***	지지

*$p<.05$, **$p<.01$, *** $p<.001$

가설 Ⅰ-3 위험감수성향 기술차별화 경영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으

Collection @ chosun

로 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지만 유의미한 수준으로 영향을 주지 못해(t=1.204, *n.s.*)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 Ⅰ-4 가설 역시 위험감수성향이 마케팅 차별화경영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해(t=-.116, *n.s.*)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위험감수성향이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설 Ⅱ-2 는 유의한 영향력(t=2.439, p<.05)을 행사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혁신성이 기술차별화 경영전략과 마케팅 차별화경영전략의 매개변수 및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보면, 혁신성은 기술차별화 경영전략에 의미 있는 영향력(t=2.394, p<.05)을 보였고, 마케팅 차별화 경영전략에도 의미 있는 영향력(t=3.145, p<.01)을 보였다. 그래서 가설 Ⅰ-5과 가설 Ⅰ-6는 지지되었다. 그리고 혁신성은 경영성과에도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t=3.421, p<.05)을 행사하여 혁신성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Ⅱ-3 역시 지지되었다. 혁신성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기업가적 역량은 기술차별화 경영전략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일 것 이라는 가설 Ⅰ-7은 유의미하지 않아(t=.671, *n.s.*) 지지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기업가적 역량이 마케팅차별화 경영전략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가설 Ⅰ-8는 유의미하여(t=2.765, p<.01) 가설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경영성과에는 역시 의미 있는 영향을 보이지 않아(t=.580, *n.s.*) 가설 Ⅱ-4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관리적 역량은 매개변인과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기술차별화 경영전략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아(t=.671, *n.s.*) Ⅰ-9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관리적 역량이 마케팅차별화 경영전략에 유의한 영향(t=2.765, p<.01)을 미쳐 가설 Ⅰ-10는 지지되었다. 그리고 경영성과에는 역시 의미 있는 영향을 보이지 않아(t=1.645, *n.s.*) 관리적 역량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Ⅱ-5는 지지되지 못했다.

가설 Ⅰ-11은 기술 기능적 역량이 영향을 기술혁신 차별화 경영전략과 마케

Collection @ chosun

팅 차별화 경영전략,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먼저 기술 기능적 역량이 기술혁신 차별화 경영전략에 유의미한 영향력(t=4.272, p<.001)을 보여 가설 Ⅰ-11은 지지되었다. 그리고 기술·기능적 역량은 마케팅차별화 경영전략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아(t=-1.635, *ns*) 가설Ⅰ-12는 지지되지 않았다. 그리고 경영성과에는 역시 의미있는 상관을 보이지 않아(t=-.753, *ns*) 기술 기능적 역량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Ⅱ-6은 지지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차별화 경영전략과 기술혁신 차별화 경영전략이 경영성과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였다. 먼저 마케팅 차별화 경영전략은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력(t=2.472, p<.05)을 보여주었고, 기술차별화 경영전략 역시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력(t=4.097, p<.001)을 보여주어 가설 Ⅲ-1과 가설 Ⅲ-2은 모두 지지되었다.

다음은 기술차별화 경영전략과 마케팅 차별화 경영전략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은 검증표 2에서 확인 하였다.

먼저 성취욕구와 경영성과를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Ⅳ-1은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못해(z=.546, *n.s.*) 지지되지 못했다. 다음으로 가설Ⅳ-2 성취욕구와 경영성과를 마케팅차별화 경영전략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역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못해(z=.217, *n.s.*) 지지되지 않았다.

Collection @ chosun

<표 5-13> 가설 검증표 2

	경 로	z	결과
Ⅳ-1	성취욕구 →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 경영성과	.546	*n.s.*
Ⅳ-2	성취욕구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경영성과	.217	*n.s.*
Ⅳ-3	위험감수성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 경영성과	1.162	*n.s.*
Ⅳ-4	위험감수성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 경영성과	-.116	*n.s.*
Ⅳ-5	혁신성 →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 경영성과	2.063*	지지
Ⅳ-6	혁신성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 경영성과	2.008*	지지
Ⅳ-7	기업가적 역량 →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 경영성과	.667	*n.s.*
Ⅳ-8	기업가적 역량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 경영성과	1.988*	지지
Ⅳ-9	관리적 역량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 경영성과	1.460	*n.s.*
Ⅳ-10	관리적 역량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 경영성과	1.963*	지지
Ⅳ-11	기술기능적 역량 →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 경영성과	2.946**	지지
Ⅳ-12	기술기능적 역량 →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 경영성과	2.136*	지지.

*p<.05, **p<.01, *** p<.001

다음으로 위험감수경영성과 경영성과에 대한 기술차별화 경영전략과 마케팅차별화 경영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기술차별화 경영전략은 유의미하지 못하였고 (z=1.162, *n.s.*), 마케팅차별화 경영전략 역시 유의미하지 않아(z=-.116, *n.s.*) 가설Ⅳ-3과 가설Ⅳ-4 모두 지지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혁신성과 경영성과를 매개하는 변인 중에 기술차별화 경영전략은 유의미한 효과(z=2.063, p<.05)를 보여 가설Ⅳ-5은 지지되었다. 그리고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도 매개변인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 (z=2.008, p<.05.) 가설Ⅳ-6도 지지되었다.

Collection @ chosun

기업가적 역량과 경영성과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기술차별화 경영전략(z=.667, *n.s.*)은 의미 있는 매개효과를 보이지 못해 가설Ⅳ-7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기업가적 역량과 경영성과 사이를 마케팅차별화 경영전략(z=1.978, p<.05.)이 유의미하게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Ⅳ-8은 지지되었다.

관리적 역량과 경영성과 사이를 기술차별화 경영전략(z=1.460, *n.s.*)은 유의미하게 매개하지 못해 가설Ⅳ-9는 지지되지 못하였지만 마케팅 차별화 경영전략 (z=1.963, p<.05.)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어 가설Ⅳ-10은 지지되었다.

기술·기능적 역량과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z=2.946, p<.01)이 효과적으로 매개하고 있어 가설Ⅳ-11 은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술·기능적 역량과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 또한 유의미한 매개변인 효과(z=2.136, p<.01)를 보이고 있어 가설Ⅳ-12는 지지되었다. 기술·기능적 역량과 경영성과를 기술차별화 경영전략과 마케팅 차별화 경영전략은 둘 다 유의미한 매개변인이었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모형은 일반적으로 대안모형을 별도로 구상하여 제안모형보다 더 나은 적합도를 가진 모형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시도로 종종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안모형을 구상할 때는 대안모형이 기반을 두고 있는 경쟁 이론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안모형과 제안모형을 비교하게 되는데, 비교의 핵심은 모형의 간명경영성과 적합도를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혁신성, 기업가적 역량, 관리적 역량, 기술 기능적 역량을 외생변인으로 기술혁신 차별화 경영전략, 마케팅 차별화 경영전략, 경영성과를 내생변인으로 설정하여 최적의 모형을 찾고자 대안모형을 통한 평

Collection @ chosun

가방법을 이용하였다. 대안모형으로는 Baum(2003)의 연구에서 이루어진 간접 및 직접모형에 기초하여 최적의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혁신성, 기업가적 역량, 관리적 역량, 기술 기능적 역량이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과, 기술혁신차별화 경영전략,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을 통한 간접적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직접적인 효과를 제외한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만을 살펴보는 것을 대안모형으로 선정하여 비교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 두 모형을 비교에 χ^2 검증의 차이 값을 비교하였는데 χ^2 검증에서 자유도 6이 감소할 때 필요한 12.59의 임계치를 넘어서는 값으로 이 두 모형은 자료를 설명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었다. 연구모형이 복잡하지만 더 단순한 대안모형보다 유의미한 정도로 자료를 잘 설명하므로 복잡한 연구모형을 선택한다. χ^2 값이 연구모형이 더 작으며 적합도 지수들도 NFI, CFI, RMSEA값은 연구모형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접효과를 보는 모형보다는 직, 간접 효과를 보는 모형이 더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모형비교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산출된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들을 고려해 볼 때 본 분석모형은 표본자료와 비교적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고 다음 단계인 가설검증을 위한 Amos 추정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의미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특성인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혁신성, 기업가적역량, 관리적역량, 기술·기능적 역량을 변수로 하여 이러한 변수들이 경영전략유형인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마케팅 차별화경영전략과 경영성과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혁신성, 기업가적역량, 관리적역량, 기술·기능적 역량은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과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인 성취 욕구와 위험감수성향은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과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Collection @ chosun

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창업가의 특성 중 심리적 특성 즉,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향은 경영성과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경영전략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창업가 특성 중 심리적인 특성요인인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향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전략 등과 연계되어 경영성과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 (Sexton & (1985);Bowman Smith & Miner(1984); Miner(1980) ; Schrang(1965) ;Sexton과 Bowman(1985) 조형래(1995);이장우(1998); 박영배와 윤창석(2001))에서 창업가의 특성 중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향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많은 연구와 일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경영전략을 통한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차후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과 경영전략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측정에 있어 간접효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고려해 보아야 할 변수로 생각된다.

둘째, 혁신성은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과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가의 특성 중 혁신성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창업가의 혁신성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에도 매우 중요한 창업가의 특성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기업가적역량은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가적 역량 즉 사업기회인식능력과 벤처성공을 위한 열정 등은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에 매우 중요한 역량 특성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이며 기업가적역량이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한국의 벤처기업체에 있어서 사업기회인식능력과 벤처성공을 위한 열정인 역량은 차별화의 요소로 기술, 혁신을 강조하는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dCollection @ chosun

넷째. 관리적 역량은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과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는 자원을 획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고 자원을 배분하고 과업을 통합, 조정시킬 수 있는 역량 등이 요구되는 관리적인 역량이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과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미한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리적 역량은 경영전략에 매우 중요한 역량 특성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기술·기능적 역량은 기술, 혁신차별화 경영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술·기능적 역량은 매우 중요한 창업가의 역량 특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에 이와 같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가들은 신기술 개발 및 혁신적인 제품생산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 진다. 이를 종합해 보면 창업가의 역량특성은 경영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관리적역량, 기술·기능적 역량, 기업가적 역량 모두 경영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벤처기업 창업가의 관리적 역량, 기술·기능적 역량, 기업가적 역량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양희순(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창업가의 역량특성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나 다른 매개변수를 통하여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가의 3가지 역량특성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구분된 개념임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즉, 기업가적역량, 관리적역량, 기술·기능적 역량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벤처기업의 경영성과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수립한 경영전략의 강력한 실행을 통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ollection @ chosun

여섯째, 경영전략 즉,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은 주관적 경영성과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가설검증 결과 기술혁신차별화전과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성별 차이분석을 통해서도 경영전략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경영전략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가의 특성 즉, 혁신성, 기업가적역량, 관리적역량, 기술·기능적 역량과 매개하여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Collection @ chosun

Ⅵ. 결 론

6. 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연구들이 창업가 특성, 경영전략을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동일한 외생변수로 다루어 왔던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Baum(2003)의 벤처성장에 대한 구조모형연구에 근거를 두고 창업가 특성을 외생변수로 경영전략을 매개적 내생변수로 설정하였다. 창업가특성이 경영전략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분석 및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창업가특성이 경영전략의 매개효과를 통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의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업가의 특성인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혁신성, 기업가적역량, 관리적역량, 기술 기능적역량을 외생변수로 하여 이러한 변수들이 내생변수인 기술혁신 차별화경영전략, 마케팅 차별화경영전략과 경영성과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구조모형을 통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인 성취 욕구와 위험감수성향은 경영성과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경영전략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가 특성 중 심리적인 특성요인인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향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전략 등과 연계되어 경영성과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창업가의 특성 중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향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많은 연구(Sexton & Bowman(1985); Smith & Miner(1984); Miner(1980) ; Schrang(1965) ; Sexton & Bowman(1985) 조형래(1995);이장우(1998);

Collection @ chosun

박영배와 윤창석(2001)) 와 일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경영전략을 통한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차후 심리적 특성 경영전략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측정에 있어 간접효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고려해 야 할 변수로 생각된다.

혁신성은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과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와 경영전략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창업가의 혁신성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향상에도 매우 중요한 창업가의 특성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기업가적역량은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업가적 역량 즉 사업기회인식능력과 벤처성공을 위한 열정 등은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에 매우 중요한 역량 특성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기회인식능력과 벤처성공을 위한 열정인 기업가적역량은 기술, 혁신을 강조하는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원을 획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고 자원을 배분하고 과업을 통합, 조정시킬 수 있는 역량 등이 요구되는 관리적인 역량은 기술혁신차별화경영전략과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전략에 매우 중요한 역량 특성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기술·기능적 역량은 기술혁신 차별화경영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 기술·기능적 역량은 매우 중요한 창업가의 역량 특성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와 같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가들은 신기술 개발 및 혁신적인 제품생산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 진다. 이를 종합해 보면 창업가의 역량특성은 경영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관리적역량, 기술·기능적 역량, 기업가적 역량 모두 주관적 경영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벤처기업 창업가의

Collection @ chosun

관리적역량, 기술·기능적 역량, 기업가적 역량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양희순(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창업가의 역량특성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나 다른 매개변수를 통하여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가의 3가지 역량특성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구분된 개념임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지며 이러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수립한 경영전략의 강력한 실행을 통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영전략은 주관적 경영성과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가설검증 결과 기술혁신·차별화전과 마케팅차별화경영전략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영전략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가의 특성 즉 혁신성 기업가적역량, 관리적역량, 기술·기능적 역량과 매개하여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한 창업가 특성 경영전략의 매개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Baum(2003)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의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창업가의 특성은 주관적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경영전략을 통한 매개효과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마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6. 2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Baum(2003)은 선행연구에서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과 역량특성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경영전략의 매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Chrisman 등(1998)은 선행연구를 통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요인으로 창업가, 경영전략의 확장모형을 제시

dCollection @ chosun

하였고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자는 이 점에 착안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이를 기초로 창업가특성, 경영전략을 경영성과 영향요인요로 도출한 후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국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통해 규명하였다. 또한 모형비교를 통해 간접효과를 보는 모형보다는 직, 간접 효과를 보는 모형이 더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중요한 요인을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창업가의 혁신성은 전략을 통해 경영성과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직접적인 영향 또한 미침으로서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략에서 차별화전략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기술혁신차별화전략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나 향후 벤처기업의 전략수립에 있어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경영성과 영향요인들은 경영성과 향상을 추구하는 벤처기업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해 경영성과 영향요인을 직, 간접적으로 분석해보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이나 영향요인에 판한 연구의 경우 대부분 계량적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회귀분석방법 의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경향이었고 구조방정식모형에 의한 경영성과 결정요인이나 영향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수가 266부였는데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는데 있어 기준치인 200부를 상회하고 있어 무리는 없었으나 통계적 추정치에 대한 예측력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dCollection @ chosun

둘째, 외생변수 및 내생변수에서 다소 많은 측정항목이 사용되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고안된 설문 문항이라 하더라도 철저한 사전 인터뷰 및 사전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 대상 기업의 현상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염선된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최소한의 측정 항목으로도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경영성과로 주관적 경영성과와 객관적 경영성과를 사용하여 조사 하였으나 재무적 지표의 공개를 꺼려하는 벤처기업체가 많아 응답률이 저조한 관계로 객관적 경영성과지표는 분석에 사용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매년 발간되는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상황을 분석한 벤처기업 재무 분석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이러한 방대한 자료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종단적인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을 보다 정교화 하는 이론적 검토 작업과 더불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개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은 본 연구와 관련한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며 연구자의 관심과 노력으로 연구의 질적 향상을 기대해본다.

Collection @ chosun

참 고 문 헌

강병서, 김계수(2005), 『한글 SPSS 12K 사회과학통계분석』, SPSS 아카데미.

강상미(2002), "창업자·환경·경영전략·조직특성이 벤처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숙자(2003), "한국 벤처기업의 경영전략유형, 조직특성 및 환경의 불확실경영성과 기업경영성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고봉상(2004),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고봉상, 용세중, 이상천(2003),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벤처경영연구』 6(2) : 3-33.

권구혁, 신진교(2003), "경영전략적 환경적응력과 조직내부적 적합성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연구』 25(2) : 127-153.

김 갑, 한상설(1999), "산업구조, 벤처경영전략 및 기업가 특성이 벤처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벤처경영연구』 2(1).51-75.

김계수(2005),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SPSS 아카데미.

김병균, 이정길(2006), "벤처산업과 벤처경영"

김 렬, 성도경, 이환범, 송건섭, 조태경, 이수창(2005), 『사회과학 연구 및 논문작성을 위한 통계분석의 이해 및 활용』, 도서출판 대명.

김영배(1986), "경영전략군 유형에 따른 환경, 조직구조 및 기술혁신 행태 : 통합적상황모형", 한국과학기술원 박사학위논문.

김영운(2003), "중소기업의 재무적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종관, 이용탁(2001),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경영·경제연구』 20(1) : 1-18.

김종재, 이석인(2004),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전략-경영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경영전략학회, 『한국정보경영전략학회지』 7(2) : 113-135.

Collection @ chosun

박노윤(1998), “중소기업에서의 기술혁신과 영향요인의 관계”, 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연구』 20(2) : 119-147.

배병렬(2005),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 이해와 활용』, 도서출판 청람.

배영일(2002), “벤처경영상의 재정립”, 삼성경제연구소.

백경래(2002), “신생모험기업의 경영전략유형 및 경영성과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석사학위논문.

서의훈(2005), 『SPSS 통계분석』, 자유아카데미.

서정희(2006), “벤처기업 경영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안연식(2001),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요인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희순(2002), “한국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현목, 이상우, 박명철(2002),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기술개발경영전략과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31(4) : 881-906.

용세중(2003), “창업이론 개발을 위한 통합 개념모델”, 『Working Paper』 아주대학교.

유세준, 양희순(2001), “한국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생산성학회, 『생산성논집』(구 생산성연구) 15(2) : 1-31.

윤문섭(2004), “벤처기업의 창업자 배태조직 및 경험유형에 따른 기업경영성과의 차이 분석”, 한국과학기술원 박사학위논문.

이동주(2002), “벤처기업의 시장”, “기술혁신지향경영성과 선행변수 및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병기(2002), “벤처기업의 성장요인의 실증분석”, 한국중소기업학회, 『벤처경영연구』 5(2) : 93-109.

이석인(2005), “중소기업의 환경과 경영전략의 적합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업경영학회, 『기업경영연구』 12(1) : 225-238.

이성훈(2003), “벤처기업의 시장”, “기술혁신지향경영성과 선행변수 및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Collection @ chosun

이인찬, 이광훈, 박성진, 김휘경(2003),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성공요인 분석과 주요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장우(1997), “한국벤처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 한국중소기업학회, 『춘계학술연구 논문발표집』.

이장우(1998), “성공벤처기업의 특성 : 사례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벤처경영연구』 제1호 : 101-128.

이장우, 이현숙(2000), “벤처기업의 유형구분과 경영성과”, 한국중소기업학회, 『벤처경영연구』 3(2) : 3-31.

이장우, 장수덕(1999), “벤처기업 성공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중소기업학회, 『벤처경영연구』 1(2) : 69-95.

이장우, 장수덕(1999), “성공벤처기업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중소기업연구』 21(1) : 105-133.

이장우, 장수덕(2001),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성공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사 · 조직연구』 9(2) : 59-92.

이춘우(1999), “조직앙트라프러뉴십의 역할과 조직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 자원기초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학식, 임지훈(2005), 『SPSS 12.0 매뉴얼』, 법문사.

장수덕, 송영화(2003), “환경, 경영전략 및 조직특성의 변화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변화”, 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연구』 25(1) : 27-50.

장수덕, 이장우(2003), “벤처기업의 기업가, 환경, 경영전략 그리고 조직구조 특성 경영성과변화”, 『한국경영과학회지』 28(2) : 35-60.

정성한, 김해룡(2001), “소상공인 창업성공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벤처경영연구』 4(2) : 3-29.

조형래(1995), “창업인의 특성, 제품혁신성 벤처기업 경영성과간의 상황적 관계”, 한국과학기술원 박사학위논문.

지용희, 이윤보, 한정화(2005), 『중소기업론』(제3판), 도서출판 경문사.

채서일(2003), 『사회과학조사방법론』, 학현사.

Collection @ chosun

채명수, 강대석, 이형택(2002), “경쟁경영전략 변수를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최이규(2006), 『구조방정식 모형』, 무역경영사.

최용호, 신진교, 김승호(2003), “최고경영자, 경영전략 및 구조요인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연구』 25(2) : 103-125.

한상설(1997), “벤처경영전략, 산업구조 및 기업가 특성이 벤처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정화(1998), “경영전략이론 관점에서 본 벤처기업의 창업과 경영성과”, 한국경영전략경영학회 『추계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 49-63.

한정화(2003), 『벤처창업과 경영전략』, 홍문사.

한정화(2006), “성취욕구와 성공체험의 선순환”, 매일경제신문사, 『매경ECONOMY』 통권 제1375호(2006. 10. 4/11).

한태인(2001), “한국 벤처기업의 경영자 특성 경영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우너 박사학위논문.

홍세희(2007)"경영학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용” 『경영학연구』

중소기업청(2008), “벤처기업에 관한 실태조사”, 보도자료.

중소기업청 조사평가과 (2008.10), “벤처기업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청 · 벤처기업협회·한국벤처연구소(2008), 『2008년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2008)』 최종보고서.

Abell, D. E.(1980), Defining the Business : The Starting Point of Strategic Planning,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Inc

Abetti, P. A., & Stuarter, R. W. (1987) Product newness and market advantage. High technology Market Review, 1(2), 79-93.

Amit, R., Glosten, L. and E. Muller.(1993), “Challenges to Theory Development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30(5) : 815-834.

Andrews, K.(1971), The Concept of Corporate Strategy, Homewood, M. Dow Jones-Irwin.

Collection @ chosun

Bantel, K. A.(1996), "Niche Strategy-Planning Focus Synergy in Technological, Entrepreneur and Firm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 601-615.

Barney, J.(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1) : 99-120.

Bass, B. M.(1985). Leadership and performance beyond expectation. New York : Free Press.

Baum, J. R(1994), "The Relation of Traits, Competencies, Vision, Motivation, and Strategy to Venture Growth", Doctoral Dissertation Maryland University.

Baum, J. R., & S. Wally.(2003), "Strategic Decision Speed and Firm Perform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4(11) p.1128-1129.

Baum, J. R., Loche, E. A. and K. G. Smith.(2001), "A Multidimensional Model of Venture Growt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2) : 292-303.

Beard, D. W. and G. G. Dess.(1981), "Corporate-Level Strategy, Business-Level strategy, and Firm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4(4) : 663-688.

Begley, T. M. and D. P. Boyd.(198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formance in Entrepreneurial Firm and Smaller Busin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 : 79-93.

Biggadike, R.(1979), "The Risky Business of Diversific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57(3) : 103-111.

Birley, S. and D. Norburn.(1987), "Owner and Manager : The Venture 100 vs The Fortune 500",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4) : 351-364.

Blackbrun, R. S.(1981), "An Evaluation of the Reliability, Stability and Factor Structure of the Manifest Needs Questionnaire", Journal of Management 7(2) : 55-52.

Boone, C. and B. D. Brabander.(1997), "Self-Reports and CEO Locus of Control Research : A Note", Organization Studies 18(6) : 949-971.

Boone, C., Brabander, B. D. and A. V. Witteloostuijin.(1996), "CEO Locus of Control and Small Firm Performance : An Integrative Framewook and Empirical Test",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33(5) : 667-699.

Collection @ chosun

Broom, H. N. and J. G. logenecker.(1979), Small Business Management (5th Ed), South-Western publishing co. Cincinnati, OH.

Buchele, R. B.(1967), Business Policy in Growing Firms, Chandler publishing, San Fransisco, CA.

Budner, S.(1962), Intolerance of ambiguity as a personality variable. Journal of personality, 36, 50-58.

Burns, T. and G. M. Stalker.(1961), The Management of Innovation, Tavistock, London.

Buzzell, R. D., Gale, B. T. and R. G. M. Sultan.(1975), "Market, Share - A Key to Profita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53(1) : 97-106.

Chen, & Hambrick, D. C.(1995), "Some Tests of the Effectiveness and Functional Attributes of Miles and Snow's Strategic Typ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1) : 5-26.

Chandler, A. D.(1962), Strategy and Structure : Chapters in the History of the Amerian Industrial Enterprise, MA : MIT press.

Chandler, G. N. and E. Jansen.(1992), "The Founder's Self-Assessed Competence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7(3) : 223-236.

Chandler, G. N. and S. H. Hanks.(1994), "Founder Competence, the Environment, and Venture Performance", Entrepreneurship : Theory and Practice 18(3) : 77-89.

Chandler, G. N. and S. H. Hanks.(1998),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Emerging Vusiness : A Validation Stud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8(5) : 391-408.

Chen, C. C., Greene, P. G. and A. Crick.(1998),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 295-316.

Chrisman. J. J., Bauerschmidt, A. and C. W. Hofer.(1998), "The Determinants of New Ventere Performance : An Extended Model", Entrepreneurship : Theory and practice 23(1) : 5-29.

Cohn, T. and R. A. Lindberg.(1972), "How Management is Different in small Companies",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New York.

Collection @ chosun

Cooper, A. C., & Bruno. A. (1997), Success among high technology firm Business Horizons, 20, 16-22.

Cooper, A. C., Gimeno-Gascon, F. J. and C. Y. Woo.(1994), "Initial Human and Financial Capital as Predictors of New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5) : 371-395.

Cooper, A. C., Willard, G. E. and G. Y. Woo.(1986), "Strategies of High performance New and Small Firms : A Reexamination of the Niche Concep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 : 247-260.

Covin, J. G. and D. P. Slevin.(1991),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 Theory and Practice 16(1) : 7-25.

Covin, J. G. and D. P. Slevin(1989), "Strategic Management of Small Firms in Hostile and Benign Environment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0(1)75-87.

Covin. J. G. Slevin. D. P. and T. J. Covin.(1990), "Content and Performance of Growth-Seeking Strategies : A Comparison of Small Firms in High-and Low-Technology Industr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6) : 391-412.

Daft, R. L.(2001), Organization Theory and Design (7th.ed). South-Western College Publishing.

Dill, W. R.(1985), "Environment as an influence on Managerial Autonom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ly 2(4) : 409-443.

Ding, L., Velicer, W. F. and L. L. Harlow.(1995), "Effects of Estimation Methods, Number of Indicators per Factor and Improper Solutions on Structral Equation Modeling Fit Indic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 : 119-143.

Dollinger, M. J.(1995), Entrepreneurship : Strategies and resources. Boston : Irwin.

Doutriaux, J.(1992), "Emerging High-Tech Firms. How Durable Are Thir Comparative Sart-up Advantag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7(4) : 303-322.

Duchesneau, D. A. and W. B. Gartner.(1990), "Profile of New Venture Success and Failure in an Emerging Industr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5) : 297-312,

Duncan, R. B.(1972), "Characteristic of Organizational Environments and Perceived Environmental Uncertaint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ly 17(3) : 313-327.

Collection @ chosun

Emery, F. E. and E. L. Trist.(1965) "The Causal Texture of organizational Environments", human Relations 18(1) : 21-32.

Geren, D., Karahanna, E. and D. W. Straub.(2003), "Trust and TAM in online Shopping : An Integrated Model", MIS Qquarterly 27(1) : 51-90.

Ginsberg, A. and Venkatraman, N.(1985), "Contingency Perspectives of Organizational Strategy : A Critical Review of the Empirical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3) : 421-434.

Grant, R. M.(1991), "The Resource-Based Theory of Competitive Advantage : Implications for Strategy Formulation",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33(3) : 114-135.

Hair, J. F.Jr., Anderson, R. E., Tatham, R. l. and W. C. Black.(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Prentice-Hall international.

Hall, R. H.(1986), Professionalization and bureaucratization Amerians Sociological Review. 33. 92-104.

Hambrick, D. C. and Mason, P.(1984), "Upper Echelons : The organization as a Reflection of it's Top Manager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9(2) : 193-206.

Hambrick. D. C.(1982), "Environmental Scanning and Organizational Strateg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2) : 159-174.

Herron, L. and R. B. Rovinson, Jr.(1993), "A Structural Model of the Effects of Enterpreneurial Characteristics on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8(3) : 281-294.

Hitt, M. A. and R. D. Ireland.(1984), "Corporate Distinctive Competence and Performansce : Effects of Perceived Environmental Uncertainty, Size and Technology", Decision Sciences 15(3) : 324-326.

Hofer, C. W. and D. Schendel.(1978), Strategy Formulation : Analytical Concepts, West Publishing Company, St. Paul. MN.

Maier, J, B., & Walker, D. A. (1987). The role of venture capital in finance small busin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 207-214.

Collection @ chosun

Malos, S. B. (1999). Professional employee retention in hi-tech. industries: Unfolding decision paths in a free agency labor market. Academy of Management 1999 Annual Meeting, Chicago, Illinois.

McClelland, D. C. (1955). Measuring motivation in phantasy: The achievement motive. In D. C. McClelland (Ed.), Studies in motivation (pp. 401-413).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McClelland, D. C. (1961).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Van Nostrand.

McDougall, P. P., Robinson, R. B., & Denisi, A. S. (1992). Modeling new venture performance: An analysis of new venture strategy. industry structure, and venture orga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7, 267-289.

Miller, A., & Camp, B. (1985). Exploring determinants of success in corporate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 87-105.

Miller, A., Spann, M, S., & Lerner, L. (1991). Comparative advantages in new corporate ventures: The impact of resource sharing and reporting level.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 335-350.

Miller, D.(1987),"The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Correlates of Business Strateg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8*(1) : 55-76

Ostgaard, T. A. and S. Birley.(1994),"Personal Networks and Firm Competitive Strategy - A Strategic or Coincidental Matc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4) : 281-305

Porter, M. E(1985), C*ompetitive Advantage : Creating and Sustaining Superior Performance,* Free Press, New York.

Robinson, P. B. and E. A. Sexton.(1994),"The Effect of Education and Experience on Self-employment Suc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2)* : 141-156

Roure, J. B. and R. H. Keeley.(1990),"Predictors of Success in New Technology Based Ventu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4) : 201-220*

Sandberg, W. R., & Hofer, C. W. (1987). Improving new venture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y, industry structure and the entrepreneur. Journal of Business Ventureing, 2, 5-28.

Collection @ chosun

Sapienza, H, J., & Gupta, A. K. (1994). Impact of agency risks and task uncertainty on venture capitalist – CEO interac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7(6), 1618-1633.

Sexton, D. L., & Bowman, N. (1985), The entrepreneur. A capable executive and mors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1), 129-140.

Smith, H. C. (1955). Psychology of industrial behavior. New York: McGraw-hill.

Smith, K. G. and C. M. Grimm(1987),"Environmental Variation, Strategic Change and Firm Performance"A Study of Railroad Deregul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8* (4)363-376.

Snow, C. C. and L. G. Hrebiniak. (1980),"Strategy, Distinctive Competenc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5(2) : 317-336

Stuart, R. W. and P. A. Abetti.(1990)."Impact of Entrepreneurial and Management Experience an Early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3) : 151-162

Stuart, B. and P. A. Abetti.(1987),"Start-up Venures : Towards the prediction of Initial Success". Journal of Business Benturing 2(3) : 123-137.

Thomas, A. S., Litschert, R. J. and K. Ramaswamy.(1991),"The Performance Impact of Strategy-Manager Coalignment : An Empirical Examin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2(7) : 509-522

Timmons, L., Smollen, E., & Dingee, Jr. A. (1985). New venture creator. Iwin: Homewood Ⅲ.

Tsai, W. M., MacMillan, I. c. and M. B. Low.(1991),"Effects of Strategy and Environment on Corporate Venture Success in Industrial Market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1) : 9 -28

Venkatraman, N.(1989),"The Concept of Fit in Strategy Research · Toward Verbal and Statistical Corresponde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3) : 423-444

Vernerfilt N. Strategy V. Ramanujam.(1986),"Mcasurement of Business performance in Strategy Research : A Comparison of Approach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4) : 801 814.

Collection @ chosun

Van de Ven, A. H., Hudson, R., & Schroeder, D. M. (1984). Designing new business start-ups: Entrepreneurial, organizational, and ecolog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Management, 10(1), 97-107.

Williams, L. and J. Hazer.(1986),"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Organizational Turnover"A Rcanalysis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1(2) : 219-231

Zarhra, S. A. (1996). Predictors and financial outcomes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 259-285.

Collection @ chosun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에 관한 연구를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

본 설문의 분석결과는 벤처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귀하가 응답해 주신 내용은 익명으로 통계처리 되며,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끝까지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저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2008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지도교수 : 윤 종 록

교수 : 김 형 철

(H.P 017-601-6383)

E-Mail : bruetos@hanmail.net

dCollection @ chosun

Ⅰ. 다음은 창업가의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되는 곳에 √ 표 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큰일을 하고 싶다.					
2.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3. 나는 사업에서 큰 업적이 될 만한 일을 성취하고 싶다.					
4. 나는 남들이 생각하기에 어려운 일을 훌륭하게 해내고 싶다.					
5.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하고야 마는 성향이다.					
6. 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꼭 수행하고 만다.					
7. 낮은 수준의 확실한 수익보다는 높은 위험의 큰 수익을 주는 사업을 더 선호한다.					
8. 불확실한 상황이 오면 주의하고 개선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과감히 대처한다.					
9. 나는 가장 흥미 있는 삶이란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0. 나는 단순한 문제보다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재미있다.					
11. 나는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라면 남의 돈을 빌려서라도 사업을 하겠다.					
12. 나는 종업원들의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13. 나는 신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과감히 지원한다.					
14. 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15. 나는 업무수행에 있어 새로운 기술, 도구, 방법 등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16. 나는 업무개선을 위해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해낸다.					
17. 나는 혁신적 경영기법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dCollection @ chosun

Ⅱ. 다음은 창업가의 역량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되는 곳에 √ 표 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고객들이 무슨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는지를 잘 인식하고 있다.					
2. 나는 사업기회를 잘 포착하는 역량이 있다.					
3. 나는 좋은 사업기회를 잘 포착하는 편이다					
4. 나는 사업성공을 위한 열정이 많은 편이다.					
5. 매우 독립적으로 일하기를 즐겨한다					
6. 사람들을 동기 부여함으로써 경영성과를 달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7. 자원을 배분하고 과업을 통합 조정시키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8. 사람들을 감독하고 설득하며 지도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9. 나는 조직 장악역량이 뛰어나다.					
10. 권한을 효율적으로 위임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11. 나는 기술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12. 나는 전문화된 분야의 기술, 과정 그리고 툴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13. 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기술 전문가다					
14. 나는 해당산업의 최고 기술 보유자다					
15. 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dCollection @ chosun

Ⅲ. 다음은 귀사의 경영전략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우리 회사는 경쟁사보다 디자인 및 포장을 강조하고 있다.					
2. 우리 회사는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획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3. 판매 대리점 및 유통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4. 우리 회사는 경쟁사보다 마케팅 활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5. 우리 회사는 경쟁사보다 광고 및 홍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6. 우리 회사는 경쟁사보다 기술혁신에 집중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7 우리 회사는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8. 우리 회사는 외국기술 도입 및 기술제휴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					
9. 우리 회사는 첨단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10. 우리 회사는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점점 늘리고 있다.					

dCollection @ chosun

Ⅳ. 다음은 귀사의 경영성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주관적 경영성과>

항 목	전혀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우리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동종업계와 비교해 볼 때 높은 편이다.					
2. 우리 회사의 생산성은 주요 경쟁사와 비교해 볼 때 높은 편이다.					
3. 우리 회사의 수익성은 동종업계와 비교해 볼 때 높은 편이다.					
4. 우리 회사의 브랜드 인지도는 주요 경쟁사와 비교해 볼 때 높은 편이다.					
5. 우리 회사의 신제품 계발 능력은 주요 경쟁사와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이다.					

Ⅴ-1. 창업 시 귀하의 나이는?

① 30세 미만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이상

Ⅴ-2. 창업가의 최종 학력은?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학사 ④ 석사 ⑤ 박사 ⑥ 기타

Ⅴ-3. 창업가의 학력이 전문대 졸 이상인 경우 최종학력 전공분야는?

① 경영, 경제학 ② 공학(엔지니어) ③ 자연과학 ④ 인문사회
⑤ 기타

dCollection @ chosun

Ⅴ-4. 창업가의 전공분야와 현재 우리 회사 생산제품과의 관련성 정도는?

① 전혀 관련 없다 ② 대체로 관련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관련 있다 ⑤ 매우 관련 있다

Ⅴ-5. 창업가는 현 기업을 경영하기 이전에 다른 기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Ⅴ-6. 창업가의 이전 직장의 근무경험은?

① 있다 ② 없다

Ⅴ-7. 이전직장의 근무경험이 있다면 그 직장경험과 현재 우리회사 생산제품의 관련성 정도는?

① 전혀 관련 없다 ② 대체로 관련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관련 있다 ⑤ 매우 관련 있다

Ⅴ-8. 귀하의 업종은?

① 제조업 ② 정보처리S/W ③ 연구개발서비스 ④ 건설운수
⑤ 도, 소매업 ⑥ 농·어·임·광업 ⑦ 기타

Ⅴ-9. 귀사의 소재지는?

① 서울, 경기지역 ② 부산, 경남지역 ③ 대구, 영남지역
④광 주, 전남지역 ⑤ 대전, 충청지역

♣ 대단히 감사합니다 ♣

Collection @ chosun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경영학과	학번	10141040	과정	박 사
성 명	한글 : 김 형 철 한문 : 金 亨 哲 영문 : Kim Hyoung Chel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현대아파트 202동 1405호				
연락처	017-601-6383				
논문제목	한글 : 벤처기업의 창업가특성과 차별화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문 : The Effect of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iation Strategy on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과 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 이용의 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 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

2009년 8월 일

저작자 : 김 형 철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Collection @ chosun

감사의 글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 논문이 하나의 결실로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지극한 정성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을 진학하여 석사과정 때부터 지도교수님으로 만나게 되어 12년간 부족함이 많은 제자를 항상 밝은 빛으로 이끌어 주시려 애쓰신 윤종록 교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심사위원장님으로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상하게 지도해 주신 이강옥 교수님, 논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 정진철 교수님, 임효창 교수님, 이기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삶을 있게 해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사랑으로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켜봐 주신 어머님과 지금 세상에서 저와 함께 하시지는 않지만 그 누구보다도 대견해 하셨을 아버지. 그리고 늘 묵묵히 격려와 배려를 해 주셨던 장인, 장모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큰절 올립니다.

늘 부족한 남편 이였지만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 깊은 배려와 부드러운 격려로 나를 지켜주는 삶의 동반자인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늘 밝은 웃음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었던 딸 현지에게도 감사하고 나중에 딸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 논문을 주고 싶습니다.

참 많이 기다려왔던 시간이 왔지만 이 순간이 끝이 아니고 시작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신 모든 분들의 기대를 항상 가슴속에 간직하며 겸허한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 제 자신을 비워낼 줄 아는 겸손함으로 절제의 참 모습을 익히면서 제 자신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렵니다.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 형 철 올림